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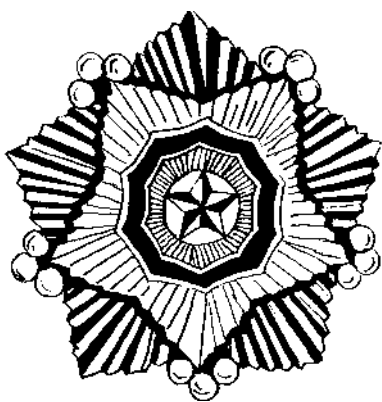


7

주체 101 (2012)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7호

(루계 제777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
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
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
습니다.》

김 정 은

----- 차 례 -----

----- 백전백승의 강철의 경장 김일성대원수님께 영광을! -----

수령님 계시는 세계(시)..... 리 명 근(4)

영생의 세월(시)..... 곽 명 철(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아버이의 위대한 생 외 1편 김 춘 호(6)

전쟁과 일요일(담시)..... 함 영 근(8)

주체문학의 대강 (8)

단편소설 **마지막휴식** 신 용 선(9)

1211고지방위권투를 승리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대서사시적화록(평론)..... 최 언 경(17)

서사시 《김일성장군》과 시인 그리바쵸브 리 근 실(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자(론설) (26)

시 어머니 사랑하신 노래 김 선 화(24)

지원의 뜻으로 빛나는 조국 위 명 철(24)

영원한 전승의 이야기 리 영 철(31)

조선의 영원한 전승절 황 명 성(32)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투쟁하며 창조해나가자!

—공동구호에서—

단편 소설	꽃은 열매를 남긴다	김 철 순(33)
	대지의 노래	박 종 철(42)
	안해의 풍경화	최 성 진(58)
	이 나라의 푸른 숲과 더불어(수필)	리 정 옥(30)

◇ 평 론 ◇

독특한 구성의 매력과 성격형상	김 순 림(54)
철학적인 사색과 발견, 참신하고 특색있는 형상세계	리 윤 근(69)

===== 시 =====

그들의 자리는 비지 않았다	김 금 철(29)
전연마을처녀들	박 성 일(53)
속새골 대추나무집	리 찬 호(57)
하나의 모습	류 정 실(68)
나의 자리를 내어달라(시초)	조 광 원(73)
노래경연 출을지구(가사)	손 명 화(25)
발자국소리	심 복 실(76)
분노한 총검으로	변 홍 영(78)
개성적인 언어문체와 소설가의 노력	리 남 철(77)
시인 박산운과 참말(소개)	라 경 춘(79)
상식	(21), (41)

표지3면: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높이 최첨단돌파전으로!》 (선전화)

수령님 계시는 세계

리명근

언제 어디서나 그 영상 우러르면
태양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우리 수령님
언제 어디서나 그 미소 생각하면
한없이 따사로운 봄빛이 되어
이 가슴에 흘러드나니

진정 하루 한순간도 헤어짐없이
어디에나 계시더라
우리 수령님
누구나 모시고 살더라
우리 아버지

더듬어보면
수도에서 머나먼 두메산촌
수령님 다녀가신 학교아이들
수령님 오셨던 그날을 명절로 맞이하더라
함께 찍은 사진을 우러러보며
오늘도 수령님품에 안겨산다는
그 행복과 기쁨에 넘쳐살더라

수수한 농가집에 들리시여서는
허물없이 명석우에 앉으시여
농사일을 두고 가정일을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시던 수령님
자애로운 그 모습 못 잊어
온 농장이 추억속에 그날을 그려보더라

철령의 령길에 새겨진 비문도
수령님 오셨던 그날을 전하고
대덕산의 일당백구호도
수령님 그 말씀 뜨겁게 새겨준다

잊을수 없어라
금굴의 녀인들속에서
그리도 환히 웃으시던 그 미소
탄광의 깊은 막장까지 찾으시여

탄부들의 손 잡아주시던 그 손길
산골마을 작은 상점에 들리시여
우리 가정수첩을 펼쳐보시던 자애깊은 그 모습

지금도 귀기울이면
개선연설을 하시던 그 음성이
저 하늘가에서 메아리쳐 울려올듯
우러러 그려보면
전승열병대오를 사열하시던
군복입으신 그 모습이 하늘가득 비껴올듯...

몸소 지어주신 외국소녀의 이름이 풍기는
《진달래》의 향기도 그윽하다
온 세상이 피워올린 **김일성**화
세월넘어 누리에 불멸하다
대양과 대륙을 넘어 울려퍼지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의 메아리 끝이 없어라

주체사상탑의 붉은 노을은
만민의 가슴속에 비껴들고
인류는 오늘도 **김일성**동지
그이를 자주의 기치로
혁명의 등대로 우러르거니

오, 수령님 계시는 이 땅, 이 세계
한평생 조국과 인민위해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해 바쳐오신
붉은기의 기수
주체의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쌓으신 그 업적의 영원불멸함과 함께
계승되는 그 위업의 필승불패와 더불어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계가 우러러 높이 모신 태양의 모습으로
어제처럼 오늘도 영원히
이 행성의 중심에 거연하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는 아들로써 이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직하고 숭고한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어머니는 온몸에 불붙는 그 의와 열로 하여 순식간에 재가 될것 같은 형상이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개와 뉘은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경지에서 나를 굽어보고있었다.

그때의 모습은 차라리 어머니라기보다도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였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를 모시고있다는 자랑으로 하여 나는 가슴이 러져나갈것만 같은 행복감을 느끼였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십수백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범상한 작별이 아니라 내 한생애 가슴아픈 추억을 남겨놓은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별이였다. 나는 그후로 어머니를 다시 만나뵙지 못했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였다. 그것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전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준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이였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영 생 의 세 월

곽 명 철

우리 어찌 다 알랴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신 수령님
인민을 찾아 가신 곳
그곳이 얼마인지
그 길이 몇천만리인지

이날은 우리 수령님 오셨던 날이라고
여기는 우리 수령님 들리셨던 곳이라고
그리워 못 잊는 마음들이 정성다해 세운
현지도사적비며 표식비들
내 조국 방방곡곡 그 얼마이던가

한해는 삼백예순닷새여도
사람들은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남기신
영광의 그날을 백날 천날로 살며
당부하고 가신 높이신 뜻
남기신 사랑에 사노라

세월은 가고가도
오셨던 뜻깊은 그 날과 달은
어김없이 찾아와
마음속에 뜨겁게 맞이하는
아, 우리 수령님

정녕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그날은
먼 어제날이었어도
오늘에 오신것처럼
우리러 따르며 그리움에 목메게 하나니

아, 정녕 수령님을 못 잊어
비둘에 정히 새기고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사는
영광의 그 날과 달들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생의 세월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흐르리라

어 버 이 의 위 대 한 생 외 1 편

김 춘 호

그이가 우리곁에 계신다는
그 하나의 생각만으로도
마음은 든든하고 즐거워
끝없는 행복속에 우러르던
우리 어버이이시였다

그 이름 한번 불러만 봐도
꽃같은 웃음이 절로 피고
그 영상 한번 뵈기만 해도
기쁨의 노래 가슴에 샘솟던
자애론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언제나 건강이 넘치고 부디 안녕하시기를
그처럼 간절히 바랐건만
그이는 한생을
초볼처럼 태우시며
흰눈처럼 녹이시며
인민을 위해 다 바치셨다

눈덮인 전선길
풍랑의 배길뿐이라
포전의 진창길
석수내리는 막장길 다 걸으시며
그이는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다

인민을 위해
천만밤을 지새우시면서도
자신을 위한 하루밤만은
그리도 내실수 없으셨던가
그이의 한생은 정녕 인민을 위한 한생이었다

가슴속에 품는 간절한 리상
그것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이어서
인민 인민 그 부름을 외우시며
어느 한시 일손을 못 놓으신 어버이

인민은 그이를 하늘처럼 우러렀건만
그이는 한평생 인민의 아들되어
그 인민을 사랑하시였다

인민은 그이를 태양으로 받들었건만
그이는 한평생 인민의 총복되어
그 인민을 받들어오셨다

온 가슴 온 심장으로
이 나라 이 인민을 불안고
자신의 천만고생과 우리 행복을 바꾸신
어버이장군님

말하라 부강의 이 땅이여
선경의 새 거리와 CNC기계바다
무적의 총대숲과 우리의 위성이여
내 나라 번영의 모든것에
그 손길 아니 깃든것이 있더냐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그이의 업적으로 가득히 찼다!

한생을 바치시여
만복의 터전을 닦아주신
잊지 못할 우리 어버이
그이는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
인민이 천년세월 소원하던 모든 일을
그이는 그 한생에 다 하셨다!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어도
쫓아올린 업적속에 그 생은 빛난다
내 나라 부흥의 노래에
그이의 삶의 숨결 실려있고
강대한 조선의 모습에
그이의 강철의 힘 비껴있다

높이 날리는 붉은 기폭에
그이의 사상 빛발치고
김정은장군의 발걸음따라
나아가는 일심의 대오에
그이의 기상 장엄히 나래친다

찬란하여라 그 한생
숭고하여라 그 한생

온넛을 기울여 사랑을 주시고
위대한 심장을 다 주신
그 인민의 삶과 더불어
그 조국의 번영과 더불어

그이는 길이 영생하신다
무궁한 태양과 같이
영원한 하늘과 같이...

기 념 비

가없이 맑은 하늘아래
만복의 대통로가 열린 강산
뒤돌아보면
눈보라를 헤쳐온 고난의 날
어제런듯 삼삼한데
조국은 바야흐로
강성국가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해가거니

노을비긴 천리방선
고지의 봉이마다 탑을 세워 노래하라
이 땅 곳곳마다
기적같이 솟아오른
창조의 탑들에 글을 새겨 노래하라

가슴은 뜨겁구나
비바람 눈보라 헤치시며
조국땅 천리 만리를
종횡무진 누벼가시며
장군님 선군으로 안아오신 이 승리

강토의 끝에서 끝까지
천만의 기념비를 세우고
억만의 금문자를 아로새긴대도
다 노래하지 못할 이 환희

보아라 선군의 그 자욱따라
솟아오른 불패의 요새들을
무적의 포신들이 번쩍이고
철갑의 무한궤도가
침략을 막아 억척같이 서있는
강대한 내 조국의 천리전선을

보아라 선군의 그 해빛아래
전변의 세월을 펼친 이 땅을
선경의 새 풍경이 꽃피나고

비약의 준마가
최첨단을 향해 질풍치는
부흥하는 내 조국의 방방곡곡을

가는 곳마다
철벽의 성새 거연하고
번영의 탑이 숲을 이룬 나라
이 땅이 그대로 하나의 위대한
선군승리기념비는 아니더냐

나라마다 자기 식의 자랑이 있다 하라
하지만 온 강산이
거대한 선군의 성공탑으로
높이 빛나는 나라
세상에서 내 조국 하나뿐이 아니더냐

세찬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진 눈비에도 부식되지 않으며
사나운 격랑에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 기념비는

배심 든든히 천하를 굽어보며
필승의 보검을 번쩍이는
우리의 높은 존엄처럼 영원하리라
이 기념비는

오, 그래서
더더욱 자랑스런 나의 조국이어
병사의 이 총대 억척의 기둥되어
그대의 높은 존엄 더 높이 받들려니

빛나라 조국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업적
천만년 노래하는 불멸의 기념비로
이 행성의 한복판에 무궁토록 빛나라!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인민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문학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장엄한 현실과 현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를 작품에 진실하게 묘사하자고 하여도 주체사상과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답 시

전 쟁 과 일 요 일

함 영 근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의 싸움은 엄혹하였네
그 어디를 보나 가슴아픈 파괴뿐
도시와 마을
길가엔 뿌리채 뽑혀 덩구는 가로수들...

허나 그속에서도
생활은 약동하고있었네
학교의 종소리는 아이들을 부르고
병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들에선 위장망을 쓴 농민들 곡식을 가꾸고
어기영치기영 다리복구대의 목고소리

문득 어데선가 들려왔네
—가슴에 꿰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
아이들이 부르는 쟁쟁한 노래소리

깨끗이 빨아 다림발까지 세워입은
옷차림에 소년단넥타이와
머리엔 모자 외태머리엔 빨간 땡기
잔등마다엔 달싹거리는
등산배낭과 곤충망

전선으로 가시던 어버이수령님
달리던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셨네
그리고 아이들을 부르시였네
수령님 품에 안긴 아이들속에
팔에 열성자표식을 단 학생이
어버이수령님께 소년단인사를 올리였네

수령님께서 물어보셨네
—너희들은 이 아침에 어디로 가는 길이나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올렸네
—오늘은 일요일이여서
우리끼리 저 승리산에
동식물채집을 갑니다

전화의 나날에도
들엔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산에는 단풍이 붉게 타는데
수령님께서 수원들을 보며 말씀하셨네
—미제놈들은 일요일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우리 아이들은 일요일에 동식물채집을 간다오
곤충망까지 척 메고 말이요

수령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으시였네
—애들아 너희들은
미제놈들의 비행기가 무섭지 않느냐
—무섭지 않습니다
우린 저 승리산꼭대기에 올라가
미제놈비행기를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마치 들고선 곤충망으로 비행기도 잡으려는듯

—미제놈비행기를 내려다보겠냐?
보통배짱군들이 아니군
크게 웃고나신 수령님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네
원쑤놈들이 준비하는 새 공세는 벌써
아이들의 곤충망에 든 부나비신세라고

수령님은 떠나가셨네
전쟁승리를 위해 전선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산놀이를 위해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승리산으로 올랐네
그날은 일요일
아이들 등산을 즐긴 일요일이였네



신 용 선

그것은 환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었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은 그렇듯 가혹하고
 무자비하고 놀라운 현실이었다.
 최무진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창밖에선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시커먼 구름장들이 온 누리를 캄캄하게 뒤덮
 었다.
 (여기가 어딘가... 내가 왜 이럴까?)
 최무진의 의식은 자꾸만 헛갈리고 토막났다.
 가까스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해의 모습이 흐릿하게 안겨왔다.
 그도 몸부림치며 통곡을 하고있었다.
 남자는 흐트러지고... 머리카락들은 어깨를 휘감
 고 푸들푸들 떨어졌다.
 순간 모진 가위에 눌린 때처럼 그 무엇이 숨길
 을 짝— 틀어막았다.
 공포였다.
 현실감각의 무서운 공포의식이 가슴을 사정없이
 짓눌렀다.
 (아니야, 그럴수 없어. 이건 악몽이야! 악몽!)
 최무진은 두팔을 마구 내휘저으며 부르짖었다.
 했지만 귀전에선 눈물에 젖은 방송원의 목소리가
 그냥 울리고있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향
 우리의 전체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
 장병들...》
 최무진은 다시 허탈상태에 빠지고말았다.

무수한 불꽃조각들이 눈앞에서 흩날렸다.
 몸은 강파롭고 캄캄한 심연속으로 건잡을수 없
 이 빠져들어가는가 하면 세찬 파도에 휘뿌려 날바
 다 한가운데에 던져지기도 했다.
 환각이었다.
 의식도 육체도 모든것이 흐트러지고 뒤번져지고
 휘말려들어가는 환각이었다.
 까맣게 말라 타들고 이발로 깨물어 온통 피가
 진 입술을 추겨 무엇인가 피타게 호소하고 애원하
 면서 부르짖었던만 그것은 악몽과 현실세계의 아
 득한 공간으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비는 끝없이 쏟아져내렸다.
 하늘과 땅이 맞붙어있었다.
 비구름은 공중으로 떠가는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땅우로 기여갔다.
 번개! 창유리를 찢는 칼날같은 번개의 섬광과
 천지를 들부시는듯 한 천둥소리에 최무진은 거칠
 게 호흡하며 눈을 떴다.
 그토록 슬프고 무방비하던 눈에 차츰 정기가 떠
 돌았다.
 그러자 웬일인지 눈앞에선 이틀전에 있었던 일
 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현실과 환각이 혼탁되어 산산조각이 난 최
 무진의 의식이 가장 또렷하게 정화된 순간이었다.
 ...
 평범한 날이었다.
 전야에선 오곡이 자라고 먼 운행길에 오른 렬차
 는 정시로 달리고 꽃이 피고 새들이 우짖는... 이

땅위에 흐른 세월의 무수한 날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폐사로운 날이었다.

오리알빛 하늘에 몇점 등실 떠있는 구름송이들도, 찌르륵거리는 풀벌레소리도, 젖빛안개와 흰공같은 태양도...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경제부문 일군협의회가 진행되고있는 아담한 회의장건물도 먼발치에서 보면 태고연한 정적속에 잠겨있는듯싶었다.

협의회는 이틀째 계속되고있었다.

회의장안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긴장하였다.

검소한 앞막에 앉으신 수령님께서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말씀을 그냥 하시었다.

《...어제회의에서도 말했지만 제국주의의 오만한 압력봉쇄와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좌절로 하여 우리는 지금 엄중한 도전과 간고한 시련을 겪고있으며 인류와 력사앞에 자기의 망심과 도덕, 의지와 신념을 검열받고있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소.

부주석동무가 한번 답변해보시오.》

나이가 일흔이 훨씬 지났으나 젊은이들처럼 벌떡 일어난 부주석의 땀에 젖은듯 한 얼굴은 긴장한 색조에 물들어있었다.

그는 랑허리옆에 드리워 붙어있는 두주먹을 힘껏 틀어잡으며 말씀을렸다.

《수령님,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로 되고맙니다.》

《옳소, 우리 후대들이 노예로 되고마오.》

문득 수령님의 얼굴에는 엄한 빛이 어리고 조용한 목소리에선 확고한 의지와 억누를수 없는 힘이 넘쳐났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때문에 우리는 백두산에서 높이 추켜든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야 하오. 붉은기-이것은 우리의 신념이고 맹세이며 의지이고 기치요. 나는 얼마전에 전 미국대통령 카터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소.... 당신들이 우리에게 대한 제재를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취소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우리는 해방후 첫날부터 오늘까지 내내 제재속에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제재를 가한다고 못살것 같은가, 우리는 제국주의의 봉쇄와 제재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이다라고 말해주었소. 혁명의 전진도상에 난관은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고 휘황찬란하오.》

수령님께서는 잠간 말씀을 끊으시었다.

좌중을 둘러보시는 그이의 안광에 근엄하면서도

밝은 빛이 떠올랐다.

회의장안은 숨소리 하나 없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상싶은 정적속에서 회의참가자들은 수령님을 우러르며 불같은 맹세를 다졌다.

회의장 맨 뒤줄에 앉아있는 최무진의 가슴은 세찬 흥분으로 터질듯이 높뛰었다.

그 누가 가슴속에 들어앉아 있는 힘을 다하여 매질을 해대는것 같았다.

창문으로 흘러든 한줄기의 해빛이 그이께서 마주앉아계시는 책상우에 와닿아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며 뛰놀았다.

수령님께서는 어리광치듯 반짝이는 해빛반사광을 지켜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패배주의현상이 나타나고있소. 원료를 제때에 수입하지 못했다고 우는소리만 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애쓰지 않고있단 말이요. 이것이 패배주의가 아니고 뭐겠소.》

순간 최무진은 심장이 찌릿해지면서 그 어떤 죄의식이 창끝처럼 머리를 찌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들려온 말에 의하면 어떤 일군은 바로 이런 관점과 태도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다나니 께진 신발을 신고있는 어린것들을 보고도 외면하고있단 말이요.》

준절한 음성은 최무진의 폐부에 깊이 박혔다. 숨이 꺾 막혔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해쓱하게 질린 얼굴은 순식간에 땀방울로 덮였다. 가슴속 심장이 그 무엇에 얻어맞아 찢어져나가는것 같은 아픔속에서 최무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회의장은 물뿌린듯 조용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수령님께서 잠시 동안을 두신 그 짧은 순간의 비상한 침묵속에서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한생을 두고도 자기를 다 헤아려보기 힘들다고 하지만 때로는 극히 짧은 한순간에도 자기의 진속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최무진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아버이수령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지난 기간 두려운 허울밀에 가리워있던 자기의 어지러워진 진속을 명백하게 들여다볼수 있었던것이다.

참말로 숨막힐듯 한 충격이었다.

최무진은 며칠전 동해안 어느 신발공장에 출장

을 간적이 있었다.

생산현장을 돌아보고난 그는 그곳 지배인과 함께 사무실청사앞마당을 거닐며 공장실태를 더 깊이 료해하였다.

공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자재와 원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는 문제를 놓고 줄곧 안타깝게 호소하던 50대 여성지배인은 공차기에 여념없는 한 아이의 신발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위원장동지, 나는 저런 신발을 신고있는 애들을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 견디지 못하겠어요...》

때마침 공이 두사람앞으로 굴러왔다.

얼굴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여라문살나는 두 조무래기가 공을 먼저 차지하려고 승벽내기로 달려왔다.

구두발로 공을 멈춰세운 최무진은 신발코숭이가 터져나간 한 녀석의 어깨를 붙잡고 통조로 물었다.

《이녀석, 너는 한해에 신발을 몇켤레나 신느냐?》

뜨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조무래기는 묻는 뜻을 알겠다는듯이 햇빛에 번쩍이는 최무진의 가죽구두와 제 신발을 엇바꿔보며 벌쭉 웃었다.

《다섯켤레요.》

《다섯켤레? 허— 그렇게 장난질이 세차니 소가 죽인들 견디어내겠나? 예끼, 이녀석...》 하고 최무진은 조무래기의 엉덩짝을 철썩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안에 들어있는 자재를 주지 않는것처럼 강짜를 부리는 지배인을 나무람까지 하였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최무진은 온몸에 땀기가 쭉— 뻗쳐오르면서 마비가 오는것 같았다.

그러자 그이앞에서 죄많은 자기를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힘겹게 머리를 들었다.

하지만 선뜻 일어나지 못했다.

어떻게 되어 자기가 이렇듯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되어버렸는지 아직 명백하게 알수 없었던것이다.

최무진은 무섭게 뒤채이는 심장을 애써 진정하며 수령님을 우려했다.

수령님께서는 시계를 보고계셨다.

순간 최무진의 술진 눈썹이 크게 떠지며 굳어졌다.

손목시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수령님의 안광에 알릴듯말듯 한 얇은 미소가 스치는듯 하더

니 이내 사라지고 난감해하는 빛이 어렸던것이다.

방금전의 준절하고 근엄하신 표정과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최무진은 물론 회의장안의 일군들도 호흡을 멈추었다.

그런 까닭에 회의장분위기는 더욱 팽팽하였다.

《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가?》

혼자소리로 나직이 외우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 잠깐 휴식하고 회의를 계속합시다.》

무겁고 긴장한 자세로 앉아있던 일군들은 저마다 시계를 보며 경탄해마지 않았다. 매사에 항상 그러했지만 이번 휴식도 약속한 시간에 따라 분초의 에누리조차 없이 정확히 선포하시는 그이의 엄격한 사업절제와 시간관념에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결상에서 먼저 일어나신 수령님께서서는 휴계실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하마트면 깜빡 잊을번 했더니까...》

그 무슨 실책이라도 하신듯 고개를 저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웬 영문인지 이 순간 언젠가 만나보신 외국의 대학교수를 상기하셨다.

회고록을 읽고 감동된 백발의 로교수는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씀올렸다.

《...주석각하는 어찌면 80고령의 오늘까지도 어린시절 동무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것처럼 복잡하고 간고한 나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계십니까? 참말로 놀랍습니다.

주석각하는 인류가 낳은 기억의 천재입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너무 과찬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인류가 낳은 기억의 천재겠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기억력이 좋다면 잊을수 없고 또 잊어서는 안되기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깊이 새기고있을뿐이라고 대답하셨다...

잠깐동안의 생각에서 깨어나신 수령님께서서는 약간 서두르는 기색으로 현관문쪽으로 걸음을 바꾸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우리 함께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쏘입시다.》 하시고는 선자리에 그냥 굳어져있는 최무진을 향해 손을 흔드시였다.

《최무진동무.》

《?!》

최무진은 후더운 인정미가 넘치는 그 부름에 언뜻 눈길을 들었다.

그리고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그는 총리를 비롯한 간부들이 길을 비켜주었으나 움직이지 못했다.

《어서 오라구.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있는줄 아나?》

그이께서는 어안이 병병해진 최무진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듯 친근하고 자애에 넘친 어조로 재촉하시였다.

최무진은 침착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그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걸음걸음은 천만가지 생각과 뜨거움을 불러일으켰다.

이상한 흥분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그리하여 울렁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하며 걷던 최무진은 저도 모르게 우뚝 멈춰섰다.

현관정문앞에 아들 철민이와 며느리가 서있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앞가슴에 갓난애기까지 안고있었다.

최무진은 이번엔 귀가 아니라 눈을 의심하였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것은 수령님께서 정중히 인사올리는 며느리를 두팔로 안아주며 못내 기뻐하시는 모습이였다.

《수고했구나. 정말 수고가 많았다. 몸은 별일 없느냐?》

《어버이수령님, 저의 몸은...》

가슴벅찬 흥분과 수집음으로 하여 뒤말을 채 잊지 못하는 며느리의 두눈에 물기가 함뿍 고여있었다.

《건강하단 말이지?》

그이께서는 며느리를 정겹게 지켜보시며 말씀하셨다.

《귀여운 애기를 품에 안고있으니 정말 보기 좋구나. 그래, 애기도 건강하겠지?》

《네! 건강합니다.》

살결고운 얼굴에 행복한 웃음을 가득 담고 대답올리는 며느리의 눈에선 어느덧 맑은것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렇다면 마음이 놓인다. 어디 한번 애기를 안아보자.》

수령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두팔을 내미시였다.

며느리는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며 옆에 서있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했던단 행복과 기쁨, 환희와 감격의 무아경속에 빠져버린 젊은 중위는 안해의 눈길을 감촉 못하며 수령님만 우러르고있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에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눈물은 적동색얼굴을 적시며 줄지어 흘러내렸다.

수정같은 눈물속에 잠겨있는 동공에선 섬광과도 같은것이 타올랐다. 그 섬광이 젊은 중위의 심장속 깊은 곳에서 끓어번지는 걱정을 대신하는듯도 싶었다.

《어서— 백두산에서 돌아오지 못한 너희들의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내가 안아보자.》

순간 최무진은 불뭉치를 집어삼킨듯 가슴이 확장아오르며 목구멍으로 쇠덩어리같은것이 치받쳤다.

그것을 삼키느라고 최무진은 두툼한 입술을 깨물며 눈을 지그시 내려잡았다.

그의 목에 두드러진 울대뼈가 오르내리며 무엇인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백두산에서 돌아오지 못한...》

귀전에서, 심장속에서 그 말씀은 북치듯 자꾸만 울렸다.

동시에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면서 이 순간의 자기 심정을 나타낼 어떤 표현도 찾을수가 없었다.

며느리는 수령님께 애기를 넘겨드렸다.

어린것을 두손에 고이 받쳐드시고 햇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지켜보시던 수령님께서 기쁨에 젖은 목소리로 부주석을 찾으시였다.

《여보 부주석동무, 이녀석 이마를 좀 보구려. 어디선가 이런 이마를 본 생각이 나지 않소?》

《?!》

부주석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유격대시절 경위중대 기관총소대장이 생각나오?》

《망치이마로 소문난 최달호소대장 말입니까?》

《그렇소. 이녀석이 망치이마 최달호의 증손자요. 애기아버지인 저 중위는 손자구... 허... 유전이란 참으로 신통하거던, 어찌면 이렇게도 제 증조할아버지의 이마를 닮았는지. 정말 모를 일이거던... 나는 몇달전에 이곳 초소장인 저 중위를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소. 기관총소대장이 내앞에 환생하여 나타난줄로 착각했다니까. 허— 최무진동무는 외탁을 했는지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손자는 신통히도 할아버지를 닮지 않았겠소. 얼굴모습뿐아니라 걸음씨와 성미까지도 꼭같더라 말ियो. 오늘 아침에도 해산한 안해가 퇴원한다는데 빨리 병원에 찾아가라고 하니 초소장이 어떻게 초소를 뜰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딱 뻔치지 않겠소.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질테니 병원에 가서 안해와 어린애를 데리고 세시까지 여기에 도

착하라고 타일러도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는게요.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승용차에 태워 쫓아보냈소. 허— 최달호의 고집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 아마 이녀석도 이제 크면 최달호를 닮을것은 불보듯 뻔하오. 이 이마를 보지. 허—허—》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밝고 청청한 웃음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선물처럼 메아리쳤다.

《그래—그래— 최달호를 닮아야지. …》 하시며 애기의 발짓한 볼을 도닥여주시는 수령님의 안광에 문득 지울수 없는 서글픔이,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는 괴로움이 스쳐지났다.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훌륭한하고 좋은분이였다. 성미가 순하고 결곡하면서도 일단 싸움판에 나서면 무서운 사람이였다. 조국해방을 한달 앞두고 원썬놈들의 총탄에 맞아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손에서 기관총을 놓지 않았다. …》

수령님께서서는 애기를 안으신채 호수가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한없는 그리움과 깊은 회억에 잠기신 그이의 음성은 꽃과 숲에 묻힌 여름날의 싱그러운 대기속에 잦아들었다.

수령님의 품에 안긴 애기는 어느덧 췌근췌근 잠들었다.

그윽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수령님의 머리우에 끝간데없이 아득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숲의 송진내를 앞세우고 한줄금의 바람이 불어왔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결에 수령님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날리었다.

하늘중천에선 정오를 넘긴 태양이 밝은 빛을 뿌렸다.

진액을 한껏 빨아올린 나무잎사귀들과 촉촉한 우듬지들은 눈부신 그 빛을 받아 은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 산란광으로 하여 신비한 색조에 휩싸인 애기의 잠자는 모습은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꽃잎처럼 방긋이 벌린 입술, 곱게 패운 보조개, 푸른 혈관이 그대로 내비쳐보이는 흰 살결… 거기에는 행복과 평온과 안식이 깃들어있었으며 이 세상 그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쏟아붓는 애무와 축복이 함께 잠자고 있었다.

한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비다듬으면서도 애기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이윽고

최무진에게 고개를 돌리시며 조용히 이르시었다.

《최무진동무, 어서 여기 와서 손자를 안아보라구. … 이렇게 귀여운것을 품에 안고있으니 온갖 시름과 걱정이 일시에 풀리면서 새힘이 부쩍 솟는것 같구만. …》

수령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힘과 무게와 담력이 느껴졌으며 행복하고 기쁨에 찬 감동이 어려있었다.

최무진은 손자결로 다가서지 못했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심장은 당장 터져나가는듯 했다.

그는 진정 위대한 심장에서만 고동칠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맥박을 받아안았으며 그런 사랑만이 품길수 있는 후덥고 자애로운 인정미와 숨결을 호흡했던것이다.

몇초 지나서야 최무진은 수령님으로부터 손자를 받아안았다.

가득이나 부자연스럽게 손자를 부둥켜안고있는 최무진의얼굴은 수수떡처럼 익어번졌다.

그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허둥거렸다.

부주석과 총리, 부총리들이 애기를 들여다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허— 그녀석 이담에 커서 장수가 될것 같군.》

《아니, 이마를 보니 학자감이요. …》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최무진을 바라보시며 그 무슨 생각에 잠기셨던 수령님께서서는 《세월이 참 빠르군, 최무진이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으니…》 하고 조용히 뇌이시다가 물으시었다.

《최무진동무의 생일이 1939년 3월 24일이지?》

《?!》

최무진은 입을 열지 못했다.

금시 심장이 쿵— 뒤채이는것만 같은 세찬 격정에 목이 확— 메이고 혀가 굳어져버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벌써 50여년세월이 흘러갔구만. 그날 밀영에 눈이 많이도 내렸지. …》

옛 추억을 불러오시듯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건너편산발들에 눈길을 주시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한 산발들은 다함없는 명상과 평온 그리고 수려함과 감동적이며 회화적인 웅건함을 가지고 동남쪽으로 뻗어나갔다.

수림속에선 싱그러운 바람결에 산열매들이 익어가는 달짝지근한 향기가 실려오는데 길옆 여기저기에 피어난 이름모를 들꽃들은 자연의 품속에서 웅석을 부리며 한들거리고있었다.

청명한 여름날의 특유한 고요, 무성한 수림조차

죽아버린듯 한 깊은 고요속에서 일꾼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그이의 말쑤에 귀를 기울이었다.

《...밀영은 명절날처럼 흥성거렸소. 중대장들은 숲에 사냥군조를 파견하고 작식터에선 너대원들이 미역국과 특식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지... 그런데 한낮이 좀 지나서 최달호소대장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겠소...》

...

평소에도 파묵한 최달호는 한껏 주눅이 들고 죄스러운 얼굴빛으로 힘겹게 말쑤지를 뺐다.

《사령관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

장군님께서서는 처음엔 영문을 알수 없어 가볍게 놀라시었다.

《조국진군을 눈앞에 두고 한시가 바쁜 이런 때 안해가 해산까지...》

《하-하-》

그제서야 말쑤를 알아차린 장군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물으시었다.

《안해가 아들을 낳아서 면목이 없다는거요?》

그이께서는 퍼그나 낮고 뜨거움에 젖은 어조로 말쑤를 이으시었다.

《아니요. 면목이 없는것이 아니라 동무들은 온 부대에 커다란 힘과 기쁨을 가져다주었소.

〈미래를 사랑하라!〉 우리 전우들은 단두대 우에서도 웃으며 이렇게 웨치군 했소. 미래란 무엇이겠소? 그것은 여기 눈덮인 밀영에서 오늘 아침 태어난 동무의 아들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란 말이요...》

밖에선 눈이 그냥 쏟아졌다.

하늘과 땅은 온통 즐기치게 쏟아지는 눈의 세계였다.

귀를 강구면 대기를 스치는 눈소리가 금시 좌-하고 들러올듯싶었다.

난로우의 물주전자는 칙-칙- 김을 뿜어올렸다.

그이께서는 이따금씩 불티가 튀어나오는 난로안에 장작개비를 집어넣으며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물으시었다.

《정옥동무한테는 찾아가봤소?》

《...》

최달호는 목덜미에 손을 가져가며 어쭙게 웃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심중해진 낯색으로 타이르시었다.

《아직 찾아가보지 않은 모양이구만. 잘못됐소. 하기야 안해가 달덩이같은 아들을 낳은것을 오히

려 죄스럽게 생각하는 동무가 언제 벌써 찾아가볼수 있겠소, 허참-》

가볍게 웃으시며 최달호의 그 특징적인 이마를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안광엔 깊은 사색과 다감한 정서 그리고 마중해오는 래일이 환기시키는 환희로운 감정이 비껴있었다.

슴벅이는 최달호의 속눈썹에 물기가 맺혀 번쩍거렸다.

그러나 입언저리엔 마치도 쑥스럽거나 면구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와 같은 미소가 그냥 어려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커다란 털모자를 움켜쥐고 서있는 최달호를 녀성병실쪽으로 떠미시고는 자신께서도 밀림속을 거니시었다.

모든것이 눈속에 파묻혀 어찌 보면 밀림에는 나무우듬지들밖에 없는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눈덮인 밀림에도 삶의 맥박이 약동하고 있었다.

방금전에도 새 생명의 고고성이 울리지 않았는가! 그 세찬 고고성은 인간세계의 영원한 번영과 삶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교향곡인것이다.

얼마나 고맙고 귀중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사색은 바닥없이 깊어만 갔다.

발자국우에 흰눈은 끝없이 내려와쌓였다.

흰눈을 떠실은 나무가지들이 흔들리면서 무엇이냐 알수 없는 음향을 울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음향에 귀를 기울이시었다.

가슴속에 야릇한 흥분을 채워주는 락엽무지속에서 못짐승들이 움지락거리는, 오직 이른 봄철에만 들을수 있는 미세하고 독특한 음향이기도 했다.

얼굴과 목덜미에 와닿는 눈송이들도 어느때없이 부드럽게 감촉되시었다.

봄! 봄이 왔구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고 봄을 맞는 유정한 감개에 휩싸인채 밀림 먼 한끝을 바라보시던 그이의 안광에 문득 옅은 그늘이 비끼었다.

이제 곧 어린것의 출생을 축복해주어야겠는데 권총과 만년필밖에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찔던것이다.

피롭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변변한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사령관이 갓난애기를 찾아갈 생각을 하시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 못할 의분이 서서히 끓어번졌다. 그리하여 무거우신 마음으로 숙영지의 뒤등성이까지 오르시었다.

밀림은 눈언덕 저쪽으로 멀어지는것 같았고 산과 골짜기와 숲의 들쭉날쭉한 굴곡들은 쏟아지는

눈에 평평하게 메워지기 시작했다.

우산모양으로 눈을 뒤집어쓴 키낮은 개암나무들이 펼쳐진 공지를 지나 이깔나무와 소나무, 잣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숲속을 거니시던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었다.

바람이 우수수 불어치면서 눈덩이와 함께 솔방울 몇개가 눈우에 떨어졌던것이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어 무심결에 솔방울을 집어드시고 살펴보시었다.

그 순간 솔방울로 애기의 장난감같은것을 만 들어보시고싶은 생각이 불쑥 떠오르셨다.

사령부예 바빠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봇나무아지로 손잡이를 깎고 거기에 솔방울 몇개를 묘하게 비끼러맨 다음 기쁘신 마음으로 흔들어보시었다.

그러자 제법 쟁쟁하고 여무진 소리가 울렸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수령님께서는 미풍에 실주름이 잡힌 호수의 맑은 수면을 지켜보셨다.

깊은 물속에 푸른 하늘이 거꾸로 비치었다.

호수가에 아지를 드리우고 서있는 나무들도 역시 물속에 거꾸로 매달려있는것 같이 보였다.

길섶의 전나무잎새를 매만지시며 그이께서는 말씀들을 계속하시었다.

《...저녁무렵에 나는 잣나무애기에게 솔방울팔랭이를 쥐여주면서 <사령관이 너에게 줄것이란 이것밖에 없구나. 이제 조국이 해방되면 네가 바라고 원하는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마.> 하고 약속했더랬소.》

《아버이수령님!》

최무진은 바람을 헉- 삼키며 걱정을 터치고 야말았다.

가슴으로, 목으로 불줄기같은것이 자꾸만 넘어왔다.

못 견디게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씹어삼키느라고 모지름을 쓰는 가슴속 한복판에선 아득한 옛시절 요람가에서 어머니가 흔들어주던 백두산솔방울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세월의 흐름과 생활의 온갖 사변들로 하여 희미하게 꺼져가던 솔방울소리는 말로써는 도저히 표현할수 없는 불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온몸을 진감시켰다.

최무진은 건잡을수 없는 걱정예 휩싸인 자신을 겨우 다잡으며 얼굴을 들었다.

쏟아지는 눈물로 하여 모든것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머리속에는 여태까지 다는 알수 없었던 그러나 지금은 심장만이 아니라 의지와 신념으

로 깨닫게 된 위대한 사랑의 세계와 그 숭엄한 화폭들이 하나둘 려이어 되살아났다.

호수가엔 침묵이 흘렀다.

수천마디의 말을 대신하고 수천가지의 목메이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뜨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애기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애기가 잠에서 깨어난것이다.

아직 어머니가 갖추고있어야 할 경험, 미련을 채 터득하지 못한 머느리는 울며 보채는 애기를 달래느라고 허둥거렸다.

최무진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프렸다.

아무리 철없는것이여도 수령님앞에서 울음을 터치는것이 민망하고 죄스럽게 느껴졌던것이다.

옆에 서있는 간부들도 얼굴에서 난처한 빛을 지우지 못했다.

《허- 그녀석,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보통내가 아니겠는걸...》

수령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부판을 불러 준비한것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었다.

부판은 뛰어갔다.

부판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신채 애기의 앵두볼을 정겹게 만져주시었다.

한참후에 부판이 달려왔다.

그는 정성껏 포장한 자그마한 지함을 수령님께 정중히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어린것의 옷가지며 인형이며 놀이감들이 들어있는 지함속에서 금빛팔랭이를 끄집어내어 가볍게 흔드시었다.

맑고 정가로운 울림이 사람들의 가슴에 말 못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직은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어린것이 울음을 그치며 손을 내뻗치었던것이다.

어찌 보면 지각있는 애들처럼 팔랭이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것 같았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었다.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기쁘고 대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떡이시며 고사리같은 애기의 손에 팔랭이를 쥐여주시었다.

그리고는 젊은 부부의 어깨우에 손을 가볍게 얹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애기를 잘 키우라구. 이 애는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새 세계의 주인이다.》

《아버이수령님!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꼭 나라의 역군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젊은 부부는 뜨거운 눈물속에서 친어버이의
존안을 우러르며 심장의 맹세를 올렸다.

《그러자면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아버지, 어
머니가 되어야 한다. 세대는 바로 이렇게 이어진
다는것을 명심하고...》

수령님께서서는 말씀을 채 하지 못하시였다.

이 자리에 최달호가 있다면! 그와 함께 어린것
의 출생을 축하해줄수 있다면... 하는 애절한 그
리움과 쓰라린 아픔이 가슴을 허비였던것이다.

잠간 말씀을 끊으신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장쪽으로
사색깊은 걸음을 옮기시였다.

최무진은 불시에 또다시 눈곱이 확- 달아올랐다.

검은빛을 찾아보기 힘든 수령님의 흰머리카락이
유난히 눈시울을 아프게 찢었던것이다.

동시에 대를 이어가며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
하게 살아온 그리고 참된 인간, 혁명가로 성장해
온 가문의 지난날 생각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앞
을 가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뒤따르는
간부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서시며 말씀하셨다.

《동무들, 우리모두 이 땅우에서 태어나고 자라
나는 귀여운 어린것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
은 락원을 물려주기 위해 일을 더 많이, 더 잘합
시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좌우명이요.》

근엄하고 자애로운 수령님의 눈빛과 어조엔 다
함없는 축복과 불같은 사랑, 진정어린 믿음과 간
곡한 당부가 다 깃들어있었다.

수령님의 휴식시간은 이로써 끝났다.

잠시 앉아서 편히 쉬어보시지 못한 휴식시간이
였다.

그러나 수령님의 안색엔 피로가 조금도 엿보이
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정신적안정과 기쁨의 빛이 력력
했다.

그렇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짧은 휴식시간에조
차 우리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도록 다심
하고도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기에서 정신
적인 안정과 기쁨을 찾으시는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휴식시간을 보내곤
하시였다.

휴식시간 이후에 경제부문 일군협의회는 계속되
였다.

이것은 1994년 7월 6일에 있는 일이었다.

...

가혹한 비애, 우뢰, 바람... 자연은 태질하였다.

완전한 암흑이었다.

최무진은 또다시 현실과 환각의 경계점에서 방
황하였다.

하늘과 땅이 한데 엉켜 핑그르르 돌았다.

때를 같이하여 최무진은 환각세계에 더 깊이 빠
져들어갔다.

이젠 비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번개의 섬광도 보
이지 않았다.

그대신 구름 한점 없는 봄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봄날의 서기가 어린 광막한 하늘은 노을로 붉게
타다.

새무리들이 노을빛을 휘뿌리며 날개를 퍼덕
이였다.

하늘도 땅도 새들의 작은 몸뚱아리까지도 온통
노을빛에 젖었다.

보라색노을이 점차 주홍빛으로 바뀌는 하늘 먼
곳 어디선가 이상한 음향이 울려오고있었다.

최무진은 어쩌면 가까이 손에 잡힐듯도 한 신비
롭게 느껴지는 그 음향에 귀를 강구였다.

(무슨 소리일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릴가?)

메아리마냥 진폭을 넓혀가는 음향은 신선한 물
결처럼 심신에 흘러들었다.

(아!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 울림인가!)

환각속에 빠진 최무진의 낮은 정겨운 그 음향에
이끌려 하늘로 날아올랐다.

푸른 하늘을 즐기는 새처럼 끝없이 날아오르던
그의 입에선 저도 모르게 《아!》하는 탄성이 흘
려나왔다.

노을빛속에서 눈부신 태양이 수억만개의 해살을
대지에 뿌리며 정갈한 음향을 울리고있었던것이다.

분명 백두산솔방울과 금빛팔랭이가 협화음을 이
루는 독특한 음향이었다.

아니, 단순히 독특한 음향이라기보다 신비하
고 거룩한 그 음향은 이 땅우에 살고있는 소박하
고 진실한 사람들의 념원으로 가미되고 변성되어
인간세계의 밝은 리치와 영원한 번영을 깨우쳐주
면서 축복해주는 위대한 심장의 고동소리였다.

최무진은 침대우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철석같은 확신에서 솟구쳐오르는 눈물이였다.

신념을 되찾고 생활의 철리를 깨우친 순간에 사
람은 바로 그런 눈물을 흘리는 법이다.

이것은 환각이나 념원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
고 진리인것이다.

1997.

1211고지방위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대서사시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푸른 산악》에 대하여—

최 언 경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때려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뜨거운 감회속에 돌이켜보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95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진행된 미제의 악랄한 《하기 및 추기공세》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영웅적인 1211고지방위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한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나อน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감흥을 안겨주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조국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빛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에 뜨거운 열기를 주고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화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1211고지방위전투, 그것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물론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가장 가렬처절하고 첨예한 격전이였다.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새로운 군사적공세를 준비해온 미제는 모험적인 《하기 및 추기공세》를 감행하면서 그 주되는 창끝을 1211고지에 집중하였다.

미제는 이름없던 조선의 고지, 1211고지에 최대의 포격, 최대의 폭격으로 하루 평균 3만~4만여발의 포탄과 폭탄을 퍼부었다. 바위

는 부서져 가루가 되고 수백년 자란 아름드리나무가 뿌리채 날아났으며 땅이 타번지고 산봉우리들이 낮아져 지형마저 달라졌다. 이것은 말그대로 력사에 없는 최대의 파괴이고 최악의 살인이였다.

하지만 1211고지는 그 준엄한 불길속에서도 영웅조선의 산봉우리로 거연히 솟아 미제의 《하기 및 추기공세》를 함정굴에 처박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용감성과 영웅적기개를 만방에 떨치였으니 세계를 놀라게 한 이 군사적기적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푸른 산악》(안동춘 작)은 세계전쟁사가 제기한 이 물음앞에 참으로 심오하고도 명쾌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고 그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백전백승한다는것, 이것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아래 조선이 창조한 전쟁법칙이며 력사의 필연이라는데것이 장편소설 《푸른 산악》이 주는 사상예술적해답이다.

우리 식 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

철과 철이 맞부딪치고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은 곧 교전쌍방간의 사상과 신념, 의지의 대결이며 군사전략전술과 전법의 대결이다. 다시말하여 전쟁의 최종승패는 그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두뇌와 심장에 달려있다.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맞선 상대가 강할수록 그 결정적의의는 더욱더 크게 부각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특히 1211고지방위전투는 군사기술기재의 대결이기 전에 《지략》과 《전승》을 자랑하는 릿지웨이, 탠플리트 등 미제의 악명 높은 살인장군들과의 대결이였다.

하지만 미제의 괴수들은 장편소설 《푸른 산악》이 사실그대로의 진실로 보여주는바와 같이 현대군사예술의 최고정수를 이루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주체전법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미제의 모험적인 《하기 및 추기공세》를 짓부셔버리고 1211고지방위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식 선택이라는 종자에 담아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미제의 《하기 및 추기공세》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전략전술의 탐구는 전쟁의 승패와 관련되는 참으로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선택을 요구하였다.

그 첫째가는 선택은 릿지웨이의 《하기 및 추기공세》의 주타격방향이 전선동부이냐, 전선서부이냐 하는 것이었다.

정찰국장 강성찬이 집계한 적의 전선배치와 적의 실패는 전선사령관 김웅, 조중련합군 인민군대표 박일우는 물론 일부 고위지휘성원들조차도 평지전에 익숙되고 기계화무력과 비행대가 우세한 미군의 경우에는 전선동부와 같은 산악에는 붙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로회한 장군 릿지웨이가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적의 주타격방향은 전선동부, 특히는 1211고지라고 확신하시였다. 나아가서 적들을 주동적으로 전선동부로 끌어내야 한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확신에 넘쳐 말씀하신다.

《나는 비록 어렵지만 적들로 하여금 계획대로 전선동부에 모든 력량을 투입하게 한 다음 결정적인 강타로 그들의 등뼈를 분지르고 더는 조선강점의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적의 주타격방향은 전선동부, 진정 이 선택에는 일찌기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의 비범한 예지와 명석한 판단, 심오한 사색과 철의 의지가 태양의 빛발처럼 눈부시게 비껴있다.

1211고지전투의 승패, 전쟁의 운명은 이미 이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였다.

한 개인의 선택은 그 하나의 행과 불행, 운명을 결정하지만 최고사령관의 선택은 한 전투만이 아니라 웅근전쟁의 승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중대한 선택을 하시면서 우선 전선 중서부에서 이미 실패하고 《영예로운 정전》을 바라는 적들은 동부산악지대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조선제패의 야망을 실현할수 없으며 다른 한편 릿지웨이가 보보점령전술가로

알려져있는만큼 우리가 그 방식에 대처한 작전방안에 치우칠수 있다는 타산끝에 보보점령전술과는 다른 전선동부에 대한 돌진적인 공격을 꾀할것이라는것을 환히 꿰뚫어보신것이다.

하다면 우리의 전투방식은 기동전, 운동전으로 되여야 하는가 아니면 산악방위전으로 되여야 하는가, 이것이 두번째 선택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도 사대와 교조가 골수에 사무쳐 운동전의 수령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는 박일우, 김웅따위의 꾀변을 짓부시고 법전처럼 되여온 세계전쟁교범과는 달리 산악방위전을 단호히 결심하신다.

지금까지 전쟁사가들은 산악방위전의 불리성을 론증한 엥겔스의 《산악전의 과거와 현재》로부터 시작하여 공격에 비한 방어의 부차성, 더우기 산악방위전의 불리성을 군사학적교본으로 여겨왔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떤 훌륭한 고전이나 전쟁경험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형편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따라 받아들일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산악방위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 선택의 기초에는 주체전법이 놓여있으며 바로 여기에 1211고지전투승리의 결정적요인이 있었다는것을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결연히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지역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밀치고 끄당기고 하는 식을 제일이라고 했는데 백번 양보해 지역을 무시한다 합시다. 그런데 그 밀치고 끄당기고 하는 사이에 희생되는 전사들을, 그럴 때마다 보 짐조차 못 꾸리고 고향집을 떠나는 우리 인민들과 미쳐 떠나지 못한 인민들의 희생을 무엇으로 보상한단 말입니까.》

내가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주지 말자〉고 하는것은 조상대대의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바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희생을 최대한 막기 위하에서부터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식의 전법, 그것은 자기 군대,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 자기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파악에서 출발한 전법이다.

이 땅의 산악은 알프스가 아니며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패전의식에 차있던 까르빠쎈야의 도이

철란드군대나 마자르군대가 아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싸움에도 준비되어있고 이길수 있는 무한대한 힘과 슬기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비범한 지략과 불같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니셨기에 세계 《최강》의 미제가 자기의 마지막밀천까지 다 쏟아부은 가렬치절한 싸움, 치렬한 대결에서 우리 식의 전략전술과 주체전법으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실수 있었던것이다.

애병, 애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쟁철학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1211고지방위전에서의 빛나는 승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의 결정체인 동시에 인민군병사들과 인민에 대한 태양과 같이 뜨거운 그이의 사랑의 산아임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참된 사랑만이 전쟁을 이긴다. 참으로 얼마나 위대한 전쟁철학인가!

고금동서의 군사령관들은 오직 강력한 무쇠주먹으로 적을 쳐부시려 했고 엄격한 군법과 군률로 병사들을 다스린 맹장이였을뿐 뜨거운 심장의 사랑으로 전쟁을 이긴 위대한 인간은 없었다.

미제를 타승한 우리 식 전법의 승리는 병사와 인민에 대한 위대한 령장의 불같은 사랑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위대한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가장 위대한 인간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니지 못한 이민위천의 숭고한 정으로 전쟁을 이기시였다.

병사들과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남일, 군단장 최현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고위군사지휘관들로부터 로병관, 황영학, 김철규 등 군관들은 물론 리수복, 정미순 등 평범한 전사들과 법동산골농민 김만산로인과 같은 보통인민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모든 병사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그늘없이 속속들이 비치고있다.

그이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은 1211고지방위전투를 직접 맡은 최현에 대한 뜨거운 정에서 최고의 정확함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211고지방어를 어느 군단의 누구에게 책임지울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고는 두말할것없이 최현군단장이 책임자라고 하는 최용건의 제기에 대해 구식전법이요, 앞

는 몸이요 하는 허가이나 박일우의 망언을 일축해 버리시고 즉석에서 최현을 임명하신다.

그러시면서 조국의 존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한목숨 내달 준비가 되어있는 사랑하는 전사를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싸움터로 내보내시면서 《내가 동무를, 동무가 나를 위하고 믿듯이》 전사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정을 담아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진정 최고사령관의 명령이기 전에 친아버지의 뜨거운 당부인것이니 그 열화의 정앞에서는 무쇠도 녹고 무정한 산천초목도 울음을 울것이다.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 친아버지 사랑은 이름없는 법동산골농민 김만산로인과 그의 아들 박격포소대장 김철규와 전선공의소 간호원 미순이와의 사랑에도, 황영학련대장이 부상으로 입은 상처보다도 더 괴로와할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아물도록 해주시는 그 따뜻한 보살핌속에, 날씨가 서늘해지자 콩을 듬뿍 보내주시며 병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더운 콩나물국을 끓여주라고 하시는 다심한 어버이사랑속에 눈물겹게 그려지고있다. 이것은 실로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다.

어디 그뿐이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을 달리시여 1211고지로 나오신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비탄이 깔려있는 지혜산과 적의 저격수들이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1237.3고지 정점에까지 오르시여 쌍안경으로 적진을 살피시며 적들의 공세를 물리칠 우리 식 전법을 가르쳐주시고 병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동서고금의 세계전쟁사 그 어느 갈피에 적아가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최전연고지에까지 오르신 최고사령관이 있었던가.

그것은 오직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그들의 힘을 믿으시고 그 힘에 의거하시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었다.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최전연고지에까지 나오시여 친아버지사랑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정에 끌려 우리 군대와 인민, 1211고지방위자들은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영웅들로 자라날수 있었다는것을 사실그대로의 진실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적의 화점을 가슴으로 막은 공화국영웅 리수

복을 비롯한 1211고지방위자들은 그들모두가 대중적영웅주의의 참된 화신들이었다.

최후의 순간에 1211고지방위자들이 경애하는 최고수령관 **김일성**동지께 올린 맹세의 편지는 참으로 눈물없이는 되새길수 없는 숭고하고 감동적인것이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이시여.

당신의 아들들인 우리가 살아있는 한 1211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굳건히 솟아있을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승리로 인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 만세!

…》

그렇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께서 진두에서 이끄시고 태양과 같은 그이의 품속에서 자라난 영웅전사들이 있기에 불속에서도 1211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푸른 산악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것이다.

이것은 작품이 세상사람들에게 주는 조선의 위침이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성은 로병관의 감동속에 가장 뜻깊게 아로새겨졌다.

김일성동지로부터 받게 된 너무도 큰 감격에 접하게 된 로병관은 (거대한 두뇌, 거대한 심장!)이라고 걱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력사상의 위인들과 명장들의 행적을 더듬으며 일찌기 김책이 백두산은 나라의 머리요, 장군님은 그 머리에 빛나는 태양이시라고 하던 말을 엄숙하게 되여보았던것이다.

주체의 수령형상론의 빛나는 구현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수령형상론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함으로써 참된 인간학의 정화로 되었다.

인간이 형상의 중심에 있어 문학이 인간학이라면 가장 위대한 인간인 수령을 형상한 문학은 마땅히 인간학의 정수로 되어야 한다.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그리면서도 형상을 고정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며 위인만이 체현할수 있는 위대한 인간의 세계를 참으로 격이 있게 그리고있다.

소설은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의 세계를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적들이 어느 곳으로 올것인가에 앞서 공세인가, 방어인가 하는 문제에서 놈들은 꼭 공세를 택하리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확신은 적의 실정을 손금보듯 하시는 그이의 심오한 사색이 가져온 필연이었다.

놈들이 노리는 정치군사적목적이 《영예로운 정전》에 있는것만큼 우리측 지역을 넓게 타고앉아야만 하는것이고 놈들에게는 강한 인내성과 의지력을 요구하는 방어가 침략적본성에도 맞지 않는것이다.

이렇듯 비범한 사색이 놈들이 전선동부에서 공격하지 않을수 없다는 전쟁법칙성을 확인한것이다.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또한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면서 정치, 군사적위대성형상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참으로 누구나가 그 인간미에 매혹되고 정에 끌리는 위대한 인간으로 그리고있다.

작품이 불과 불이 오가고 쉬임없이 총포성이 울리는 전쟁환경을 그리고있지만 아름다운 인간만세의 정서로 충만되고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인간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의 정과 향기때문이다.

그러한것은 특히 리수복영웅이 남기고간 시를 한자 또 한자 또박또박 자신의 수첩에 적어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숭고한 영상에서 그리고 후날 영웅을 잊지 못하시여 영웅의 시를 조용히 외워보시는 그 가슴뜨거운 모습에서 눈물겹도록 감명깊게 그려졌다.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또한 전쟁문제를 취급한 작품의 생리에 맞게 시종일관 자기 인민, 자기 군대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우리 식 전법과 미국식전법간의 적대적갈등을 첨예하게 설정하고 적대인물들을 예리하게 전형화하고있으며 거기에 일정한 격을 부여하고있다.

릿지웨이, 밴플리트, 브렛들리 등은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놈들이라고 하여 결코 포악성이나 저렬성 일면으로 형상하지 않았다.

풍부한 실천경험을 가지고 빈틈없이 작전을 펴는 로회한 책략가 릿지웨이, 밴플리트 등 미국의 군사두목들은 자기식의 인생관을 가지고 국가와 대통령의 《신임》에 《보답》하려 애쓰며 《우방국》의 《대통령》을 깎듯이 존대할줄도 알고 《벗》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관심도 한다. 지어 필요하다면 전투모를 쓰고 일선격전장에 나가기도 한다.

소설은 특히 언젠가 사진에서 보았던 릿지 웨이의 모습을 되새겨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을 통하여 그의 전형성을 적나라하게 투시해보이고있다.

미제의 하수인들인 남조선괴뢰들도 일정한 격이 있게 전형화되고있다.

리승만뿐아니라 미군고위장성들앞에서도 자기의 작전전술적견해를 곧잘 주장할줄 아는 룡군참모총장 리종찬, 《뜻》을 따르고 《뜻》에 살기 위해 애쓰는 송우인...

그들은 결코 천치가 아니며 만만치 않은 적수들이다. 교활하게 위장된 그 허울속에, 그 밑창에 최대의 비인간성과 도덕적저열성,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이 깊숙이 은폐되어있는것이다.

이처럼 일정한 격을 가지고 그려진 적대인물의 형상은 조국해방전쟁의 간고성과 그 승리의 의의, 나아가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반증하는데 웅당한 형상적기여를 하고있다.

장편소설 《푸른 산악》에서는 또한 세계전쟁사와 력대의 유명한 전법들이 폭넓고 다양하게 방영되어 작품의 지성도와 격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러한 전법들에 대한 묘사는 그자체로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우리 식 주체전법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한 조국해방전쟁의 세계사적의의를 더욱 부각시키고있으며 백전백

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의 위대성을 힘있게 론증하고있다.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수령형상론을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주체문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명작으로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1211고지방위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력사적진실성속에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아래 우리가 걸어온 자주적 길,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것이였는가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깊이 깨우쳐주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도전을 과감히 짓밟개버리며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심장에 뜨거운 열기를 주고 그들의 발걸음을 힘차게 떠밀어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형상한 수령형상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선군혁명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작가로서의 사명과 본분,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삼 식

로 싼 의 국 화 목 란

목란은 목란과에 속하는 일지는 떨기나무로 키는 6~10m높이로 자란다.

목란의 아름다움은 나무의 모양새에서부터 나타난다. 나무의 원줄기로부터 가지, 잎, 꽃 그 하나하나의 모양이 선명하면서도 깨끗하고 품만하게 이루어져있다.

봄이 오면 새로 자란 가지끝에 크고 호함진 꽃망울이 달려 5~6월경에 직경 7~10cm되는 꽃들이 활짝 피어난다. 분홍빛이 도는 연보라빛의 수꽃술과 대조되는 희디흰 꽃잎은 더없이 정갈해보인다. 특히 꽃의 향기는 참으로 그윽하여 꽃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구어준다.

지난 시기 목란은 《함박꽃나무》라고 불

리워졌고 지방에 따라서 《산목련》 또는 《목련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깨끗하고 청신하며 아름다운 목란꽃은 굳세면서도 소박하고 고상한 맛이 있어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그대로 닮은 훌륭한 꽃이라고, 세계적으로 자랑할만 한 꽃이라고, 꽃가운데서 왕이라고 하시며 우리 나라의 국화로 내세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처럼 좋은 꽃나무를 그저 함박꽃나무라고 부르는것은 어딘가 좀 아쉬운감이 있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에는 《란》자를 붙였다고 하시며 이 꽃나무의 이름을 《목란》이라고 부르도록 하여주시였다.

서사시 《김일성장군》과 시인 그리바초브

진보적인류가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가는
오늘의 지구행성에는 백두산3대위인들을 칭송
한 송가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 경
이적인 현상은 돌이켜보면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
지고 있다.

그가운데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백전백승의 강
철의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여 이전 쓰련시인 니콜라이 그리바초브가
창작한 서사시 《**김일성장군**》도 있다.

시인은 주체38(1949)년 가을 이전 쓰련 문화
인대표단성원으로 우리 나라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녔다.

그는 한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그때의 인상으로
부터 시작하여 조국해방전쟁의 재진격시기까지
를 시대적배경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위인사를 칭송한 서사시 《**김일성장군**》
을 창작하였다.

서사시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세월
을 이어가며 인류문예사의 귀중한 재보로 전해지
고 있다.

서사시 《**김일성장군**》의 영원한 생명력은 무엇
보다도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품위있게 칭송한 서사시적화폭
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상사람들은 우리 수령님을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습니다.》

서사시 《**김일성장군**》은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칭송한 서사시이다.

시인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였다.

당시까지 이 서사시처럼 세계적인 위인을 단편
적인 형식이 아니라 서사시와 같은 큰 형식에 담
아 품위있게 칭송한 작품은 인류문예사의 어느 갈
피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20세기초부터 인류의 자주위업에 이
바지한 로동계급의 수령들을 칭송한 송가들과

《인터나쇼날》과 같은 국제로동계급의 노래가 출
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량적으로 적었고 단편
적이였다. 그렇지만 인류문예사에 나타난 이런 새
로운 문예현상을 세계는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 세
계적인 재보로 전해왔다.

시인자신도 작가라는 명분으로부터 이미 그런
송가들과 함께 전해지는 위인들의 생애와 혁명활
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있었고 그분들을 존
경해왔었다.

그러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접견하는 순간 그
처럼 젊음이 약동하고 환하신 안광에 예지가 빛
나는 30대의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인품에 완
전히 매혹되였다. 더구나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
서시여 몸소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시며 조
국해방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의 애국자, 위인중의 위인을 직접 만나뵙는
격정 또한 말로는 다 형언할수없이 큰것이였다.

그로부터 그는 만경대에서 솟아오른 자주의
태양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를 무게있
게 칭송한 서사시 《**김일성장군**》을 높은 사상에
술적경지에서 완성하였다.

수령이 위대하여 수령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는
작품이 탄생하는 법이다. 서사시 《**김일성장군**》
의 탄생! 이것은 세계문예사의 커다란 사변이
였다.

서사시 《**김일성장군**》은 다음으로 작가의 창작
세계가 위인의 위대한 인간세계에 따라서고 위인
칭송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잘 살렸을 때 그 형상
이 높은 경지에 이른다는 귀중한 경험을 말해
주고 있다.

서사시는 무엇보다먼저 위인을 칭송하는 작가의
탐구와 창작세계가 위인의 숭고한 인간세계의 높
이에 따라서야 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우선 정서적체험을 정중하면서도 깊이있
게 하였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을 잠간 만나뵈온 외국인
으로서 모든것이 생소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서
사시에 그려진 형상세계는 그가 어떤 자세와 립
장으로 체험하고 사색하였는가 하는것을 증명
해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시인의 흠모심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하는것은 서사시에 형상된 1년 전의 위인접견추억을 놓고 말할수 있다. 그는 인품에서도 투쟁업적에서도 최고의 최고이신분, 세계위인사에 전무후무한 희세의 위인이신 조선의 위대한 수령님을 세상에 소리높이 칭송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창작적충동을 안고 위인접견추억을 서사시의 첫장 앞부분에, 그것도 현재형으로 형상하였다.

서사시에 구현된 품위있는 형상세계는 정서적체험은 어디까지나 위인에 대한 흥미와 감동의 련곡으로 되어야 하고 그것이 비록 사적의 작은 세부 일지라도 거기서 보통사람들이 한생을 두고 이룰수 없는 위대한것을 발견하고 시대를 안고산 위인의 심장의 크나큰 박동을 느낄 때 비로소 위대한 인간세계에 접근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실로 혁명의 성지 만경대와 백두산, 싸우는 전선과 후방 등 깊이있는 체험과 관찰, 답사와 취재에 기울인 시인의 창작적열정과 진지한 사색이 있었기때문에 그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인간학적품격과 력사문헌적특성을 갖춘 수령형상작품이 창작되게 되었다고 할수 있다.

시인은 또한 정서적체험의 전과정에 의의있는 철학적인 형상의 핵을 발견하고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고통의 지난날 세월에
지하투쟁과 로력의 그날에도
그이는 인민에게서부터 인민에게로
그이는 인민의 마음으로 사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생을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마음으로 사신 인민의 수령이시다. 이것이 정서적체험과정에 시인이 발견한 생활적이고 철학적인 종자라고 할수 있다.

서사시 《**김일성장군**》의 중요한 사상예술적 성과는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새 조선의 운명적사변에 깊이 침투하여 이 전쟁을 반제반미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세기적사변으로 되게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를 세상에서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부셔버리고 자주시대 세계혁명을 주도하고 향도하신 희세의 위인으로 격조높게 형

상한데 있다.

침착하고도 다정하신 태도
웃음어린 안광!
그이는 담화에 만족하시여
우리 말을 주의깊게 듣기도 하시고
...

이것이 시인이 받아안은 지울수 없는 첫인상이다. 첫인상은 정서적기복을 타고 더욱더 심화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잃고 슬픔을 안고계시면서도 아무런 내색없이 오히려 손님들을 위하여 마음쓰시는 수령님을 그리는가 하면 조국의 수려한 자연과 계절조며 눈물과 인정세태며 나라를 받들어 부지런히 일하는 로동자, 농민들과 남녘땅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이며 찬란한 문화와 예술 등 나라의 모든것을 환히 꿰들고 긍지높이 이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걱정도 하시는 수령님의 해박하신 식견과 지성의 높이, 그 깊이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것이였다.

이처럼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품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형상하였을뿐아니라 수령님을 백승의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지닌 희세의 령장으로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서사시에서는 또한 모든 세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 심화, 집중, 반복, 대조되어 그이의 위인적품모를 돋구는 자양분으로 충분히 이바지하였다.

서사시 《**김일성장군**》이 세상에 나온지도 어느덧 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세월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이름있는 인사들, 문필가들이 백두산3대위인들을 높이 칭송하여 우아하고 장중하고 진실한 심장의 메아리를 얼마나 많이 터치고 또 터치는것인가.

참으로 우리 시대는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가 온 지구상에 힘있게 울려퍼지는 시대이다.

이것은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리고사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받아안은 최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리 근 실

어머님 사랑하신 노래

김 선 화

내 때없이 자주
조용히 부르는 노래가 있어라
기쁘면 기뻐서 힘들면 힘들어서
부르고부르는 노래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여성들아
우리 힘에 조국터전 날마다 건설된다

노래는 추억의 창문을 여는
부드러운 손길인가
여인의 이 마음 쓰다듬어주는
따스한 눈빛인가
한구절한구절 뜻도 깊은 노래속에
우렁이 안겨와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그리고 무척 사랑하신 이 노래
인연도 깊으신 《여성의 노래》
새 조국건설의 벽찬 그 나날
하고싶은 일 하셔야 할 일 많으신 가슴에
얼마나 많은 노래 울리셨으랴만

어머님 그리고 즐겨
어머님 그리고 열정에 넘쳐 이 노래
마음속으로 부르며 찾으신 공장과 전야에서
나라의 주인된 이 나라의 여인들
얼마나 새삶의 환희에 넘쳐
어머님따라 이 노래 높이 불렀던가

청진의 부엌데기소녀도 거지녀인도
가루개장마당 담배파는 소녀도
어찌 그들뿐이라
동북의 외진 산막에서 숨져가던 녀인도
오산덕과 신갈파의 녀인들도

나라잃은 백성의 가련한 신세
너자로 태어난 죄아닌 죄로 하여
천대와 멸시 슬픔과 눈물속에
삶의 꽃 피워보지 못하고 스러져야 했던
이 나라의 여성들

따뜻이 품안아 움티워주시고
살뜰한 정으로 잎잎에 향기를 주시며
남녀평등! 나라의 신성한 법으로
여성들의 권리와 존엄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어린 이 노래 부르며
우리 여성들을 새 조국건설에 불려주신 어머님

노래가 울린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만발해지는
여성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화원속에
...공장의 여성도 농촌의 여성도
가슴마다 불타는 애국심 품고
씩씩하게 뭉치자 장군님두리에...

이 노래 부르며 햇빛넘치는 탁아소요람에
아기를 맡긴 어머니들
보람찬 출근길 다그치고
이 노래 부르며 방직공처녀들 비단을 짜고
이 노래 부르며 이 나라의 여성들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가거니

이 노래 자주 부르며
이름없는 이 녀류시인도
남녀평등권의 향유와 못다한 의무앞에
창작의 붓을 고루나니
노래가 울린다 어머님 그리고 사랑하신 노래
내 한생 뜨겁게 사랑하며 부를 노래
오, 《여성의 노래》!

지원의 뜻으로 빛나는 조국

위 명 철

법정도 회유기만도
감옥도 고문도 추위도
굴함없이 이겨내시고
감옥에서 출옥하시는 김형직선생님

해를 넘긴 감옥생활에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 병약한 몸 위해
일가분들과 동지들 들것을 가져왔건만
감옥의 높은 담장도 허물어뜨릴듯
결연히 하시는 말씀

—아버님 저는 제발로 걸어가겠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제가 어떻게
원썬들앞에서 들것에 들리워 가겠습니까
원썬놈들 보란듯이 제발로 걸어가겠습니다

조선은 죽지 않았다고
망국노로 영원히 짓밟혀 살수 없다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 싸우는것이 강자임을
깨우쳐주는 그날의 말씀
감옥안에서도
감옥밖에서도 원썬들을 전몰케 하신 선생님

살아서 끝까지 싸워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찾기 위해
아픔을 참아가며 무르익히신 구상
지원의 뜻을 이룩하시려 읽으신 책은 얼마
감옥을 전구로 삼은 투쟁은
또 얼마나 간고했거나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아픔보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과
일제에게 짓밟히는 인민들의 고통이
천백배의 아픔이 되어
감옥에서 만경대로 가시는 그 길은
새로운 반일투쟁의 전구로 가시는 길이였거니

조선독립의 의지를 버루에 갈고
투쟁의 신념 북에 담아
봄도 빛도 잃은 삼천리강토에
양춘을 불러올 조선독립의 굳은 맹세를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남기시고 나서신

가 사

노래경연 종을시구

손 명 화

열두식구 대식술을 거느린 로인내외
노래경연무대에 자신있게 나섰구나
손자손녀 반고춤 무대들썩 멋이로다
우리 세월 하좋아 노래경연 좋구좋아

시어머니 선창에 머느리들 따라불러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 오고가네
마음도 목소리도 하나로 합쳐지니
가정의 화목도 합격 경연도 합격일세

투쟁의 가시밭길은 그 얼마던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가난과 무지에 시달리는 농민들과
일제의 총칼에 피흘리는 인민들을 위해
교편을 잡고 배움의 종소리 울려주시고
의사가 되어 마음속 상처도 치료해주시며
인민을 반일투쟁으로 이끌어주신 김형직선생님

선생님 가시는 길은 혁명의 새벽길
강동과 은물 삭주와 벽동의 새벽길우에
조선국민회의 기치 노을처럼 불타고
중국의 넓은 산야에 울리신 총성은
반일투쟁의 봄우뢰였나니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성취해야 한다고 하신
선생님의 그 뜻 그대로 이으셨기에
우리 수령님 이 땅에 해방의 봄을 안아오셨고
우리 장군님 이 땅에 강성국가의 밝은 려명을
불러오지 않으셨던가

아, 남산의 언덕에서 천신만고 괴롭받던
그 소나무에 조선독립의 봄빛을 불러오시던
선생님의 그날의 그 신념 그 맹세를
대를 이어 이 땅우에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최후승리를 위한 그 길로
곧바로 이끄시여라

행복한 내 나라 화목한 대가정
사회주의 우리 제도 세상에서 제일일세
노래는 생활의 향기요 우리의 길동무
멀고 험한 길도 노래속에 웃으며 가리

아 장군님 마련해주신 선군문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생활일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론 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경도를 받들어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공지를 안고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웅한 기상을 만방에 펼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세계를 진감하는 오늘의 이 대고조진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표하신 역사적인 문헌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고 그 힘찬 발걸음을 떠밀어주는 고무적기치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와 역사적인 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를 받아안고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과 함께 우리 작가들은 무한한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그이의 선군혁명동지가 되고 전우가 되어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 필승의 신념과 의지,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높이 받들어 모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선군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영원한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백두산혈통으로 순결하게 곳곳이 이어지고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온 누리에 힘있게 펼쳐지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시작하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백승을 펼쳐온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경도따라 자주적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변

함없이 이어나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 전체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문헌들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구현한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 선군혁명문학의 빛나는 성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선봉투사가 되어야 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문헌들은 위대한 수령의 경도아래 승리와 기적을 펼쳐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100년사의 긍지높은 총화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문헌들에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시고 조국과 민족의 만년대계, 무궁번영의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구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옳바른 경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 약소민족, 멸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약소국, 이것이 바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모습이였고 운명이였다.

바로 그러한 약소국, 약소민족이 오늘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 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

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 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다. 총대중시를 혁명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자주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우리 혁명을 드팀없이 이끌어오신 불세출의 위인들을 모시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녕 주체년호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100년사는 곧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이 안아온 불멸의 업적의 집대성이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해온 최상최대의 행운과 영광을 가슴깊이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길이 받들어나가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문헌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영원한 승리의 길, 우리 조국의 강성부흥의 밝은 앞날을 밝힌 력사적인 선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가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다 하여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탁월한 수령들이 계시고 불패의 조선로동당이 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인민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헌들에서 우리 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김정일**애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사상리론들은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새

로운 100년대의 승리적전진과 번영을 위한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중국적승리가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력사의 광풍이 아무리 사납다고 하여도 절대로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이 길을 끝까지 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이것이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뜻과 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전우, 선군혁명동지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을 따르고 뜻을 받드는것은 우리모두의 숭고한 혁명적도덕의 리이고 본분이며 그 길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우리 작가들은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표하신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커다란 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붓대를 더 억세게 틀어쥐고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 대고조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우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며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고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새겨주는 작품창작에 힘을 넣어야 한다.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 혁명을 위하여 한생토록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만년담보이며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수령형상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면시킴이시였으며 아버지수령님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시다가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

한 형상을 문학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서 적극 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워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는것을 평생의 념원, 숭고한 리상으로 간직하시고 한생토록 초강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서사시를 조국땅위에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뜻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가슴깊이 새기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작품들을 창작하는데 심장을 바치고 온넋과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의 종자를 특색있게 잡고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를 옹계 구현하여 작품의 격과 사상에술적감화력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절세의 위인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하여 이 땅위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력사가 영원히 굽이쳐흐르게 하고 수령님의 념원이고 장군님의 리상이였던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수령님의 위업, 장군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는 작품창작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상과 령도, 인품과 덕망, 담력과 배짱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 대로이신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장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대고조진군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담당자들인 우리 작가들의 최상의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며 본분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이어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

리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온넋으로 체득하고 매혹되어야 한다. 창작은 심장으로 하는 전투이며 매혹된 심장과 넓은 불타는 정열을 낳는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심장으로 따르고 옹위하는 선군혁명투사, 혁명전우가 되어 이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서 더욱 강화하며 천만군민이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한마음한뜻이 되어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평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수령형상문학은 우리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핵이며 영원한 생명력의 근본원천이다.

우리 작가들은 태양민족의 작가된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천만군민이 대를 이어 받아안은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심장으로 느끼고 절감하도록 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대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이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다.

우리 작가들은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대고조진군의 전투장마다에서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하는 작품, 오늘의 대고조진군들에서 시대의 진군가로 높이 올릴 명작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선군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성격, **김정일**애국주의로 자신의 심장을 불태우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 대중의 앞장에 서서 실천적인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가는 선구자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애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한다. 말은 적게 해도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가지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애쓰는 인간,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뛰고 또 뛰며 실적을 올리는 인간, 이것이 오늘

그들의 자리는 비지 않았다

김 금 철

어찌 그들이
우리결을 떠났다 하라
어찌 그들이 지켜섰던
혁명초소에 빈자리가 생겼다 하라

선군시대의 전형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으로
오늘도 대오의 앞장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고있는
박태선 리창선영웅들이여

자신의 한몸바쳐
동지를 구원하고 일터를 지켜낸
그들의 소행을 못 잊어
훌륭한 인간이라고
영웅적소행이라고 값높은 삶을 빛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언제나 그들은
막장길이라 포전길이라
언제나 새벽길은 그대들의 길

언제나 마지막퇴근길도 그대들의 길
조국과 동지를 위해 바친
남모르는 수고 우리 어찌 다 알라

오직 광석으로 강성국가의 보루를 쌓고
오직 쌀로 조국을 빛내려는 일념이
그들이 영생으로 빛나는 삶이 되고
그들이 이 땅에 남긴 자옥은
막장과 포전길에 지워지지 않고있나니

어찌 그대들 우리결을 떠났다 하라
어찌 그대들 초소에 자리 하나 비었다 하라
그들이 바친 위훈으로 하여
그대들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나니

평범한 사람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그대들이 섰던 초소들에
시대의 영웅 박태선 리창선들의 대오가
그대들 뒤를 이어 끝없이 태어나고있다

의 참다운 애국자이며 인민의 참된 복무자인것이다. 우리 문학은 이런 인간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현실을 깊이 있게 체험하여야 한다. 종자도 인간성격도 생활도 대중속에, 들끓는 현실속에 있다. 우리 작가들은 유람식취재를 할것이 아니라 팔소매를 걷고 현실속에 뛰어들어 대고조진군의 전투원이 되어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고 생활도 같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현실속에서 참신한 종자를 찾아쥐고 형상으로 꽃피워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품, 그들의 정신력에 창조와 혁신의 불을 달고 새로운 비약으로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해낼수 있다.

또한 우리 문학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명작창작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탐구하고 또 탐구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우고 참다운 문학의 세계를 깨우치며 자라난 선군

시대의 작가들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선군조선의 작가다운 문학정신과 창작태도를 지니고 명작창작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념원대로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기어이 일떠세워 세상에 빛을 뿌리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리론은 우리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기치이고 그이의 령도는 우리 문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전체 작가들이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의 길이 빛내이며 백두의 성스러운 혈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혁명대오의 기수, 대고조진군의 돌격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으로 바드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자!

수 필

이 나라의 푸른 숲과 더불어

리 정 옥

조국을 사랑한다는것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자기 고향, 자기가 사는 고장과 자기 일터를 사랑하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라도 심고 가꾸며 땀을 바치고 진정을 바쳐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것이 진짜 애국인것이다.

나는 푸른 숲 우거진 조국산천과 날로 더욱 번영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 천만국민의 심장을 뚫게 하는 참다운 애국주의에 대하여 생각하곤 한다.

김정일애국주의!

가슴에 새길수록 한평생 애국의 불타는 일념으로 조국땅위에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숭고한 조국애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는 가슴벅찬 부름이다.

나는 얼마전 지난해 현실체험으로 다녀왔던 중앙양묘장을 또다시 찾았다.

그 어느 포전을 가보아도 하나와 같이 튼튼한 나무모를 키워낸 이곳 양묘공들의 애국의 마음을 엿볼수 있었다.

푸른 잎새 펼친 애기나무모들이 어서 빨리 자라 대지에 억센 뿌리를 내리겠다 키돋움하며 푸르싱싱 자라고있었다.

나는 양묘공들과 함께 일하는 지배인에게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배인동진 나무모를 꼭 애기다루듯 하는군요.》

나의 말을 긍정하는듯 지배인은 나무모를 손에 천채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작가선생, 이 나무모 하나하나에는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념원이 깃들어있답니다. 그러니 더 정성껏 가꿔야지요.》 하더니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나무모포전들을 바라보며 그리움의 빛으로 눈굽이 젖어드는것이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지난해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강산을 더욱 푸른 숲 우거지게 하시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 여기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나도 그 력사의 날을 생각하며 지배인의 말을

다시금 속으로 외워보았다.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념원.)

그렇다. 조국땅 그 어디나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념원이 깃든 귀중한 씨앗이 있고 그 씨앗들이 오늘은 풍성한 열매로 하나 둘 주렁지고있다.

력사는 민족의 령도자를 잘 만나야 나라의 번영도 이룩되고 조국산천도 빛을 뿌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해방된 이듬해 봄 모란봉에 오르시여 새 조선의 미래를 그려보신 백두산3대장군의 그 숭고한 애국의 뜻을 영원히 잇을수 없으며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첫 삽을 뜨시며 대자연개조사업의 봉화를 지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모습을 심장에 간직하고있다.

준엄한 전화의 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국토부문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푸른 숲 우거진 조국강산을 그려보시며 손수 애어린 두그루의 잣나무를 심고 가꾸시였다.

이런 생각을 더듬어가는 나의 귀전에는 여기 양묘장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발자욱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한걸음 또 한걸음 천천히 걸으시는 그이의 사색과 추억은 얼마나 깊으셨으랴.

나라가 허리띠를 조여매던 고난의 행군시기 줄어드는 조국의 산림자원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대담하게 농경지를 뚝 떼어 양묘장으로 꾸리도록 하시였고 공업적인 방법으로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키워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시자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이 그토록 가슴을 치며 잊지 못해하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앙양묘장을 찾으신것이 아니였던가.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의 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 후손만대 물려주자고 하실 때 사람들도 울고 산천초목도 감격에 목메여 흐느껴설레였다.

이렇듯 조국땅 그 어딜 가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뚜렷이 새겨져있고 강성번영할

래일을 낙관하시던 태양의 그 미소가 온 강산에 비껴있다.

누구나 또다시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불멸의 화폭을 우리는 보았다.

올해 식수절을 맞으며 인민군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 모습 그대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나무를 심으시며 애국의 뜻을 심어주실 때 우리 얼마나 가슴치미는 격정을 금치 못했었던가.

우리 조국의 참다운 숲의 력사, 진정한 애국심의 뿌리는 정녕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으며 위대한 그 품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여온 우리 조국의 력사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들의 사랑의 력사이다.

돌아보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걸출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민족의 장래는 물론 조국산천의 래일을 기대할수 없다.

로씨야의 한 작가는 무변광대한 로씨야의 숲의 력사를 쓰면서 인간은 오직 숲에 해만 끼쳐왔다고, 인간은 숲의 원쑤이고 숲을 보호하고 사랑

한 시대는 없었다고 썼다.

그러나 그가 만일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탄약차가 아니라 나무모를 실은 자동차가 먼저 도로를 통과하고 고난의 행군시기에 전국각지에 중앙양묘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양묘장들을 꾸려주시어 조국번영의 만년재보를 마련해주신 이런 위대한 사랑의 전설을 다 알았더라면 무슨 말로 표현했을것인가.

아마도 그는 인간이 숲의 원쑤가 아니라 숲의 벗으로 된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썼을것이다.

정녕 우리 인민은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는 참으로 크나큰 행운을 지닌 인민이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념원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내 조국의 숲은 영원히 푸를것이며 우리 인민은 대대손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것이다.

숲이어 한껏 설레여라. 이 세상 세월의 끝까지 위대한 애국의 그 업적 길이 전하며 억만년 푸르러 설레이라.

영원한 전승의 이야기

리영철

해마다 전승절이면
전화의 날 병사였던 나의 아버지
가렬했던 격전의 고지들을 더듬어보며
조용히 들려주던
잊지 못할 이야기였다

색날은 군복에 주렁주렁 훈장을 달고
우리 집에 들어서던 아버지의 옛 전우들
등그런 밥상에 둘러앉아
화선식축배를 들며
뜨겁게 나누던 이야기였다

무엇이었던가 그 이야기
내 어릴적 너무도 귀에 익었고
자라며 심장깊이 새겨안은것
세월이 흐를수록
나에게 더더욱 소중한지는 그것은

그 이야기엔 있었다
미제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 그날
수령님의 반공격명령을 받아안고
단숨에 서울을 해방한 기쁨이
수령님 그어주신 작전도의 화살표따라
대전에 등지른 적들을 포위섬멸한
빛나는 전투의 자랑많은 위훈이

있었다 그 이야기엔
최고사령부를 찾아 떠나던 직후의 그 밤길도
1211고지의 갱도안에서
수령님 보내주신 콩으로
뜨끈한 콩나물국을 끓여먹은 병사들
배심든든히 원쑤들을 족치며
포연서린 고지에서 화선악기연주회도 열었
다는...

잊을수 있으랴 진정 그 이야기를
조국을 지켜 피흘린
하많은 로병들이 우리결을 떠나간 오늘
아버지를 대신해 이제는 내가 들려준다
전승기념탑 영웅들의 군상앞에
싱싱한 꽃뭉치 삼가 놓아드리는
멀지 않아 병사가 될 사랑하는 딸에게

세계 《최강》을 떠들며 날뛰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넣고
전승열병식의 높은 연단에 오르신 수령님
그이를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던
그날의 병사들 우리 아버지들이
저 하늘에 아름다운 축포로 새겨놓은 승리
위대한 그 승리가 무엇인가를

승리! 승리는 다름아닌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인민의 새삶을 안
겨주신분
그이가 계시였기에
조선은 승리하였다

끝없이 이어지리라 전승의 그 이야기는
수령님품에서 태어난 백두산혁명강군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기를 옹위해
더 높이 추켜든 무적의 총대와 함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을
승리의 광장에 높이 모실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와 함께

조선의 영원한 전승절

황 명 성

록음질은 보통강반
전승기념탑 대돌우에
한송이 붉은 꽃을 놓고
내 송엄히 생각에 잠기여라

7.27
우리의 승리와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긴
전승절은 어떻게 왔는가

7.27 전승절 이날이 있어
강성의 위용으로 솟은 나의 조국
축복받은 인민의 삶이
해빛밝은 락원의 창가마다 꽃피나는 땅

하건만
1950년대 그날의 그 모습으로
포연스민 군복을 벗지 않고
가슴에 수류탄뭉음을 안은채
여기에 있는 영웅전사들

그들이였다
수령님 주신 땅이 꿈만 같아
발머리에 누워 밤을 지새던 농민
제 손으로 뽑은 첫 쇠물의 강편을 안고
평양으로 수령님품으로 달려오던 용해공

해방된 그 봄날의 환희와 기쁨을
나라의 주인된 권리와 보람을
침략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정의의 성전에 떨쳐나섰거니

불비 내리는 화선천리 그 길우에
조국의 운명을 무겁게 안으시고
싸우는 병사들과 함께 계신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

세월 멀리 들려온다 보여온다
캄캄한 밤 전조등의 불빛도 없이
림진강철교의 침묵을 넘으시던
수령님 야전승용차의 동음소리
최전방 수안보의 전선사령부 지휘소
1211고지 지혜산의 작전바위...

백두의 광야를 주름잡으시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취락퍼락하던
백두산호랑이의 기상이였던가
주체전법 전선고지마다 펼치시여
병사들의 가슴에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승리의 지름길을 열어주신 수령님

세계전쟁사가 모르는 기적이였다
비범한 예지 령활한 지략으로
미제의 목줄을 한손에 후려잡고
멸망의 천길나락으로 차던지시였나니

오, 승리
내 나라의 영원한 전승절
그것은 천출명장 우리 수령님
천만병사들을 불러일으켜
총대로 지켜주신 민족의 존엄
만대에 불멸할 조선의 영광

그 승리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
포악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선군혁명의 길에 승리의 자욱만을 새기셨고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시여라



김철순

1

1만톤프레스의 현대화체제설계에 대한 최종과학 심의회를 하루 앞두고 차인석은 가까스로 설계를 끝냈다. 미타한 부분만이라도 재검토를 하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적여유조차 없었다. 옆방에서 현아가 이미 기다리기에 지쳤는지도 모른다. 현아의 컴퓨터에 설계를 전송했다. 인차 현아의 설계도 인식의 컴퓨터로 넘어왔다. 연구방향이 다른 두 설계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될 심중한 회의니만치 각기 변론준비에 앞서 대비고찰의 방법으로 호상설계의 특성과 우단점을 미리 파악하는것이 필요하였다.

현아의 설계를 파고들면서 인식은 저도 모르게 여러번 경탄하였다.

(아하, 상모루위치수신수감부는 조종실안에 끌어들었군. 그럼 안전하겠어. 참,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중간결합장치를 아예 빼버렸군. 기발한데...)

하부에압수가 빠지는 시간에 맞게 압축했던 프레스가 복귀하는 시간도 프로그램으로 조종하게 되어있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설계를 다 보고났을 때 인식은 자기 설계보다 현아설계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설계를 끝냈다는 안도감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매일회의의 전망이 결코 자기에게 략관적인것이 못되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인식은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허리를 쭉 폈다.

물론 나름대로의 우점이 없진 않지만 아무리 설득력이 강한 변론이라 할지라도 현대화수준이 상

대적으로 낮은 자기의 설계가 엄격한 연구소심의 성원들과 현장기사들을 비롯한 회의참가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우리란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었다.

인식은 갑자기 엄습하는 피로를 느꼈다. 거의 보름동안 곁에 있는 폭신한 침대를 비워둔채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온몸의 기력을 깡그리 짜낸 것이었다. 정 건디기 어려울 때마다 탁상시계의 자명종바늘을 10분, 15분씩 돌려놓고 책상앞에 앉은채로 쪽잠을 자곤 하였다.

지나간 날의 간고한 노력의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걸 생각하니 너무도 기가 막혀 허구프기까지 했다. 책상앞에서 일어나 침대로 다가가 거기에 되는데로 몸을 던지려다가 똑 굳어진채 한동안 서있었다. 거기에 쓰러지면 며칠동안 일어나지 못할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나약한 내 꼴을 현아가 본다면...

인식은 곧바로 몸을 가누었다. 어쨌든 변론준비는 해야 한다! 매일까지, 마지막순간까지 쓰러져선 안된다....

그는 바람을 쏘이려고 밖으로 나왔다.

해는 이미 퍼그나 기울었으나 아직도 따스한 빛은 아담하고 깨끗하게 꾸린 외래자합숙마당에 가득히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산산한 명주바람이 헤쳐놓은 샹쑤의 목깃사이로 기분 좋게 스며들었다. 무겁던 머리가 맑아지고 몸도 좀 가벼워졌다.

키낮은 꽃벽돌담장을 따라 다문다문 늘어선 어린 살구나무들에서 분홍빛이 도는 하얀 꽃잎들이 하늘하늘 떨어져내리고있었다.

멀리 제강소쪽에서 새로 장입한 초고전력전기로에 첫 전류가 투입되는 소리가 꾸르릉— 들려왔다.

(현아가 아직도 내 설계를 다 못 보았는가?...)

주의가 분산되는것이 싫어서인지 아니면 이따금 살구나무가지에 날아와앉곤 하는 까치들에게조차 자기 세계를 엿보고싶지 않아서인지 한낮에도 꼭꼭 닫겨있는 그의 방 창문에는 여전히 아무 기척 없었다.

인석은 좀 거닐고싶었으나 마당 가득히 한벌 깔린 청초하고 정갈한 살구꽃잎들을 밟는것이 어쩐지 저어되어 현관결에 있는 긴의자에 가앉았다.

살구꽃잎은 그의 어깨며 머리우에도 그냥 떨어져내렸다. 인석은 무릎우에 내려앉은 꽃잎 하나를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 꽃을 들여다보느라니 자기네 연구소마당의 살구나무아래서 몇달전 여기 제강소로 떠나오는 현아를 바래주던 일이 생각났다....

2

...간밤에 내린 눈이 나무아지들마다에 하얗게 쌓여있어서 마치도 꽃이라도 핀듯 하였다. 조금씩 바람이 불적마다 엄청나게 크고 길죽길죽한 눈송이들이 하르르하르르 날아내렸다.

마당 한편에서 소형버스에 현아가 제강소로 가고갈 컴퓨터며 연구기재들을 싣고있었다.

현아는 어깨에 기타를 메고 인석과 마주서있었다. 그의 기막힌 기타독주를 한동안 듣지 못하겠구나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는게 아니요? 좀 혈하고 작은 대상부터 시작하는게 좋을걸...》

작은 어깨우에 너무도 큰 짐을 지고가는 처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야겠으나 왜서인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진심으로 걱정이 앞서는것이였다.

인석의 그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새 년도 과제분담을 위한 회의에서 현아가 주저없이 1만톤프레스현대화체제설계를 맡아나섰을 때 인석을 비롯한 신진들은 물론 연구소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판록있는 연구사들도 선뜻 말아안기 주저할만큼 도면만 해도 수십키로그람이나 되는, 하나의 공장과도 맞먹는 복잡한 전기-유압-수압체제로 이루어진 거대한 설비를 연구소에 들어온지 이제 겨우 몇달밖에 안된 처녀가 개조해보겠다는것이 놀랍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체제설계를 맡는다는것은 곧 그 연구의 대상책임을 맡는다는 소리이고 체제전문가가 체제구성과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설비의 현대화수준이 결정되는만큼 그 어렵고 중요한 임무를 현장경험이 아직 부족한 그가 꽤 감당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또한 누구에게나 없지 않은

것이였다.

그러나 현아의 대담한 제의는 과학부소장을 비롯한 연구소일군들의 지지를 받았고 곧 필요한 조직사업도 진행되였다.

4월말까지는 설계를 완성해야 하였다. 대형단조 분야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최신과학기술 등 사전연구와 현장료해, 도면연구, 그에 기초한 구상설계작성, 완성설계... 대략적인 연구공정만 따져보아도 시간이 푼푼치 않았다.

설계가 완성되면 즉시 프로그램전문가, 장치전문가들로 정식 연구조를 무어 제강소에 내려보내기로 하였다.

현아가 연구소에 일으킨 파문과 충격은 인석의 조울고있던 야심을 흔들어놓았다.

아직은 모든것이 앞에 있다고 인석은 생각하고있었다. 연구소에서 주는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점차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이 확고해지는 데 따라 자기도 어느때든 큼직한 현장연구대상을 맡을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야심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있는 실력의 작용거리안에 있어야 한다는것, 그것이 리성이고 현명한 처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지나친 욕망때문에 오히려 실패하여 자존심과 명예가 만신창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기에게 굳어져있던 그러한 관념을 현아가 단 한번의 충격으로 깨버린 것이였다.

현아는 어떻게 주저없이 그런 용단을 내렸을까? 일시적인 충동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일까? 나도 이제라도 그런 용단을 내릴수 있을까?...

인석은 느닷없이 현아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미전부터 연구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좀더 정확히 말하면 70~80프로가 현아와 자기와의 사이를 남다르게 보고있지만 인석이 자신은 이제 금방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을뿐이였다.

현아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는 딱히 알수 없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것 같기도 했다. 확실한것은 자기가 현아를 몹시도 사랑하고싶어한다는 것뿐이였다.

사랑! 얼마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인가!...

비상한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히 알수 없었다.

결에서 친절하게 사랑에 대해 조언도 주고 권고

도 하고 이런저런 견해를 말해주는 사람들도 생기
기 시작했다. 배우는것을 일생 목표로 삼고있는
인석이로서는 물론 고마운 일이었다.

《사랑이란 헌신이구 희생이지...》

옳은 말이다. 책에서도 그런 글을 종종 읽지
않았던가.

다른 누군가가 《인석동무, 과학에서 성공하
자면 뒤바라지 잘해줄 착실한 안해가 좋지 않을
가?》 하고 든장질해보려는것을 단마디로 베어
버렸다.

아니다. 한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성공하려는
것은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는 리기적인 생각이다.
아무리 크게 성공한다 해도 그것은 절반짜리 행복
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쨌든 희생이요, 헌신이
요 하는것은 총포탄이 울부짖는 전장이라든가, 눈
보라치는 밀림속이라든가 하는 비상한 정황이나
가혹한 환경에 더 적합한 말 같았다.

아늑하고 조용한 방에서 해종일 서로 컴퓨터
건반이나 두드리고 문헌자료나 뒤적이면서 내가
현아를 위해 무슨 헌신을 하며 무엇을 희생한단
말인가...

또 누군가가 말했다.

《현아동무에게 사랑을 고백했나?... 안했나?...
그렇게 바재이기만 하다가는 기회를 놓쳐.》

별로 바재여본적은 없지만 인석은 때없이 열
을 울리며 학술문쟁도 하고 가끔 허물없이 통담도
주고받는 사이에 갑자기 정색해서 사랑을 고백한
다는것이 어쩐지 싱거운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던차에 한 장치전문가가 자기의 교훈을 이
야기해준적이 있었다.

《아무리 바빠두 시간을 좀 내서 현아동무와 같
이 유보도두 거닐구 극장구경도 다니라구. 그제
단지 편애라고만 생각하면 안돼.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사랑은 아무래두 좀 공허해. 꽃병에 꽂힌 뿌
리없는 꽃이라 할지...》

그래서 인석은 어느 조용한 기회에 현아에게 말
을 건넸다.

《오늘 저녁 개천청년공원유희장에 함께 가지
않겠소?》

뭔가 잠시 생각해보는듯 하던 현아가 난감한 표
정을 지었다.

《어쩌나, 요새 소론문집필때문에 좀 바쁜
데...》

인석은 아무말없이 돌아앉았다.

말없이 컴퓨터건반을 두드리는 인석의 낮색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지 현아가 그의 곁으로 다
가왔다.

《성났어요?》

그래도 말이 없자 집게손가락으로 인석의 어
깨살을 암팡지게 꼬집고 오래도록 놓아주지 않았
다. 보기에는 말큰하고 나긋나긋한 손이 어지간히
매웠다. 아파서 비명이라도 지르고싶었으나 끝
내 참아냈다.

《인석동무, 내가 동무한테 한가지 말하랴요?
언제부터 말하자던건데...》

《말하오.》

《난 인석동무두 연구과제수행만 생각하지 말구
소론문집필에두 낮을 좀 돌렸으면 해요. 물론 품
이 좀 많이 들지만 정보과학발전에 기여하재두 그
래, 자기의 실력과 경쟁력을 키우재두 소홀히 할
수 없다구 봐요.》

나하구 약속하자요. 소론문집필을 통해서 우
리 한번 실력경쟁을 본때있게 해보자요.》

현아는 인석의 코앞에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합시다. 실력전의 시대에 실력경쟁을 하자
는거야 좋은 일이지.》

인석은 성큼 현아의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걸
었다.

현아가 준 충격이 대뜸 그 약속을 상기시켰다.

인석은 은연중 조바심을 느꼈다. 현아가 열매를
떨 때 자기도 따고싶었다.

제강소로 떠나는 현아를 바래우는 이 시각에
도 그의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동시에
그러한 조바심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것이였다.

출발준비를 끝낸 소형버스가 경적소리를 울
렸다.

현아는 한손을 뻗쳐 인석의 머리우에 드리운 살
구나무가지를 휘여잡고 흔들어들었다. 눈가루가 뽀
얇게 날렸다. 인석은 구태여 쏟아지는 눈을 피하
지 않았다. 얼굴을 스치고 목덜미에까지 스며드는
찬기운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왕이면 첫걸음부터 크게 내짚고싶었어요,담
도 키울겸.》

《어쨌든 일이 잘되길 바라오. 가면 전화로라도
가끔 소식을 전해주겠소?》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하지요.》

《그럼 내 인내성있게 기다리지. 살구꽃이 필
때쯤이면 좋은 소식 받게 될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어요.》

또다시 경적소리가 울려왔다.

현아는 돌아서서 총총히 걸음을 옮겼다. 감쪽하
게 작은 그의 털구두자욱이 하얀 슷눈우에 또렷이
찍혀졌다.

눈! 어떤 때는 엄혹한 시련을 불러오고 어떤 때
는 가슴부푸는 희망을 불러오기도 하는 눈!... 이
제 현아의 일은 어찌될가...

인석은 어깨우에 날아내린 살구꽃잎을 집어 손바닥에 또 하나 올려놓았다.

《인차 살구꽃이 필것 같군요.》...

아름다운 노래선물의 여운깊은 잔향처럼 들려오는 소리...

인석이 제강소로 내려왔을 때 현아가 한 말이다.

《난 꼭 인석동무가 내려올줄 알았어요.》

현아는 자기 옆방에 인석이 방을 잡도록 하고 관리원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팔까지 부르짖고 방안정돈과 가구들의 배치변경을 하느라 성수가 나서 돌아갔다.

《컴퓨터는 이쪽에... 텔레비는 저쪽...》

인석은 활기에 넘쳐 돌아가는 현아의 모습을 보느라니 방금 차에서 내려 현아를 보는 순간에 느꼈던 가슴노리를 쿡 찢리우는듯 한 아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한달 남짓한 사이에 바늘로 찢려도 들어갈것 같지 않게 팽팽하고 동그랗던 얼굴이 가름해지고 가뜩이나 크던 눈이 더 커진 듯싶은데다가 항상 생기를 머금고 윤기돌던 도톰한 입술마저 조갈이 든듯 까칠해진 현아의 모습에 인석은 솟구치는 런민을 억제할수 없었다.

《현아!...》

너무도 반가와 인석의 팔을 붙잡고 발까지 동동 구르던 현아가 어지간히 격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와 어둡해진 얼굴표정을 보고 똑 굳어졌다.

《힘들지...》

한순간 현아의 까만 눈동자가 파르르 떠는가싶더니 거기에 물기가 펴 고였다. 갑자기 북받치는 오열을 참느라 꼭 깨물린 그의 입술사이로 간신히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응... 좀...》

현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줄 알았으면 자기가 먼저 연구소에 제기해서라도 미리 왔을걸 하는 후회가 가슴을 찔다.

인석은 사실 오늘 아침 과학부소장이 제강소로 내려가주었으면 할 때에도 망설이며 주저했었다.

《제강소 자동화과 사람들이 체계전문가 한사람을 더 보내줬으면 하는데 아무래두 인석동무가 가는게 어떨가 하오.》

《제강소에서요?》

혹시 거기 사람들이 어린 처녀라고 현아의 실력을 못 미더워하는게 아닐가? 제강소 자동화과 실력이 상당히 높다는 말을 들은바 있는지라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였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할수 있는가... 이악하고 자존심이 높

은 현아에게 그것은 정신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는것이였다. 만약 실패가 정말 그렇다면 현아가 좀 힘들더라도 가지 않는편이 나을것 같았다.

그러지 않아도 인석은 요새 바빠 지내고있었다. 정식 과제로 발진 않았지만 큼직한 대상을 하나 점찍고 짹짹이 사전연구를 진행하고있었다.

인석이 인차 대답을 못하는것을 보고 부소장이 동을 달았다.

《물론 동무가 큼직한 과제를 하나 준비하고있다는걸 나도 아오. 해야지. 하지만 아직 연구소계획에는 물리지 않은 상태이니 어려워하는 현아동무 돕자는거요.》

《현아동무도 사람을 보내줄걸 요구하고있습니까?》

《그렇소.》

인석은 놀랐다. 현아가 연구소에 손을 내밀 정도로까지 힘들어하는가?...

인석은 그제서야 자기에게 감히 희생이라고까지 할순 없다 해도 현아를 위해 무엇인가 할일이 생겼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럼 가겠습니다.》

부소장의 너부죽한 얼굴이 일시에 환해졌다.

《그럴줄 알았다니까. 그럼 빨리 출장준비를 하고 곧 떠나오. 구체적인 실행은 거기 가면 인차 알겠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겠소.》

부소장방을 나온지 세시간도 안되어 인석은 여기에 도착한것이였다. 도착하여 몹시 상해버린 현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것 보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더니.》 하는 말이 금시 입밖으로 나오려는것을 꼭 참았다.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랴...

《가만 관리자아주머니, 아무래도 쏘파는 여기에 놓는게 좋을것 같아요.》

현아는 창문 열구석을 가리켰다. 곧 쏘파를 그리로 옮겼다.

《힘들 때마다 이따금 내가 방에서 기타를 탈게요. 여기 쏘파에 앉아있노라면 소리가 아주 잘 들릴거예요.》

드디어 방꾸리기가 끝났다. 인석이 마음에 들어하는것을 보고 현아는 기뻐하였다.

공기같이 하느라 열어놓은 창문앞에 서서 현아가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인차 살구꽃이 필것 같군요.》

따뜻한 날씨가 한동안 계속되긴 하지만 아직은 겨울이였다. 어쨌든 인석에게는 그 말이 자기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주는 희망처럼 느껴졌다.

인석도 창문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아닌게아니라 얼핏 볼 땐 모르겠더니 마당의 살

구나무들에 봄물이 오르는것이 확연하였다. 이러다 혹시 갑자기 날이 또 추워지면 움터나오던 꽃눈들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저녁 다섯시에 현장기술협의회가 있으니 그때까지 좀 쉬세요.》

《아니, 현장부터 한번 돌아봅시다.》

점심식사를 하고 인차 단조공장으로 나갔다.

위낙 제강소구내가 넓은데다가 공장이 따로 떨어져있다보니 달마산기슭에 있는 외래자합숙에서 현장까지는 거의 10리길이나 되었다.

세멘트포장도로가 있었으나 현아는 질러가자면서 동쪽길에 접어들었다. 해빛에 땅결면이 녹아 질적거렸다. 인석은 길이 미끄러워 넘어질가보아 뒤뚱거리며 조심조심 걷는데 현아는 얼마나 냉큼냉큼 짹싸게 걷는지 도무지 따라갈수가 없었다. 뒤뚱거리다가 팔을 허공에 내저으며 넘어질번 하는 인석을 돌아보고 현아는 깔깔 웃어댔다. 인석이도 따라웃었다. 인석이 자기의 출현이 현아에게 기쁨과 희망만 아니라 넘쳐나는 새로운 활력까지 부여주었다고 생각하니 웃지 않고 견딜수가 없었다.

드디어 공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천석짜리 대형극장만큼 큰 작업장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무쇠거물 1만톤프레스가 우뚝 서있었다.

인석은 프레스로 다가가 고개를 젓히고 입을 반쯤 벌린채 한바퀴 빙 돌아보았다. 몇아름씩 되는 새하얀 시린더들이 채광창빛에 번쩍거리고있었다. 육중한 테이블며 상모루, 누런칠을 한 기둥이며 맨 꼭대기에 아찔하게 올려다보이는 상부예압수탱크 등 프레스의 몸체전체가 금빛으로 번들거렸다.

프레스의 왼쪽 저편에 하나가 수실통씩 되는 커다란 강피들이 무덕무덕 쌓여있었다. 오른쪽에 하부예압수탱크며 뿔프들이 있는 압축기실을 등지고 세면이 통유리로 된 조종실이 있고 조종실 양편으로 가열로들이 전개되어있었다.

《어때요, 굉장하지요?》

현아의 물음에 인석은 프레스에 그냥 눈길을 준채 대답했다.

《음, 컴퓨터루 볼 때두 꽤 크다구 생각했는데 실물루 보니 정말 굉장하구만.》

《난 이 프레스를 처음 볼 때 이게 바로 지구들 들어올리는 지레대 만드는 기계가 아닐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인석에게도 생각되었다.

여기서 찍혀지는 수많은 발전기며 대형기계의 축들이 강성국가건설의 추진축이 아닐것인가. 그 추진축들이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 우

뚝 받들어올리고 지구까지도 들어올리지 않을것인가....

현아의 낭만적인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그만큼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벅차고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는것이였다.

이것저것 초보적인 료해를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어느덧 회의에 참가할 사람들이 모여들고 반갑게 소개인사들이 오갔다. 자동화과 공정자동화실 림동혁기사를 책임자로 하는 1만톤프레스현대화조의 다섯명의 기사들과 함께 자동화과 우근식과장과 김창순초급당비서가 함께 왔다.

인사말이 오간 끝에 몸집이 우람찬 우근식과장이 흐뭇이 웃음을 짓고 말했다.

《현아선생두 그렇구 새로 온 차선생두 그렇구 이렇게 큰 대상을 맡아안구 내려온 선생들이 너무나도 젊은데 대해 난 정말 놀랍기 그지없소. 그만큼 우리 나라 새 세기 산업혁명의 전도가 양양하다는 생각에 정말 기쁘구만, 허허...》

모두가 따라웃었다.

회의는 조종실안에 빙 둘러앉아 격식없이 했다.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에 제기된 실무적문제들과 기술적문제들이 논의되고나서 얼굴이 너자처럼 해말썽하고 이마가 두드러져나온 림기사가 안경알을 번뜩이며 오늘회의의 본론인듯싶은 말쑥지를 뻗었다.

《그곳 연구소두 일이 바쁘겠지만 체계전문가 한사람을 더 내려보내달라고 한건 다름이 아니라 현아선생이 지금 하고있는 설계외에 연구방향이 완전히 다른 제2설계안을 설정할 필요가 제기된때문입니다. 물론 현아선생이 설정한 연구방향은 그 목표가 대단히 높구 또 지금까지의 연구과정만 종합해보아두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수준을 통과할 가능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2설계안의 설정이 필요한가. 그것은 이 연구방향이 현재 1만톤프레스자동조종체계의 말단장치들을 거의 그대로 리용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으로서 투자를 대폭 줄이구 체계개발기간을 훨씬 단축하면서도 앞으로의 운영에서 우리 식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연구방향이 현아선생 설계안의 수준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1만톤프레스현대화의 중요한 목표가 그 수준을 최대로 높이는데 있는만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설계는 의도가 어떠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것입니다. 현재 그 가능성을 담보하고 증명할수는 없습니다. 오직 실천적인 연구만이, 그것도 최대의 실력이 발휘된 연구만이 증명할수 있습니다

다. 제2설계안 설정의 필요성은 이것입니다.》

시종 침착하고 조용하게 올리는 립기사의 말은 너무도 논리정연하고 명백한것이어서 하나도 모를 것이 없고 이해되지 않는것이 없었으나 인식은 한 순간 깊은 혼돈속에 빠져들고말았다.

이건 죽지 않으면 살라는 소리인가? 아니, 내가 제2설계안의 가능성을 증명하면 현아의 설계를 부정하게 되는거고 그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연히 헛고생만 하구 실력없다는 비난이나 듣겠으니...

점차 분노 비슷한 억울한 감정이 서서히 살아올랐다. 그렇다고 지각없이 그 감정을 내색하고싶지 않았다.

나야 현아의 설계를 도우러 오지 않았는가. 이런 난처한 일에 말려들자고 여기 왔는가?...

한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에 인식은 자신을 가사로 자제하며 입을 열었다.

《이건... 의무입니까?》

철색얼굴에 관공이 두드러진 김창순비서가 사뭇 야량있는 느슨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의무라기보다... 량심입니다. 사실 우리 자동화파에서 2설계안을 해보고도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선생들의 실력을 평가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생님들이야 최신과학을 배운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혹시 많은 시간이 투하되면 할수도 있겠지만 일단 체계개발이 시작된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있는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설계의 의의는 적어집니다. 지금같이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시간처럼 귀중한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동안의 침묵이 흐른 끝에 인식은 좌중에 물었다.

《여기 모인 동지들은 모두 제2설계안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합니까?》

우근식과장이 말했다.

《그렇지는 않소.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일에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자는 의견도 있구 또 이제 가뜰이나 어려운 새 설계안 연구를 시작해서 설계완성기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소. 인차 조업하게 될 발전소들의 설비보장때문에 성이나 내각에서는 늦어서 9월부터 무조건 생산을 시작하라는거요. 모든건 선생들의 결심여하에 달려있소.》

인식은 인츰 현아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현아동무는 2설계안을 설정하는데 동의합니까?》

현아는 눈을 내리간채 더갈라진 아래입술을 감아물고 인츰 대답할념을 안했다.

왜 말을 못할가, 립장을 밝히기 따분한가? 연구소에 손을 내밀만큼 힘겨워하면서 이제 새 설계를 시작하면 내가 전혀 도움을 줄수 없겠는데 툭 더놓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기다리다못해 운영실 김재운기사가 대신 대답했다.

《현아선생은 2설계안 설정문제를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처음 그걸 제기한것도 바로 현아선생입니다.》

인식은 경악했다. 그래서 날 여기에 오게 했는가. 이건 그야말로 자살행위가 아닌가. 날더러 기를 쓰고 자기 설계를 부정하라는건가?...

리해되지 않았다. 자기의 물음에 인츰 대답을 안한것도 결국 립장을 밝히기 따분해서가 아니라 의견상이의 력량관계를 타산하는 내 마음속을 뻔히 들여다보구 그런게 분명하였다. 현아는 왜 자꾸 이런 모험을 계속하는걸가? 왜? 왜?...

회의는 이렇다할 락착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인식이 일어나면서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현장연구랑 도면연구랑 하면서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현판문을 나오니 날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인식은 현아가 따라오건말건 씨엉씨엉 걸었다. 바빠 따라오는 현아의 할썩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름길로 들어설새없이 포장도로를 곧추 걸었다. 넓구 좋은 길을 놔두구 왜 하필 질적거리구 미끌거리는 오솔길로 다닐가. 그게 그렇게 두 좋은가....

따라오기 배찬지 현아가 인식의 팔소매를 꼭 붙잡고 힘껏 당겼다.

《인식동무, 인식동무, 같이 가자요. 왜 그렇게 빨리 가요? 도망병같이.》

도망병?... 인식은 팔을 뻗 잡아당겼다. 그 서늘에 현아는 넘어질듯이 비칠거렸다. 《아!》

인식은 황급히 다가갔다.

《현아, 어디 다치지 않았어?》

《보기 싫어요!》

현아는 인식의 손을 뿌리쳤다.

무안한중에도 인식은 보는 사람이 없는가 사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보는 사람은 없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것이 다행이었다.

인식은 처녀애들처럼 오래동안 쫓겨있을 생각을 없었다. 그저 성품이를 좀 해보고싶었을뿐이었다. 현아의 지향이 옳기에, 아무래도 종당에는 제가 현아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수 없기에... 그래도 사내의 자존심으로 엇드레질을 해볼뿐이었다.

잠시후 현아가 정적을 깨뜨리며 인식을 찾았다.

《인식동무, 난 아침에 과학부소장선생한테서

인석동무가 자기 하던 연구까지 중지하구 여기루 떠났다는 소식을 받구 동무가 내 생각을 다 알고 온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터렸는데...》

《자기 설계를 부정하는게 그렇게두 기쁘오? 그리구 또 내가 헛고생을 하구 명예를 손상당하는게 그렇게두 기쁘오?》

《난 그저 우리 실력의 최대점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부분설계를 한때 해놓구두 이제 내 실력의 최대점일까? 이이상 더 잘할수 없을가 하는 생각에 짝 지워버린적이 얼마인지 몰라요. 새로운 연구방향을 설정할수도 있다는걸 알구는 며칠밤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 몸을 둘로 쪼갤수도 없구...》

《만약 2설계안을 하는 경우 우리 둘중에 누군가가 잃게 될 명예, 시간, 장비된 정열, 그 모든 희생은 무엇으로 보상하겠소?》

《그게 무슨 희생이에요. 1만톤프레스현대화를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할수만 있다면 난 무엇이든 다 하겠어요. 인석동무, 우리 한번 해보자요, 예? 나는 뛰구 동무는 날아서 날 따라잡구.》

그 청이 너무도 간절하고 절절하기까지 하여 인석의 마음은 대번에 흔들렸다. 엇드레질하고 싶은 생각이 짝 사라졌다.

잠시후 현아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인석동무, 동무도 아다싶이 실력은 우리의 생명이예요. 과학자의 생명은 실력이란 말이에요. 우린 누구나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때,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 사랑을 할수 있어요?》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고드는 그 말에 인석은 흠칫 몸을 떨었다.

그렇다. 현아는 큰 사랑을 갈망하고있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최첨단돌파전에 자기의 작은 사랑마저 깡그리, 서슴없이 바치려하는것이였다....

《현아, 종소. 내 2설계안을 하겠소. 해도 동무의 설계를 꼭 압도하고야말겠소. 동문 지금보다 열배 아니, 백배루 더 긴장해야 할거요.》

비장한 생각까지 들었다. 인석은 한 처녀에게보다 먼저 조국앞에 실력으로 뽐뽐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해야 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인석이가 그 누군가의 조언이나 권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고 뼈속깊이 절감한 사랑의 진리였다.

《고마워요, 인석동무...》

현아의 눈가에 핑그르르 고여오르는 눈물을 인석은 떠오르는 달빛에 똑똑히 보았다....

인석은 어깨우에 내려앉은 살구꽃잎을 또 하나 손바닥우에 올려놓으면서 2설계안을 함께 완성한 자기네 경쟁조성원들인 림동혁, 김재운, 조광천기사들에게 참 미안하게 되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서운해할것인가.

수도에서 고이 나서자란 인석에게 있어서 비록 두달밖에 안되는 나날이지만 여기서 그는 하나의 생활대학을 나온것과 같았고 생활의 교사는 바로 그들이였다. 그들의 정신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고 사랑을 배웠다.

집 떠나면 아무래도 고생이라고 자기 집들에 색다른 음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합숙이며 현장으로 들고나오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고 갓가지 보약이며 보신탕을 해오던 그들, 그것은 진정 부모의 정을 대신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함께 론쟁도 하고 토론을 벌일 때는 20년 또는 그 이상의 격심한 나이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생으로, 경쟁조책임자로 존중해주었다.

그들의 실력이 간단치 않았다. 연구과정에 있는 어느 한 과학심의회에서 심의성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우리 식의 새로운 체제도입을 주장한것이 림동혁기사였다. 처음 인석은 그것을 주저했었다. 사실 개발력사가 수십년이 되는 다른 체제들에 비해 아직 그 체제가 기능이나 응용면에서 다소 제한성이 있는 조건에서 사람-기계사이 대면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일정한 제약을 받지 않을가 하는 우려때문이였다. 그러나 앞으로 1만톤프레스현대화체제의 관리와 운영을 우리 식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고 더우기는 응용과정을 통하여 우리 체제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는데로부터 결심을 내렸다.

붉은별체제의 도입은 인석이가 처음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연구과정에 오히려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고리로 되였고 설계완성의 돌파구로 되였다.

말단장치를 거의 그대로 리용하자면 회로와 입출구장치들을 많이 변경시켜야 하는 난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붉은별체제를 전제로 하여 대담하게 PLC(프로그램론리조종기)를 들어내고 체제조종에 필요한 입출구장치들을 모두 컴퓨터와 결합시킬수 있었다.

돌파구가 열리고 구상설계단계에서 전망이 열렸을 때 인석이와 그의 경쟁조성원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렸던가. 그 기쁨이 자기들에게 조금이나마 안도감과 자만심을 가져온것은 아니었

던가?...

역시 현아는 완성설계단계에서 자기의 집요한 추적력과 주도세밀성을 발휘하였고 결국 설계의 완벽한 경지를 점령하였다. 녀성적인 이악성과 섬세성이 도움이 되었을까? 단지 그뿐이 아닐것이다. 이것은 그의 열정과 실력의 총화이다. 야심이 없으면 대담한 시도가 없고 실력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것이다. 고독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환경이 큰 영향을 준것도 사실이다.

나에게 만약 시간적여유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아니다. 시간이 단지 지속성과 계기성이라는 개념이 남아버린지는 이미 오래다.

인석은 지난 두달, 귀중한 1 440시간동안에 자기가 잃은것과 얻은것을 생각해보았다.

잃은것은 명예다. 철강재생산의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는 제강소의 모든 사람들, 자기네 연구소사람들은 물론 정보학계의 안테나들, 금속공업성을 비롯한 편관부문 성과 내각의 일군들, 지어 1만톤프레스현대화를 위한 투쟁소식을 보도하려고 왔던 기자들과 소설을 쓰려고 왔던 작가들, 결국 온 나라가 지켜보는 속에 벌어진 실력경쟁에서 패했으니 명예를 잃었다.

그다음은... 실력으로 사랑을 고백하리라던 자기의 마음속 맹세를 지키지 못했으니 사랑의 몇몇한 권리를 잃었다.

얻은것은 무엇인가. 현장연구경험을 배웠고 일정하게 담과 실력을 키웠으며 여러가지 귀중한 생활의 진리들을 실감하고 배웠다.

인석은 이것이 이제 금방 시작인 자기의 인생에 큰 밑천이라고 생각하였다. 잃은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보다 얻은것을 귀중히 하고 밑천으로 삼는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소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

문득 현아의 방에서 기타소리가 울려나왔다. 인석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따금 자기 방에서 현아의 기타소리를 들으며 인석은 힘을 얻곤 하였다. 아득히 더 높은 곳에 생의 목표를 세워주고 빨리 오르자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준 현아, 그가 고마웠다.

밖에서 들으니 기타소리는 더 맑고 쟁쟁하였다.

매번 그러하던것처럼 인석은 대뜸 선물에 심취되었다.

좀 빠르면서도 경쾌감보다 열광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곡성이 강한 선물이였다. 자유분방하고 심한 굴곡과 음폭이 넓은 화음... 짜릿한 충격을 주는 리듬이 선물을 강조하고있었다.

그리 길지 않은 하나의 선물주제가 반복되면서도 단조롭지 않고 부단히 변형, 확대되면서 어

디까지인지를 알수 없는 세계로 그냥 치닫는 것이였다.

선물이 추구하는 무한의 세계에 인석은 감동되었다.

귀에 익은 그 선물에서 인석은 이전보다 더 강렬한 질주의 감정을 느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져도 멈출수 없는 질주, 그 질주를 방해하는 모든것에 대한 항거의지, 바람을, 폭풍을 맞받아 날르는 아름다운 새의 퍼덕임소리...

파연 그는 어디까지 가려는걸까. 그가 가려는 세계, 그가 날아오르려는 창공의 끝은 어딜까... 연주가 끝나고 한동안이 지나도록 인석은 명상에 잠겨 선물이 남긴 여운을 즐기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인석동무.》

현관 문손잡이를 잡고 선채 현아가 인석을 향해 웃음을 지어보였다.

오늘따라 현아는 약간 진한 화장을 했다. 옷차림도 여기 와서 한번도 입은적 없는 산뜻한 미색 양복차림을 했다. 그의 주위에서는 명절기분 같은 것이 느껴졌다. 온몸이 그대로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는듯 한 현아의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다.

기쁘겠지. 그리고 웅당 기뻐해야지. 이번 첫 현장연구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기 실력의 최대점을 시험하는것이였고 그것을 통쾌하게 증명하였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현아는 인석이가 앉아있는 긴의자앞으로 다가와 치마를 내리썰며 그의 곁에 다소곳이 앉았다. 하냥 미소를 머금은채 입을 열었다.

《인석동무, 난 방금 인석동무의 설계를 보구... 내 설계의 번론을 포기할 결심을 했어요.》

《뭐라구?》

또박또박 울린 현아의 그 말이 미처 이해되지 않아 인석은 두눈을 똑 부릅뜬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론 인석동무의 설계가 일부 세부면에서 상대적인 약점은 있지만 난 내 설계의 몇개 세부들을 거기에 보충하는 방법으루 인석동무의 설계를 수정완성해서 최종과학심의회에 유일한 본설계루 제출하자는거예요.》

《동문 혹시 날 동정해서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니요? 난 그런 동정을 받아 승리하느니 차라리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영예롭게 패하는 길을 택하겠소.》

《이건 동정이 아니예요. 난 이미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내 설계의 전부를 지워버렸어요.》

《뭐요? 정신있소? 어떻게 완성한 설계라구 그걸 짝 다 지워버린단 말이요?》

《아니, 결승테프는 이미 끊어졌어요. 결승선을 지난 무모한 경주가 무엇에 필요해요?》

《...》

《생각해보세요. 내 설계의 우점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동무설계의 우점은 전체적인 것이예요. 동무의 설계는 투자를 대폭 줄이구 아니, 투자가 거의 없으면서두 체계개발기간을 훨씬 단축할수 있을뿐아니라 체계의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우리 식으로 해나갈수 있게 되어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당의 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이 구현된 설계예요. 여기에 동정이니 영예로운 패배니 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섞을 필요가 뭐 있어요.》

《...》

《솔직히 아무런 파악도 없는 정상태에서 그렇게 빠른 기간에 설계를 완성한건 기적이예요. 난 동무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인석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아, 나는 현아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놈이구나.)

최첨단돌파전의 벼랑 투쟁에서 내앞에 서있는 처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영예와 공명을 아무런 사심도 없이, 주저없이 희생하는 처녀, 조국을 위해서 《나》라는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낌없이 바치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현아의 지성세계에 인석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현아...》

한동안 말없이 두손을 무릎우에 포개고 앉아 있던 현아가 고개를 젓히고 머리우에 드리워진 살구나무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대형단조분야의 최첨단을 돌파한 영예로운 승리자에게 살구꽃이라도 한가지 안겨주고싶은데 다 떨어지는군요.》

인석이도 고개를 젓혀 살구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마지막꽃잎들이 떨어져내리고있었다. 아지마다 열매 무겁게 드리울 래일을 약속하는 꽃잎... 아름다운 꽃잎...

인석은 일어나 살구나무 한가지를 꺾어 현아에게 내밀었다.

《꽃은 떨어져두 열매는 남지 않소. 내가 만약 승리자라면 동문 승리자를 이긴 승리자요.》

선뜻 받아들음을 앓고 아지를 들여다보는 현아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살구꽃처럼 정갈하고 청초한 미소, 행복에 겨운 미소가...

그들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있었다. 이런 순간엔 침묵도 좋았다. 달콤한 침묵...

현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좋은 처녀와 사귀었다는 생각 그리구 현아동무와 이렇게 실력경쟁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소. 동문?》

《나도 인석동무와 경쟁을 계속하고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린 따로 행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겠어요.》

제강소구내쪽에서 초고전력전기기로에 전류투입되는 소리가 꾸르릉— 들려왔다. 엄청난 열원을 가진 거대전류가 무쇠를 끓이느라 맞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서로 마주바라보았다. ...

상 식

호 기 심 과 기 역

머리속에 새겨진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는것을 잊음이라고 하는데 기억에서 중요한것은 잊음을 방지하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의 머리는 쉬임없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점점 둔해진다. 자극을 받으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긴장감이 생긴다. 이 긴장감이 머리를 윤택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

새것에 대한 호기심을 늘 가지고있어야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제는 다되었다고 자신을 포기하면 몸도 마음도 더 늙고 잊음도 더 심해진다. 중요한것은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것이다.

매일 같은 일을 거듭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고 머리의 긴장성이 풀리는것은 웅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매일 하는 일외에 다른 한가지 하고싶은 일거리를 더 찾아서 하는것이 좋다. 무엇인가 하고싶은 일을 추구해나가면 정열이 생기고 잊음도 적어진다.



박 종 철, 그림 김광석

1

읍거리를 벗어나자 복남은 자전거발디디개를 힘껏 눌렀다. 사슬이 벗겨지기도 한 것처럼 발이 저절로 돌아간다.

바람이 등을 떠밀고있었다. 구월산너머 저 멀리에서 불어오는 새바람이다.

산은 드넓은 대지를 웅위하듯 거대한 병풍처럼 저 멀리 우측비죽 솟아있다.

앞은 어러리, 나무리벌이 펼쳐진 무연한 지평선이다. 그래서 바람세찬 이 날씨에도 마음이 흥그러운지 노래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이 곡, 저 곡 몇곡조 흥얼거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다. 이러고있을 때가 아니라 생각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예술축전이 눈앞에 있다. 빨리 작품을 준비하고 사람도 선발해야 한다. 무조건 입선을 해야 한다는 욕망이 앞서는 복남이다. 한창나이에 리문화회관 관장이 된데다 농장의 경제선동활동을 책임지지 않았는가.

방금전 군에 회의를 갔다가 포치를 받았다. 토지개혁법발포의 날을 맞으며 전국적인 농업근로자들의 예술축전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모여왔던 군안의 수십개 리문화회관 관장들이 저마다 버리며 흩어져갔다. 저들이 이번에는 기어코 노암리를 누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남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터이다. 자기리는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서만도 두명의 당선자를 낸 이름있는 농장이다. 그만큼 군중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데 오래동안 그 일을 주관해온 최완벽아바이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다. 이번에도 역시 그가 한몫 크게 맡아할 것이다.

여기까지 미쳤던 복남의 생각이 한순간 딱 멎어

섰다. 방금전 군에서 들은 소문때문이였다.

지난해 노래경연에서 당선된 노암리농장원 신상철이가 중앙예술단체에 소환되어간다, 이제 그를 데리러 우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는...

어디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인지는 알수 없다.

물론 그럴만한 근거는 가지고있었다. 얼마전 텔레비존에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했던 상철의 모습이 소개되었던것이다. 그가 너무 긴장했던 나머지 음정이 약간 틀리어 2등으로 평가는 되었지만 가지고있는 재간이야 어디 가겠는가.

떠도는 소문이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지만 빠르기 이룰데 없고 가닿지 않는 곳이 없다.

지난번에도 그랬다. 두해전 최영란이란 처녀가 역시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서 당선된 후 얼마 안있어 도기동예술선전대 배우로 소환되어갔는데 그때에도 소문이 앞서 떠돌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신상철이까지?...

그는 발디디개를 힘껏 눌렀다. 그러면서 내심 그것이 헛소문이기를 바랐다. 아직은 그의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것이 없지 않는가.

실사 소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철이는 가지 않을것이다. 그가 자기앞에서 한 다짐이 있는 것이다. 아니, 혹시 그가 마음이 흔들린다 해도 내자신이 보내지 않을것이다. 당장 축전이 눈앞에 있는데 보내길 어디로 보낸단 말인가.

갈림길이 나졌다. 복남은 최완벽아바이가 살고있는 7작업반쪽으로 자전거를 몰아갔다. 일흔살에 들어서는 나이지만 군중문화예술활동이라하면 발 벗고나서는 로인이다.

아닐세라 복남이 말도 채 끝맺기 전에 그는 무

료를 탁 치며 바짝 다가앉았다.

《음, 예술축전이란 말이지. 해야 하구말구. 이번에도 우리가 꼭 올라가야 돼!》

《건강이 일없겠습니까. 옆에서 조언만 주십시오.》

《노래춤이 날 살려주네. 내가 이 나이까지 농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것도 그 덕분이라고 할수 있어.》

그는 지난 기간 수많은 예술축전과 경연들에 참가하여 전국을 들쭉케 하는 작품들을 내놓았고 그만큼 인재들도 많이 키워낸 사람이다. 복남은 물론 최영란이나 신상철이도 그의 손에서 자랐다고 할수 있다.

《당선이 되자면 뭔가 새로운것이 있어야 할터인데...》

그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인차 한손을 쳐 들었다.

《가만, 인민군대식으로 한번 해보세. 군무자예술축전에서 하는것처럼 뒤에다 합창대를 세우고 앞에서 시와 노래를 하는것처럼 말이야. 어떤가?》

《합창대 말이지요. 좋은 생각입니다. 인원은 몇명정도 하면 될가요?》

《많으면 좋겠지만 로력문제도 있고 하니 스무명정도는 되어야 할거네.》

《스무명... 반장들이 응할가요?》

《정치사업을 해야지. 낮에는 일을 하구 저녁에는 연습을 하구. 우리 리를 전국에 소문내는 일이 아닌가. 자네가 좀 빠근하겠지만 반장들을 만나보게. 그래서 관장이라는 사람도 필요한게구. 세상에 쉽사리 얻어지는 성과가 어디 있나?》

신심이 생겼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생각이다.

즉시 리소재지에 올라와 리당위원회에 보고를 하였다. 한석진리당비서도 대뜸 반기였다.

《좋은 일ियो. 마음을 크게 먹고 준비를 잘해보시오.》

《그런데 인원을 동원하는 문제가...》

복남이 초보적으로 토의된 안을 제기했다.

《당선만 될수 있다면 그대로 내미시오. 문제는 예술경연도 농사와 동떨어진 별개의 일로 되지 않게 하는데 있소. 아니,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크게 발동시켜 쌀을 더 많이 내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지. 뭇다 뭇시다.》

사기가 났다. 그러나 아직 한가지만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상철에 대한 뽀뽀한 뒤소문이였다.

하여 슬며시 그 문제를 꺼내놓았더니 한석진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관장동무, 아직 소문에 불과한 말을 듣고 무슨 근심이 그리 많소.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해도 사람이야 우리에게 있지 않소. 그때 가서 봅시다.》

그렇게 놓고보니 별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였다. 흥그러운 마음에 밖으로 나오니 다시 구월산 편봉들이 마주섰다. 이 벌의 수호신처럼 어디서나 바라보이는 구월산이다. 저우에 올라서보면 산자드락처럼 사방으로 아득히 펼쳐져간 어러리벌, 나무리벌...

바람은 여전히 불고있다. 이해농사를 독촉하는 봄바람이다.

2

신상철은 올해 스물일곱의 한창나이청년이다. 키는 그닥 크지 않으나 몸이 다부지고 나서면 무대가 흰해질만큼 혈색도 좋다. 누구누구 해도 축전에 참가하자면 그가 있어야 한다. 다른것은 말고 그가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 2등당선자라는 것만으로도 관중이나 심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복남은 우선 그부터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8작업반으로 향했다. 작업반들에는 이미 필요한 인원을 보장하라는 지령이 내려간 상태다.

원래 상철은 음악교육을 특별히 받은것이 없다. 했던것이 농장예술소조에 망라되면서부터 음악적기질이 싹트고 발전해왔다 할가. 그것만으로도 농장을 모른다고는 할수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혹시 판마음을 먹지 않았다고는 단정할수 없지. 농장원으로부터 전문예술단체의 배우가 된다는게 어디야....)

잊자고 했던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상철이 제 말로는 아니라고 한다지만 젊은 마음이란 장마칠 물처럼 갈래가 많아 어느 골짜기로 새빠질지 모른다. 급한 마음에 걸음을 다그치는데 앞에 시꺼먼것이 막아섰다.

《관장동무, 지령을 받았네. 하지만 난 한명의 로력도 못 보내겠네. 작업반로력이 뭐 관장동무의 무대용소도구인가 하나? 작업반일감이 무데기로 쌓여있는 판에...》

바로 그 8작업반장이 육중한 몸을 버티고 서서 그를 쏘아보고있었다. 직통배기인 그가 이쯤 나오리라고는 이미 짐작하고있던바였다.

《누가 단꺼번에 내놓으라는겁니까. 다른 사

람들은 종합훈련을 할 때에만 그것도 일이 끝난 다음에 보장해주고 상철이만은 아무래도 소조의 기둥이니까 오후 한껏쯤 시간을 보장해달라는거지요.》

《상철이를? 아니, 그만은 더욱 안돼. 가뜰이나 등 떠있는 사람에게 무슨 풍구질을 못해서...》

《등 떠있다니요. 그가 무슨 풍선이라구 등 떠있다는겁니까?》

《소문을 못 들었소? 그가 어느 예술단인지 선전대인지 하는델 간다는지. 해서인지 녀석이 요새 말도 잘 안 듣고 찌뿌둥한게 일에도 열성이 없단 말이요. 판장이 책임지겠나?》

복남은 그만 아연해졌다. 군에서 난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퍼졌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했다가 혼자 웃고말았다. 그쯤한 소문은 날만도 했던것이다. 경연장면이 텔레비존에 소개된것은 물론 심사에 참가했던 한 배우출신심사원이 여러 예술단체들에 소개를 해서 저마다 찾아와 노래를 시켜본다, 사진을 찍는다, 록화촬영을 한다 하며 법석떠들었던것이다. 사정은 도에 내려와 귀환공연을 할 때에도 비슷했다.

당황해난것은 상철이자신이였다.

《관장동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대신 관장동지가 결심해주십시오.》

경연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다녔던 복남에게 상철이 물었다.

그러나 복남도 대답할수 없었다. 사실은 발벗고 나서 적극 떠받들어주어야 할 기쁜 일이다. 한 농장원으로부터 중앙예술단 무대예로의 소환 그것 자체가 농장의 자랑으로도 되는것이다.

그러나 한편 복남으로서는 상철을 놓아주고싶지 않았다. 얼마나 자기의 손때를 묻혀 키워낸 제자인가. 또 앞으로 농장에는 얼마나 필요한 인재이고...

명백한 대답은 경연이 끝나고 집에 내려왔을 때 이어졌다.

상철의 아버지가 그를 앉혀놓고 말했다.

《상철아,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리농맹위원장을 하던 너의 할아버지는 미국놈들이 내려치는 몽둥이에 맞아 희생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땅에서 누구보다 농사를 잘 지었다는 죄아닌 죄때문이었다....

너는 이 땅에 깃든 선조들의 넋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래를 불러도 이 땅에서 부르고 농사를 지어도 이 땅에서 지어야 한다....

그렇게 희생된 상철의 할아버지의 투쟁자료가 리계급교양관에 전시되어있다.

상철의 결심은 그때부터 확고해졌다. 다시는 도니 중앙이니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고향땅을 착실히 지켜가겠다는것이였다. 바로 복남의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도 안 듣고 일까지 잘 안한다는것은 무슨 소린가....

《내가 상철이를 꼭 안 보내겠다는건 아니야. 하지만...》

8작업반장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말하고있었다.

《우리 집이나 그 집은 이 노암땅의 뿌리나 같아. 그런데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늘 말하는 애국심도 뜯소리가 되고 대대로 고향땅을 지켜가겠다는 말도 빈 구호가 되고말거란 말이야.》

《그러니 보내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군요?》

《보내고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풍구질을 말란 말이야. 노래라는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즐겁게 하는것이거 허파에 바람을 넣어주는 가죽풀무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는거야.》

《명심합시다. 그러나 상철이는 보내주어야 합니다.》

복남은 여전히 흥그럽게 끌리는 마음을 놓지 못하며 이렇게 당부했다. 구월산 련봉들이 멀리에서 그를 말없이 지켜보고있었다.

3

어디선가 마치 가수가 부르는듯 한 맑고 명랑한 녀자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

땅이여 너는 량심의 저울

땅이여 너는 애국의 저울

내 한생 이 땅을 사랑하리라

이미 이제는 남의 사람이 된 최영란이 노래경연 때 부른 노래였다.

산골이를 돌아서니 13작업반 농장원들이 뺑상모판을 공굴면서 웃고떠드는 모습이 바라보였다. 그중 한 처녀가 논쪽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회관관장동무, 여기 와서 노래 한마디 듣고 가라요. 우리 반에서 또 한명의 가수가 나왔수다.》

성격이 개방적이고 대바르기로 소문난 녀성반장이 그에게 소리소리 지르고있었다.

복남이 발머리를 돌리자 그 녀자는 더욱 성수가났다.

《보라요. 이 처녀가 영란이 못지 않게 노렐 잘 불러요. 어때요, 우리 작업반이 팬찮지요?》

《뭐가 팬찮다는겁니까?》

《일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 인재들이 가득 하잖나요.》

(팬찮아, 이번축전에 꽤 내세울만 하겠다!)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복남은 겉으로는 전혀 판 소리를 했다.

《또 영란이처럼 하늘로 날려보내자고 벌써부터 풍구질을 하는겁니까?》

한것은 영란이가 바로 이 작업반에서 일하다가 도기동에술선전대로 가게 되는데는 이 반장의 적지 않은 노력도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복남이어서 우정 말을 비뚤어지게 했다.

《날아가긴 어디로 날아가요, 누가 갔다는거 예요?》

《가지 않구요. 영란이가 쏜 화살처럼 한번 날 아간 후에 다시 나타나납디까. 올수나 있대요?》

《관장마음씨도 알랑하다. 키워서 나라에 바 쳤으면 그만이지 뭘 더 바라는게 있어요?》

반장은 한마디 하고나서는 문득 재미난 일이 생 각키우는듯 소리내어 웃었다.

《관장동무도 소문을 들었지요. 상철동무까지 날려보낼 준비나 잘하랴요.》

《상철이를?... 그를 어디로 보낸다는거요?》

《어디긴 어디예요, 전문예술단이지. 청년중 앙예술선전대라던지...》하고는 정확한 주소를 묻 듯 노래하던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도 옳다는듯 고개를 까딱까딱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아닌가 했던 소문이 사실인 것이 틀림없다. 여기까지 이렇게 굴러왔을적에야...

《반장아주머닌 어디서 들었습니까? 누가 그 런 뜬소문을 돌립디까?》

깜짝 놀란 복남은 엄엄한 인상으로 두사람을 번 갈아 바라보았다.

한참만에야 그 처녀가 대답했다.

《관장동지, 그건 상철동무가 한 말입니다.》

《뭐, 상철이가? 그가 뭐라고 했다는거냐?》

《애인한테 말했지요 뭐.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된다고... 그 출판물보급원 있지 않습니까.》

《출판물보급원? 그럼 황은숙이가 상철의 애 인이란 말이야?》

《모릅니까? 리에 소문이 짜한데...》

이런 일이라구야. 그러니 나만 모르고있었던 말 인가.

입을 딱 벌리고있던 복남은 힘껏 도리머리를 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상철이 누구를 사 랑하든 그것은 당당히 그의 권리에 속하는것이다. 문제는 그가 마음을 돌렸다는데 있다. 내앞에서는 절대로 고향을 뜨지 않겠다 하고는 뒤에서 판 궁리를 하고있다는 그 속심... 그리곤 돌아앉아 제 입으로 소문까지 내?

사실이 분명하다. 상철이 마음이 변했다. 애 인에게까지 말하는 정도면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등 떠있는 상철이만이 아 니라 그 출판물보급원까지 홀 떼우는게 아니야?

분김에 걸음을 꺾 돌렸다. 배반당했다는 분개심 에 발이 공중에 뿔다.

큰길에 나서니 앞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났 다. 5작업반장이다. 흥이 나서 중얼중얼 부르는 노래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다. 노래가 있어야 생 활도 있다고 하면서 오락회때마다 제일먼저 나서 군 하는 락천가다. 그런 반면에 우는소리도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남달리 일욕심이 많 아 그렇다는것을 다 알고있다.

그는 복남을 보더니 탄성을 내질렀다.

《아, 마침이구만. 내가 바로 관장동물 만나 러 가던 길일세. 그새 건강했나?》

별로 사근사근 안부까지 묻는다. 대뜸 이 사람 이 사업을 하려 낮추붙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런 때는 먼저 공격하는 수다.

《기분이 좋았는데요. 지령을 받았습니까?》

《노래없이야 사는 재미가 있다. 노래를 불러야 기분도 나는데지.》

《어렵고 힘든 때도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 래자체가 힘과 용기구 승리가 아닙니까.》

《역시 정치사업을 하는 관장이 다르구만. 그렇 다는 의미에서 나하구 유무상통을 좀 합세. 요구 한 인원을 다 보장해줄테니 나를 좀 도와주게...》

저 물길공사 말이야, 로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단 말일세.》

반대로 그가 역습을 들이댄다. 높지는 못해도 묘하기는 묘한 수다.

5작업반으로 말하면 리적으로 제일 낮은 곳에 자리잡고있어 물때문에 늘 애로를 겪고있다. 제일 마지막에야 물을 받게 되는 관계로 모판씨뿌리기 요, 모내기요 하는 영농공정이 매번 뒤늦게야 끝 나는것이다. 반장이 올해는 물길을 곧바로 짜서 절대로 남한테 뒤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물 길공사를 드세게 내밀고있다.

《반장아바이, 내가 무슨 관리일꾼이라고 로 력문제를 제기하는겁니까. 관리위원회에 제기하 랴요.》

《제기야 이미 했지. 그런데 힘들다는게야. 이런 판에 회관판장까지 로력을 빨아가니 제 힘이라는걸 어디서 짜낼데가 있나. 그래서 자네 도움을 좀 받자는걸세.》

《아니, 반장아바이, 이제 다 우리 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까. 노래춤이 아바이에게 큰 부담이라도 되는가요? 노래춤 없이는 생활도 없다고 아바이자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야 물론 그렇지. 그러기에 자네가 좀 도와달라는거네.》

《내게 무슨 로력이 있다고...》

《그런게 아니라 예술축전준비에 동원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한테 와서 노래런습을 하란 말일세.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뭐 문화회관에서만 하라는건가. 노래를 불러주면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갈텐데... 그걸 로력지원에 비길텐가....》

5반장의 말이 그럴듯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런습이 제대로 되겠는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술축전자체를 망칠수 있겠다. 그렇다고 그앞에서 안된다고 잘라낼수도 없는노릇이라 이제 인원이 모인 다음에 보자고 적당히 둘러댔다. 5반장은 그만한 대답을 받아낸것만으로도 흡족한지 복남의 어깨를 툭툭 치며 올해 단참외를 많이 심어놓을테니 작업반에 자주 나오라고 거듭 거듭 당부하고는 떠나갔다.

4

작품은 땅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되어야 한다. 쌀을 더 많이 내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농장원들의 결의가 살아있는 생활로 안겨오는 땅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되자면...

복남이 작품줄거리를 엮어나가느라 여념이 없는데 최완벽아바이가 찾아왔다.

《작품이 잘되자면 아무래도 계급교양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네. 이를테면 전쟁때 이 땅을 지켜 싸운 우리 농민들의 투쟁자료 같은것이 말일세.

그 왜 상철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아예 상철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한 종목 특색있게 짚어주면 여운이 진할거란 말일세.》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작품을 쓰면서 어딘가 빈구석이 있구 대가 쭉 서지 못한것 같다 하구 생각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복남은 역시 선배들의 경험이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치다가 문득 굳어졌다. 상철의 생각이 나서였다. 그사이 몇번이나 만나려고

하다가 이래저래 만나지 못한 상철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상철이 말입니다....》

복남이 들은 얘기를 다시 펼쳐놓았는데 요점은 그렇듯 마음이 떠있는 사람에게 과연 주역을 맡길수 있겠느냐 하는것이였다.

《상철이가 그래? 그가 어떻게 자란 애라구...》

그의 말을 듣고 최완벽이 주먹을 불끈 그러 쥐었다.

《난 그 애의 할아버지가 저 동구밖 소나무밑에서 원썬놈들이 내려치는 몽둥이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똑똑히 본 사람이야. 하면서도 그는 노래를 불렀어. 저 유명한 〈밭갈이노래〉이지.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한친들 묵이라 밭갈이 가세〉 하는것 말이야.》

《바로 그래서 문제라는겁니다. 그런 사연을 안고자란 상철이 무대에서의 연기와 실지생활이 다르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겠습니까. 빈소리로밖에...》

《아니네.》

최아바이가 복남의 말허리를 자르며 반박했다.

《그래서 더더욱 상철이가 주인공이 되여야 하는거야. 대본만 잘 쓰라구. 진심으로 감동될수 있게 말이야. 저도 뭔가 생각하는게 있을걸세.》

아바이말이 리해는 되였다. 그러나 상철이 진심으로 받아물겠는지는 두고보아야 알 일이였다.

며칠후 복남은 상철을 만났다. 복남이 회관의 조용한 방에서 전후사에 대하여 묻자 그의 눈이 대번에 둥그래졌다.

《관장동지,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전 누구한테도 그 말을 한적이 없는데요.》

《상철이, 사람들이 보구있어. 굴뚝에서 연기가 풀풀 솟구치고있단 말이야.》

《하지만 제가 언제... 누구에게 그랬다는겁니까?》

《잘 생각해보라구. 누구든 불을 땀 사람이 있었을게 아닌가?》

기세가 등등했던 상철의 머리가 숙어지며 별절게 달아올랐다.

《제가 말했습니다, 황은숙이한테... 그만은 굳게 믿었었는데...》

《뭘 믿었다는거요. 동무자신부터 변하지 않았소?》

《제가 사랑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쩍번쩍하는 극장무대와 도시의 유보도로 처녀의 마음을 유혹했나?...》

그래 따라가겠지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결국 황은숙이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동무도 결심을 달리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그런건 아니지만...》

상철은 맥없이 대답을 가무리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발끝만 내려다본다.

복남은 헛참 하고 입을 다시며 상철을 바라보았다.

모든것이 명백하다. 이로써 소문이 결코 뜬소리가 아니며 상철의 마음이 변했다는것이 확연해진 것이다.

대번에 속이 울컥했다. 장부의 말 한마디가 천금같이 무겁다고 했는데 이럴수 있는가. 자기와 한 약속도, 아버지와 한 다짐도 다 한 처녀의 련정에 말아먹다니...

문득 8작업반장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상철이를 어디든 보내면 안된다고 하던 말이다. 최완벽아바이도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번축전에도 그를 기둥선수로 내세우자고 하지 않았던가.

《안돼, 동문 아무데도 못 가, 이 노암땅을 버리고는... 특히 이번축전에는 꼭 참가해야 돼.》

복남은 느닷없이 껍 소리를 쳤다. 하면서도 그는 자기 말에 힘이 없다는것을 느꼈다. 한 청년의 장래문제를 자기가 좌지우지할수 없으며 사랑 또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수 없기때문이다. 바로 그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더 격하게 하는것이다.

바로 그루렵 한석진리당비서가 복남을 불렀다.

한석진은 방에 들어서는 복남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요즘 축전준비정형에 대하여 물었다.

복남은 대답했다. 지금 한창 시작중이다. 그사이 최완벽아바이와 줄거리토의를 끝내고 작품대본을 완성하고 무대훈련에 들어갔다.

작업반들에서는 필요한 인원들을 다 보내주었다.

그런데 상철이 문제다. 중심주인공으로 되어야 할 그가 여전히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있는것이다. 주역을 그에게 그대로 맡길것인지...

복남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난 리당비서는 느닷없이 손을 내밀었다.

《원고를 좀 봅시다.》

그는 상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석진은 그 대본을 몇번이고 읽어보더니 그대로 복남에게 넘겨주었다. 하고는 손끝으로 책상모서리를 두드리다가 느닷없이 한마디했다.

《왔소, 그 사람이 왔단 말이지요.》

《그 사람이란 누구보고 하는 말입니까?》

《모르겠소? 상철이 문제로 우에서 사람이 왔단 말이지요.》

그가 이번에는 전화통을 가리켰다. 아마도 군에서 무슨 련락이 있는 모양이다.

바빠난것은 복남이었다. 그토록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들이닥친것이다.

《그럼 축전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까지 떼우고나면 누굴 가지고 승부를 겨루어보겠습니까?》

문제는 축전준비에만 있지 않다. 농장에서 앞으로 계속될 경제선동활동은 그가 없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한참후 리당비서는 복남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다.

《관장동문 상철이를 꼭 붙들어들어야만 하겠는거요? 그가 중앙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른다면 더 빛이 날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는 여기 노암땅 어러리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여기서 불러야 합니다.》

한석진은 빙긋이 웃었다.

《노래를 불러도 여기서 불러야 한단 말이지.》

하고는 다시 복남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일은 벌써 시작되었소. 청년중앙에 술선전대에서 뽑아가겠다고 사람이 내려온다는 거요. 지금 도에 내려와있는데...》

복남은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통을 석진의 앞에 끄당겨놓았다. 그리고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안됩니다. 더 늦기 전에 군에서라도 막아치우게 합시다. 우리 농장사람이자 군사람이 아닙니까?》

《군에선들 어떻게 하겠소. 우의 지시인데 복종해야지.》

《그렇다면 비서동지가 막아나서야지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농장사람이 아닙니까. 넘어진 다음에 발밑을 내려다보다가는 늦습니다.》

《나는 뭐 아래사람이 아니요? 복종하는수밖에!》

복남은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리당비서까지 이렇게 나오면 모든것이 끝장이다. 상철이 없는 축전참가는 거의나 승산이 없다.

그런데 한석진은 그저 웃기만 한다.

《관장동무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내가 한가지 방도를 대줄가?》

복남이 놀라 엉거주춤 일어서는데 한석진은 그를 꺾꺾 누르길라도 하듯 손을 흔들어 자리에 앉혔다.

《동무가 상철이를 말소. 그게 최선의 방도요.》
《제가요? 비서동지가 막지 못하는것을 제가 어떻게...》

리당비서는 선언하듯 팔을 들어 핵 내리그었다.

《됐소, 본인에게 맡기시다. 상철이 말이요.》
생각을 튕겨주듯 한석진이 계속하였다.

《내 생각에는 상철동무 문제는 중앙무대나 농촌무대나 하는 선택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오. 이것이 없으면 어디에 가서 그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는 서푼의 가치도 없는거요.》

《웁습니다. 진정이 없는 예술이란 차라리 하지 않는것만도 못합니다.》

《내 보기엔 작품이 비교적 괜찮게 된것 같소. 거기에 대를 이어 고향땅을 지켜가겠다는 의미를 특별히 강조해서 상철이 공연준비를 잘하도록 하오. 우리 믿읍시다. 리해가 되오?》

《알겠습니다. 제가 본인한테 침을 단단히 놓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억지방망이가 아니라 예술을 말하는거요. 예술이 생활그대로이듯 상철이 작품에 씌여있는대로 생활도 잘하도록 하란 말이요.

어떻소, 책임이 중하지?》

이제는 리해가 되었다. 벌써부터 그 방도가 머리속에 떠오르는데 한석진비서가 《가만.》 하고 뭔가 생각해낸듯 손을 쳐들었다.

《한가지 방도가 더 있소. 황은숙이 있지. 그 출판물보급원처녀도 이번축전에 망라시키오.》

웁다, 그 역시 상철을 바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둘이 함께 무대에 올라 작품속에 묻혀 돌아간다면 뭔가 달라지는것이 있을것이다.

북남은 금시 마음이 건똥해졌다.

북남은 마치 자기가 상철이구나 한듯 들뜬 마음으로 리당비서의 방을 나왔다. 우죽비죽한 구월산련봉들이 멀리서 그를 마중하고있었다.

5

저녁마다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예술창조란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여간 품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부 농장원들은 처음 무대에 나서는지라 꽃아놓은 말뚝처럼 동작들이 굳다는건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러나 열성들은 모두 높아서 단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연기수준이 쑥쑥 올라갔다. 역시 군중예술활동이 좋긴 좋은것이다.

특히 북남을 기쁘게 해준것은 상철의 기분에 일

련의 변화가 생긴것이다. 본래의 폐활하고 락천적인 성격이 되살아나 무대전반에 주는 영향이 컸다. 다른 농장원들에 대한 연기방조도 주면서 활기있게 돌아간다.

아마도 황은숙이를 함께 무대에 세운 결과인것 같다. 그들이 주고받는 눈빛과 그때마다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를 보고 대바람에 느낄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북남의 마음은 아직 한구석에 앙금이 남은것 같았다. 북남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묻는 말에 상철은 아무 대답도 주지 않았던것이다. 역시 억지방망이로는 되지 않을 일인 모양이다.

바로 그무렵에 반가운 일이 생겼다. 도기동에 술선전대에 올라가있는 최영란이 나타났던것이다.

《관장동지, 안녕하십니까? 야, 관장동진 아직도 여전하시군요. 정말 수고가 많겠어요.》

만나자바람으로 팔소매를 잡고 퐁퐁 뛰며 영란이 하는 말이였다.

《상철동무도 이번에 당선되었지요? 야, 확실히 우리 농장이 제일이야!》

척 보매 이제는 세련된 옷차림이며 화장솜씨가 도시풍이 엿보이지만 지난날의 친근감만은 어쩔수 없다.

《영란이가 어떻게 왔니? 다시는 안 나타날줄 알았는데...》

반갑기는 하지만 고까운 마음도 어쩔수 없다는투로 북남은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안 나타나다니요. 제가 어떻게 고향마을을 잊을수 있겠어요. 지금도 막 도착하는길로... 지금 우리 선전대가 군에 와있는데 저 혼자 앞질러 여기로 왔어요. 정말 잊지 못할 곳이 고향인가봐요.》

영란이 저르기 진심어린 어조로 말하자 북남의 속이 조금 편안해지는듯 했다.

(암, 그래야지. 웅당 그래야 하구말구.)

《그래 무슨 일로 왔니, 집에 일이 생겼냐?》

《제가 뭘 좀 도울게 없을까 해서... 축전준비를 한다지요?》

《하지, 갈 사람은 가더라도 우리는 한단 말이야.》

《관장동지,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합동공연을 하면 어때요. 우리 도기동에술선전대 하고 말예요.》

《합동공연? 그건 어떻게 한다는거냐?》

《그렇게 하면 공연수준이 쑥 올라갈수 있어요.

단꺼번에... 우리가 힘껏 도와드리겠어요.》

《공연수준... 그게 사실이나? 네가 그렇게 할수 있니?》

방금까지 품고있던 고까운 마음이 순간에 달아났다. 그의 제안이 그럴듯하다는 생각에 복남은 고개를 기우뚱하고 영란의 입만 바라보았다.

《할수 있어요. 벌써 다른 농장들이 자기네한테와달라는걸 제가 대장동지한테 말하고 여기로 왔어요.》

《애, 당장 되돌아가서 여기로 데리고오너라.

아니, 내가 전화로 말하지... 아니, 네가 가져라. 무조건 데리고와야 한다.》

복남은 버럭 마음이 앞서고 조급해났다. 역시 키워놓으니 쓸모가 있고 보람도 있다.

과연 다음날 도기동에술선전대가 도착하였다.

즉시 작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종목별런습에 들어갔다. 중요한것은 두 단체의 특기를 살리는 몇개 종목들에 한해서는 독자적으로 출연하고 몇가지 대중종목, 레를 들면 합창이나 중창, 합창시들에서는 함께 출연하는것이였다.

예상으로 성과가 좋았다. 특히 농장에술소조원들의 연기수준이 대번에 높아졌다. 전문가들과 배우들의 지도를 받는데다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 목청이 저절로 확확 열린다는것이였다.

이윽하여 종합훈련이 진행될 때였다.

복남이 객석에 앉아 공연을 보고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이는것이였다.

《관장동무, 저 상철이를 좀 보라요. 인물로나 연기수준으로나 배우들 못지 않지요. 관장동무의 수고가 많수다.》

돌아보니 13작업반장이였다. 삐칠데 안 삐칠데 다 머릴 들이밀며 과연 수고가 많다. 하지만 복남은 내색을 앓고 그의 말을 받았다.

《반장아주머니가 어떻게... 바쁘지 않습니까?》

《암만 바빠두 영란이야 만나봐야지요. 내 손에서 자란 처녀데 식사라두 한끼 시켜야지요.》

《내 알기엔 영란이 이 회관에서 자란 처녀같은데 13반장이 키워보냈던가요?》

《누가 보냈든 키운 보람이 있지요?》

《보람이 있어서 이렇게 신세나 지는 처지가 됐는가요?》

《신세는 무슨 신세, 그 애를 키워보냈으니 이렇게 도선전대가 통채로 굴러오지 않았나요.

그러지 말구 이번기회에 상철이까지 마저 올려보내라요.》

(뭘, 이번기회에 상철이까지?)

복남은 저도 모르게 엉거주춤 일어섰다. 어느새

대상이 반장이라는 관념이 달아나고 어성이 높아졌다.

《이 아주머니가 또 무슨 풍구질을 못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겠소?》

《아마 그렇게 하는게 좋겠수다, 벌써 사람까지 내려왔다는데.》

《사람이라니, 누가 왔다는거요?》

《중앙청년동맹에서이지 누구긴 누구요. 지금 리당에 와있는데 비서동지가 관장을 오라고 합디다.》

그리고는 재미난 일이나 있는듯 썩웃으며 회관을 나갔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리당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서니 과연 젊고 날씬하게 생긴 초면의 사람이 한석진비서와 나란히 앉아있었다. 언제부터 온다던 그 사람이 분명했다.

《신상철동무문제때문에 왔습니다. 이미 통보를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매우 의젓하고 정중한 자세로 말하는 그 투만 보아도 중앙기관 일군다운 위엄스러운데가 있었다.

하지만 복남은 배짱을 내댈 생각이였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아까운 처녀동무 한명을 때웠습니다. 이제 또 그만한 가수를 데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중히 해주길 바랍니다.》

청년일군은 빙그레 웃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에야 왜 심중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소문도 많이 들었구 심사에 참가했던 심사원동지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지료해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지료해라는건... 우리 상철에게 무슨 흠이라도 있다는겁니까?》

《중요한건 그의 예술적재능이지요, 본인의 의사도 들어보구요. 물론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나는 본인의 의사를 절대시켰으면 합니다. 누가 어디로 가고말고하는데서야 본인이 기본이 아납니까?》

복남은 본인이라는 말에 특별히 힘을 주었는데 그것은 후에 상철을 몇차례 만나 절대로 고향을 뜨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낸때문이었다. 확실히련습이 심화되면서 상철의 모습이 달라져가고 있었다.

청년동맹일군은 다시한번 웃었다.

《물론 본인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의사도 무시할순 없습니다.》

역시 위압조로 나온다. 거기에 반발하여 복남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한석진비서가 밀막았다.

《관장동무, 요구대로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오.》

복남은 그의 엄한 시선에 쫓기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청년동맹일군이 나가자 복남은 참지 못하고 다시 한석진에게 들이댔다.

《비서동지, 상철을 보내면 안됩니다. 당장...》

《영란이가 저렇게 어엿한 배우가 되어 온게 대견하지 않소. 그가 도안의 여러곳을 다니며 노래를 부른다는걸 생각해봤소? 우리 농장에서만 부르는것과 어느것이 더 리익이겠는가 타산을 해보오.》

《그렇다고 꼭 우리 농장사람만 뽑아가라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거야 동무가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잘한 결과이지. 거기서 보람을 찾으소.》

《비서동지, 제가 상철동무한테 따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저 텔레비죤극 〈종달새〉에서 손풍금수가 반주를 틀리게 해서 노래경연에 불합격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무는 보수주의반장이 되겠다는 거구만? 축전대본에 상철동무의 생활을 그대로 담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뒤집겠다는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관장동무도 알겠지만 예술이란 생활의 진실에 토대할 때 힘있고 감동적인것으로 되는것이요. 난 상철동무가 전문예술단체로 가고 안 가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생활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기 노래에 어떻게 담는가 하는것이 문제라고 보오. 그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하고 실감이 있게 형상할 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지 않겠소. 그러니 상철동무를 잘 준비시키시오.》

리당위원회를 나선 복남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명백한것은 상철이 노래를 잘할수록 뽐혀올라갈 확률이 높다는것이였다.

6

합동공연은 5작업반에서 진행하고있는 물길공사장에서 하기로 하였다.

리당비서와 공연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를 토의하고 회관으로 돌아오던 복남은 회관을 채 못미처 무춤하고 벗어섰다.

회관마당에서 상철이와 청년동맹일군이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던것이다.

이야기방향이 잘 흐르는지 서로의 얼굴에 웃음

이 완연하다. 아니, 저녀석이 종내 마음을 돌려먹은것이 아닌가. 버럭 의심이 갈마드는통에 당장 다가가려는데 은숙이까지 나와서 뭐라고 말하다가 청년동맹일군과 인사를 나누더니 활짝 얼굴을 붉히며 뛰어들어간다.

(이제는 저녀석이 은숙이까지 꺼차고 올라가려는게 아니야?)

복남은 사연이 궁금해나고 일이 다 망그러지는 것 같은 생각에 다리땀이 다 빠져버리는듯 회관정문기둥에 스프르 몸을 기대고말았다.

(어쩌면 좋은가?...)

한가지 방도가 떠올랐다.

(최완벽아바이를 내세우자. 그야말로 이 마을의 조상뿌리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저 8작업반장을 내세울 필요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최완벽아바이가...

복남의 이야기를 듣고난 아바이는 한참만에 고개를 들었다.

《관장, 상철이를 보내줍세. 젊은 사람의 장래 문제가 아닌가.》

《아바인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젠 상철이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장문제입니다. 당장 축전도 그렇고 농장의 군중문화예술활동도 그렇고 그를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 생각도 해야지. 저마다 자기본위로만 나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나...》

《아니, 아바이!...》

복남은 입을 항 벌리고 아바이만 바라보았다. 최완벽아바이는 열성스레 손세까지 써가며 복남에게 말했다. 상철이 진짜로 재능이 있어 전문예술단체에 가면 좋은 일이 아닌가, 얼마나 긍지로운가, 이것이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잘한 우리 농장의 자랑이 아닌가, 거기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 된다는것이다.

약속이나 한듯이 한석진리당비서와 똑같이 말한다. 이로써 상철을 지킬수 있는 마지막보루가 무너진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던 복남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한사람이 더 있다. 저 8작업반장이다. 그만은 절대로 상철을 내놓자고 안할것이다.)

그러나 복남이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한채 합동공연의 시각이 왔다. 전례없이 특색있게 구성된 합동공연대원들이 다가가자 산허리를 길게 건너간 물길공사장에서 농장원들이 손을 저으며 소리쳐 환영했다.

그들과 함께 질통을 지고 흙을 나르던 한석진리당비서가 땀배인 얼굴로 맞이했다. 알고보니 공사

장에는 그뿐만아니라 저 8작업반, 13작업반 반장을 비롯한 반장들전부가 모여와있었다.

5작업반장이 반갑다고 뛰여와 복남에게 마주섰다.

《이 사람, 고맙네. 이렇게 많은 로력을 풀어주다니... 나야 좀 적당히 도와달라고 했지...》

복남은 어이없어 허 하고 웃고말았다.

《아바이, 우린 선동사업을 왔지 로력지원을 온 건 아닙니다.》

《알지, 알야. 어쨌든 고맙네.》

5작업반장은 복남의 말은 들은척도 안하고 그저 고맙단다.

드디어 돌격을 알리는 류량한 나팔소리가 울렸다. 기악대성원들이 일제히 쪽우에 올라 힘찬 행진곡선율을 울리고 무용수처녀들은 랑손에 붉은기를 추켜들고 힘차게 펄럭였다. 가수들은 손에 마이크를 들고 선동연설과 함께 힘찬 노래들을 련속 불러댔다. 합창대를 비롯한 나머지 성원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삽과 질통, 밧들이들을 들고 공사장에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공사장은 새로운 열풍으로 와글와글 끓어번졌다. 말그대로 경제선동의 선풍이 불어치기 시작한것이다.

휴식시간에 공연의 막이 올랐다. 새로 쌓은 쪽우에 농장원들이 주련이 앉고 그앞 논배미에 무대를 정한 격식없는 공연이었다.

먼저 설화와 함께 합창 몇종목이 지나간 다음 최영란이 독창으로 출연하였다.

빼꼭새가 노래하는 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

후렴구에서 합창성원들이 일제히 합창을 했다.

아 언제나 좋은 곳일세
아 내 고향 어머니품아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졌다. 관중들은 그것이 고향을 잊지 못해하는 영란의 심정그대로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거듭되는 재청으로 영란은 《뽕따러 가세》, 《매봉산의 노래》를 비롯한 몇곡을 더 부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매 노래가 끝날 때마다 13작업반 장녀인을 비롯한 농장원들이 큰소리로 한마디씩 해서 장내에 웃음판이 터졌다.

《영란이 잘한다. 그래그래, 어디 가서두 제 고

향마을을 잊어선 안된다!》

《농사걱정말구 아무데 가거나 노래만 잘 불러라. 우리가 네 뉘까지 다해서 올해농사도 잘 지으려다...》

공연이 절정에 오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상철이가 무대에 나섰다.

노래에 앞서 시랑송이 시작되였다. 그는 먼저 감추어둔 쌀을 내놓으라고 하는 놈들의 요구에 항거하다가 몽둥이에 맞아 생을 마치는 할아버지의 최후를 실감있게 형상하고나서 격조높이 웨치였다.

아, 할아버지의 굴함없는 그 모습
이 손자의 가슴을 친다
후대들의 가슴에 맥맥히 살아숨쐬다
선렬들의 마지막 그 붉은 피가
이 땅 저 벌의 흙갈피마다에 맥박친다
...

이어 상철은 《밭갈이노래》를 불렀다. 할아버지가 원썩들의 총구앞에서 부른 노래였다.

장군님 주신 땅 한치인들 목이라 밭갈이가자고 할 때에는 합창대뿐만아니라 전체 농장원들이 함께 불렀다. 그것은 단순히 원썩에 대한 복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쌀을 내어 당의 은덕에 보답하겠다는 오늘날의 농민들의 결의를 담은 노래였다.

7

공연은 끝났으나 사람들은 자리를 뜰줄 모르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도기동에술선전대의 수준있는 노래와 시, 재담, 사이극들도 좋았지만 농장에술소조원들의 합창과 독창, 구연들도 그 못지 않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상철의 연기가 만사람의 인기를 모았다.

모두 웃고 떠드는 속에 5작업반장이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다가 복남을 찾았다.

《여보게 판장, 정말 잘 봤네. 힘이 나네. 내 다시는 로력타발 안할테니 우리 작업반전체라도 데려다가 더 멋진 공연을 준비해주게. 그사이 작업반농사는 나 혼자서 다 짓겠네.》

온 장내에 웃음판이 터졌다. 뒤따라 8작업반장이 커다란 손으로 입을 쭉 문지르며 일어섰다.

《우리 상철이 연기가 어떻던가, 재사는 재사지?》

《그래, 참 재간있어. 눈물이 다 나오더군. 현

데 자네 그 인재를 혼자 꼭 끼고 썩이지 말게. 장안의 새처럼 가두고있지만 말란 말이야.»

《내가 바로 그 생각이야. 아무데도 우리 농장에나 붙잡아두면 안될것 같애.》

8작업반장은 아직도 무대쪽에서 머물거리고있는 상철에게 대고 소리쳤다.

《애 상철아, 너 가고픈데로 가거라. 훨훨 저 하늘끝에라도 올라가 마음껏 노래를 불러라.》

그때까지도 오고가는 말새를 따라가며 허허 웃고있던 복남이 와들쭉 놀랐다.

(뭐라구, 가고픈데로 가라? 저 령감이...)

언제는 상철을 절대로 다른데 보내면 안된다고 하던 반장이다. 노암땅의 뿌리를 뽑는것이라고 까지 하면서 그래서 상철이를 지키는 마지막보루로 믿었던 한사람이 아닌가.

복남의 생각에는 아랑곳없이 반장들의 즐거운 덕담은 계속되었다.

《저 구두쇠같은 반장이 마음쓰는걸 보니 뭐가 달라진것 같다. 우리 노암땅에 무슨 새 바람이라도 부는게 아니요?》

13작업반장이 때를 놓치지 않고 끼여들었다.

《불지요. 우리들의 머리를 거뜬하게 해주고 새롭게 발동시켜주는 예술선동바람, 한번 보고나면 정신이 거뜬해지고 힘이 절로 나거던요.》

《그게 바로 노래와 춤으로써 사람들의 정신력을 발동시켜주는 정치사업의 우월성이라는거지.

암, 노래와 춤이 그대로 우리 생활이 아닌가.》

한다하는 반장들이 주고받는 소리에 온 장내에 웃음이 그칠줄 몰랐다.

평양에서 온 청년동맹일군의 심정도 다를바 없는것 같았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내내 작품의 세계에 빠져 열렬한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합창이 진행될 때에는 같이 따라불렀다. 나중에는 손수건을 꺼내어 눈굽을 꼭꼭 짚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더니 복남에게 흥분에 뜬 어조로 말했다.

《합동공연이 참 진실하고 생활적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예술입니다. 특히 상철동무의 연기가 감동적입니다.》

한석진리당비서가 그에게 다가왔다.

《후에 따로 마주설것 없이 이 자리에서 결속 지읍시다. 우리 상철동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탐이 납니다. 먼저 만나도 보고 공연도 보았는데 나무랄데가 없습니다.》

그가 제격 대답했다. 그리고는 《상철동무!》하고 큰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를 들어봅시다. 회관관

장동지의 의견도 있는만큼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수많은 눈길들이 상철에게 집중되었다. 그가 둘러선 사람들을 한사람한사람 더듬어보고나서 조용히 말하였다. 주위가 조용해졌다.

《저는 갈수 없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상철의 선언에 복남은 순간적으로 의아해졌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데도 갈수 없고 가지 못하다니, 이제는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할 사람도 없지 않는가. 그런데...)

이에 대답이라도 하듯 상철은 큰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작품에 나오는것처럼 전 리농맹위원장의 손자가 아닙니까. 전 그들의 녀원을 이 고향땅에 대를 이어가며 꽃피우겠습니다.》

사위가 숨죽은듯 고요해졌다.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존엄이 그의 온몸에서 풍기고있었다.

한석진리당비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누구도 떠나는 동무를 타하지 않소. 당에서는 상철이와 같은 인재들이 마음껏 재능을 꽃피울것을 바라고있소.》

《고맙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래를 잘 불렀다면 얼마나 잘 불렀겠습니까. 전 그저 우리 선렬들의 녀이 깃든 이 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에 담으려고 애썼을뿐입니다. 저의 노래가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면 아마 그때문일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피가 스미고 선렬들의 녀이 깃든 내 고향땅에서 울리는 노래를 전 사랑합니다. 전 결심했습니다. 우리 사회주의농촌을 위해 땀도 흘리고 노래도 부르겠습니다.》

순간 요란한 박수가 일었다. 것처럼 누구나의 가슴을 조여오던 상철의 운명문제가 그의 말로써 비로소 결정된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어느새 박수는 멎고 사람들의 눈길이 자연 청년동맹일군에게로 돌아갔다.

기다렸다는듯 그는 군중을 향해 가볍게 인사를 했다.

《저는 이번에 두 단체의 합동공연을 보면서 많은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예술의 대중화방침,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상철동무의 노래도 좋지만 선렬들의 녀이 깃든 이 땅을 대를 이어 지켜가려는 그 마음 또한 얼마나 소중한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동맹원인 상철동무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존중합니다.》

전 연 마을 처녀 들

박 성 일

새벽하늘 흔드는
훈련의 나팔소리
산발을 지나 들에 울릴 때면
전연마을처녀들의 일과도 시작되오

일년내내 군대일과에 맞춰 살아선가
손목시계 벽시계는 마음에 안 차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나팔소리에
작업과 휴식의 일과를 맞춰사오

나팔소리에 맞춰 일손을 잡으면
일손마다 군대식 불이 번쩍
나팔소리에 맞춰 휴식을 할 때면
새힘 솟는 병사춤에 농장벌이 들썩

뜨락뜨락운전대는 땅크운전대
이슬젖어 번쩍이는 낮은 멸적의 총창

김매기이랑은 전호며 잡초는 원썬놈
고지와 마을은 원썬치는 한전호

병사들 천리행군 훈련길 나서면
처녀들은 논벌에서 김매기전투
병사들 훈련에서 돌아올 때면
논과 밭을 꽃밭처럼 가꾸어 축하해주지

아무렴 정말이지 군대가 된듯
원썬놈들 때없이 발악할 때면
마음은 벌써 탄약상자 이고지고 고지로 오르고
마음은 벌써 간호원이 된듯 위생가방 메오

아, 전연마을 명랑한 처녀들
포화속을 헤치던 예쁜이갈소
병사들 사랑받던 영육이갈소
정말이지 만점짜리 군관의 안해감들이지

~~~~~

다시 한번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순간 복남은 달려나가 상철을 그려안았다.  
《상철이! 정말 용하네, 정말 기뻐. 동무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나?》  
《관장동지가 작품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최완벽아바이랑... 그렇게 가르쳐주었구요.》  
상철은 주춤거리다가 사람들속에 섞여있는 황은숙의 곁에 가섰다.  
《사실 저도 마음이 좀 흔들렸답니다. 중앙의 무대가 어딴니까.  
하지만 이제는 일없습니다. 이 은숙동무도 나에게 힘이 돼주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공연을 준비하고 출연하면서 은숙동무는 저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고 지향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를 이어 이 땅을 꽃피워갈것을 약속했습니다. 관장동지, 고맙습니다.》  
상철은 복남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당황해난것은 복남이었다.  
고맙다니, 나의 무엇이 고맙다는 말인가.  
아니, 나는 축전준비를 한다고 무사분주히 뛰어만 다녔지 사람들의 마음속 키는 가늠해보지도 못했고 그것이 또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낼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날더러 고맙다니...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한석진리당비서가 눈에 띄었다. 그러자 그의 말들이 되살아났다. 작품을 어떻게 쓰며 상철을 어떻게 준비시키라고 거듭 되풀이하던 말들이었다. 그는 리당비서에게 다가갔다.  
《비서동지, 이번 축전을 준비하면서 저자신이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예술선동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가 진정을 담아 말하였다.  
한석진은 여느때의 그 평범한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말했다.  
《그게 바로 군중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말해주는것이요.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시키고 무한대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거든.》  
회관관장동무가 그동안 큰일을 했소.》  
멀리서 구월산련봉들이 흔들흔들 어깨춤을 추는듯 마주 바라보였다. 그 산자드락아래 드넓게 펼쳐진 대지도 거기에 호흡을 맞추듯 움쉴 움쉴 부풀어오르는것만 같다. 이해의 새봄을 앞당겨부르는 노래소리가 대지의 어느곳에서나 울려 퍼지고있었다.

# 독특한 구성의 매력과 성격형상

— 중편소설 《나의 사랑》을 읽고 —

김 순 립

문학작품창작에서 성격창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작품창작에서 묘사의 대상은 인간과 그의 생활이며 따라서 형상적화폭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성격이 놓여있다. 작가는 바로 인간형상을 통하여 시대와 현실의 진실을 해명하며 생활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해명한다.

작품의 구성은 선택된 모든 형상요소들을 하나의 전일체로 편결조직하면서 그 과정에 성격을 부각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을 하나의 산 유기체로 본다면 형상의 요소들을 싹틔워주는 종자는 물론, 화폭의 중심을 이루고있는 인간성격도 다 현실에서와 같이 살아 숨쉬는 자체의 고유한 생리를 가지고있다. 예술형상의 고유한 생리는 종자나 인물의 성격에만 아니라 구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에 발표된 중편소설 《나의 사랑》(박혜란 작)은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작품의 구성을 독특하게 짠것으로 하여 인물성격들이 다양하고 매력있게 창조된 작품이다.

×

중편소설 《나의 사랑》이 인물들의 다양한 성격을 여러 각도에서 흥미있게 형상하면서도 중편소설형식을 잘 살릴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작품의 경우에는 작가의 특색있는 구성의 탐구와 그로부터 결과지어지는 성격형상의 매력에 있다고 볼수 있다.

작가는 자기자신보다 조국을 위해 바칠줄 아는 사랑이 이 세상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작품의 종자와 그에 예술적해명을 줄수 있는 구성형식을 탐구하였다. 작가는 하나의 인물관계, 한토막의 일화도 이 종자를 꽃피우는데로 유기적인 맞물림을 하였다.

주인공 조순옥은 해방전 연지(연길)에서 여섯살 나던 해에 일제놈들의 《토벌》에 부모들을 다 잃고 한 할머니에 의해 구원되어 지주집 돼지몰이군을 하면서 갖은 천대와 구박속에서 살아간다. 하

지만 그는 돼지들의 발굽에 짓밟혔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연약한 풀을 보면서 힘을 내고 《풀대는 짓밟혀도 일어나고요 나는야 매맞아도 울지 않아요》라는 노래를 부르며 부자집애들의 놀림에도 이악하게 맞선다. 특히 길가던 행상군아저씨의 말대로 《우는 순옥》이가 아니라 《웃는 순옥》이로 살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형상은 구성에서 주인공의 앞으로의 성격발전의 기초를 특징지어주고 전제를 마련해주는것으로 된다.

또한 다시 만난 행상군아저씨(철우)에게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것은 성격발전의 논리를 형상적으로 납득시켜주고있다. 이러한것은 주인공의 성격발전이 생활논리의 합법칙적타당성을 가지도록 구성이 조직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발전을 다양한 생활측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인물들과의 호상관계속에서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해방전으로부터 조국해방전쟁시기까지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주인공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지닌 참다운 조국애, 다시말하여 진정한 사랑의 참된 철학적의미를 해명하는데 형상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 조순옥과 강철우, 오영혜, 박기동, 항일투사들인 최춘국, 지병학 등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풍부한 생활화폭과 전형적인 사건들속에서 보여주고있다. 특히 종자의 요구에 맞게 우리 녀성들의 애정론리관이 어떻게 조국과 집단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속에서 형성발전되고 공고화되고있는가 하는 생활발전의 론거가 충분히 설득력있게 제기되고있다.

작품구성에서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와 설정이 성격창조에 작용하는 기능은 이처럼 중요한 작용을 한다.

구성과 성격창조의 호상관계에서 사건체계의 내부적특질과 제반수법의 합리적인 배치와 활용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편소설 《나의 사랑》에서는 사건체계가 적대

적갈등을 기본으로 엮여지지는 않고있다. 여기에는 조국해방과 조국해방전쟁이라는 큰 사변과 사건들속에서 조선녀성들이 지닌 참된 사랑이라는 인생관적인 문제를 놓고 등장인물호상관계에서 빚어지는 내부적체험세계, 심리적굴절과 굴곡이 웅심깊은 감정의 뒤설레이름속에서 첨예하게 그려지고 있다.

소설에서는 인생의 같은 목적과 하나의 지향으로 공통된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속에서 참다운 사랑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시켜나가는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그리는데 주되는 힘을 넣고 있다.

그것은 작품의 종자와 사상주제적목적이 녀성들의 시대와 현실에 대한 사랑관과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특질을 해명하는데로 지향되고있기때문이다.

외적인 사건보다도 주인공들의 내부적체험세계를 그리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을 조직한것이 이 소설의 특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순옥과 강철우의 애정선이 일련의 생활상특성과 견해의 불일치로 하여 내적고민과 오해가 조성되고 오영혜와 박기동의 사랑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인 면모나 맵시나게 만든 등잔을 놓고 서로 엇갈리게 생각하는 장면 등 일정한 대립의 매듭들이 지어지기는 하나 그것보다도 인물들의 내부적체험의 깊이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심뇌의 곡절을 겪는 생활 등에 깊이 들어가 그것을 생활론리의 법칙에 맞게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다.

그리하여 시대와 생활속에서 발현되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한목숨 내대는 조선녀성들의 고결하고 순결한 사랑의 세계를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호상관계, 모순, 행동, 여러 정황들의 결합속에서 사건체계를 구성하였으며 그 모든것을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오영혜가 박기동을 생각하는 세부가 그 생동한 실례이다.

언제나 옷깃을 깨끗이 단정하게 손질하여 입고 목달개도 배꽃처럼 희게 달고다니는, 어찌 보면 불과 불이 오고가는 격렬한 전투마당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해말썽하고 단정한 박기동을 두고 오영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전투정황속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한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속에서 실지 있을수 있는 생활적인것이다.

사건체계의 기초로서의 갈등은 추상적인 모순이 아니라 개성적인것이며 그것은 인간성격으로 구현되어 표현된다.

작품의 사상주제적특성에 따라 형상된 시대와

생활의 다양한 양상속에는 항상 그 중심에 구체적인 인간이 놓여있다. 다시말하여 그 모든 다양한 생활현실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심리정서적특질이 반영되게 된다.

주인공 조순옥은 남편 강철우의 고향 울산을 해방하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님에게 인사드릴것을 꿈꾼다. 그러나 철우는 돌출부름 사수하기 위한 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된다. 조순옥은 강의한 의지로 슬픔을 이겨내며 남편이 싸우던 전투장으로 나간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용감히 싸운 후에야 남편이 묻혀있는 곳을 찾는다.

이 장면에서 조순옥의 감정심리에 대한 묘사, 남편의 봉분우에 빨간 꽃을 엮고싶어하면서 남편의 댁이 꽃으로 피어날수만 있다면 자기의 피로 물들여서라도 남편의 무덤가에 빨간 꽃이 피게 하고싶어하는 묘사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이와 같이 중편소설은 작품구성에서 등장인물들을 다양한 인간과 생활과 련계시키는 과정에서 그 모든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설정구사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개성화하고있다.

×

소설에서는 초상묘사, 주정토로, 삽입된 세부와 일화, 작가의 직접적인 언어로 되는 지문, 자연묘사... 등 다양한 수법이 성격창조에 리용되며 이것은 작품의 구성의 요소로 된다.

그러므로 구성과 성격창조의 관계를 분석고찰하는데서는 제반 형상수법들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편소설 《나의 사랑》은 이러한 창작실천적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정하게 긍정적인 시사를 주고있다.

일반적으로 작품형상에서 서정토로와 작가의 언어로 되는 지문이 성격을 부각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소설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부각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녀성들은 사랑이라는 두글자로 자기들의 세계를 쌓기도 한다. 그 세계에 들어서면 마음이 정화되고 슬픔도 노래로 이겨낼수 있다는것을 그들은 알고있었다. 그 억세고 신비한 녀성의 세계로 그들은 웅근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낼수도 있다는것을 스스로 깨닫고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흘리는 한방울의 눈물도 값없이 버리지 않는다. 웃음도 보배처럼 간직한다.》

이것은 영혜가 기동이를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내놓고 말하기 저어하는데 대한 심리묘사이다.

여기에는 사랑을 마음속 갈피에 간직하고있으면 서도 터놓기 저어하는 녀성고유의 성격이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할수 있는 거창한 힘과 모든 시련과 슬픔을 이겨내고 자기를 바치는 크나큰 헌신과 사랑을 지니고있다는 깊은 의미가 비껴있다.

《...전쟁이 아무리 이 땅을 파괴하고 불태워도 자연은 저렇게 자기의 생명력을 다해서 숲을 푸르게 하고있어요. 저 푸른 자연을 보니 사랑을 속삭이고싶군요.》

이 대사는 전쟁속에서 웃어야 할 일보다 침묵속에 참고견디어야 할 일이 더 많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게 차려진 행복한 어느 한 순간에 영혜가 순옥에게 한 말이다.

작품은 이러한 작가의 지문과 주인공들의 대사를 구성의 대에 생리적으로 맞물려 구사하고있다.

《동지애라는게 뭐겠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야, 혁명가들의 고결한 사랑.

우린 동지애의 력사로 이어진 우리 혁명을 사랑으로 이겨내야 해.

이 전쟁도 마찬가지야. 전쟁은 총으로 이겨내야 한다지만 우리 조선의 녀인들은 사랑으로 이 전쟁을 이겨내고있어. 조국에 닥쳐온 시련을 사랑으로 이겨내고있단 말이요.》

이것은 항일투사 최춘국동지의 말이다.

작품구성에 간간이 울리는 작가의 정론적주장과 등장인물들의 내부적체험세계를 반영한 이러한 철학적인 대사들은 작품의 사상주제적지향을 더욱 정서깊게 채색해주면서 감흥을 안겨주고있다.

《알날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슴속에 마음껏 펼치고사는 청춘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인가.

아무리 전쟁의 포화가 삼천리를 뒤덮어도 청춘만은 묻힐수 없었다.》

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청춘시절에 대한 이 묘사에는 조국과 청춘, 미래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사랑의 세계가 엿보이고있다.

이러한 대목들은 작품의 구성이라는 튼튼한 거목에 향기를 풍기며 우리 시대 청춘들의 참다운 사랑관을 정서적으로 깨우쳐주는 철학적이며 기쁨진 장면이다.

이러한 감동을 작품의 주인공 조순옥이 남편인 강철우의 봉분앞에서 추억의 심뇌를 토로하는 대목의 묘사에서 더욱 가슴치는 울림으로 받아안게 된다.

《그는 남편의 봉분우에 마음의 꽃이나마 드리 고싶었다.

성한 손을 꽃송이인양 봉분우에 얹어놓으니 저

러들던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하긴 이제 가을 이 가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총탄깎지와 포연 내가 습박한 저 봉분우에 제비꽃이 피어날지 어이 알랴. 만일 꽃이 핀다면 남편의 피가 스민 빨간 꽃으로 피어다오.》

순옥의 가슴속에 빨간 빛같은 신비하고 더없이 소중한 감정을 새겨주는 빛갈이었다.

그것은 조국에 나와 새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날 처음으로 덮었던 첫날이불의 빛갈이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첫날이불을 뜯어 공화국기발을 만들었고 남편은 최후를 마치는 순간에 그 기발을 통일된 조국의 하늘가에 날려달라는 당부를 순옥에게 남기였다.

바로 그래서 조순옥은 남편의 그 소중한 녀이 꽃으로 피어날수만 있다면 자기의 피로 그 꽃을 물들여서라도 남편의 무덤가에 빨간 꽃이 피게 하고싶어하는것이다.

작가의 서정적파악에 의하여 그려진 이 장면은 그대로 시이고 한쪽의 수채화같은 정갈한 화 폭이다.

포탄이 작렬하는 격전장에서 추억의 세계에 묻혀있는 조순옥의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는 앞으로 그의 영웅적행동을 낳게 하는 원천, 정신력에 대한 작가의 깊은 탐구의 열매인것이다.

중편소설 《나의 사랑》의 구성조직에서 또한 주목되는것은 구성의 다양성과 시점의 다각화를 옹계 실현한것이다.

소설에서는 작가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조순옥영웅과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며 전쟁의 불길속을 헤쳐온 교수 오영혜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순옥의 일기를 삽입하고 때로는 작가의 시점에서 직접 조순옥을 그리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시점을 다각화하여 여러 시점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구성의 립체미를 보장하고 작품의 흥미를 한껏 돋굴수 있게 하였다.

중편소설 《나의 사랑》의 구성에서 주목되는것은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선을 생활적으로 잘 형상한것이다.

주인공 조순옥의 형상뿐아니라 강철우, 오영혜들의 형상에는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선이 그들의 성격적기초를 이루고있으며 특히 최춘국, 림춘추, 지병학 등 항일투사들의 형상이 령도선구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이상에서 중편소설 《나의 사랑》을 구성의 견지에서 고찰하였다. 다른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장

# 속새골 대추나무집

리 찬 호

그 집은 눈에 띄우지도 않았다  
속새골 막바지  
침침 높은 산을 무겁게 이고  
박을 엮은 초가이영에 가난을 또 이고  
긴 세월 산골짜에 짓눌려있던 집

태어난 자식들조차  
고독에 진저리나 한가닥 꿈을 안고  
도시를 찾아 훌훌 떠나들버리고  
늙은 내외만 간신히 버티고사는 집엔  
맥빠진 연기 실오리마냥 오르던 집

언제부터였던가  
인적없고 세상이 외면하던  
이 산골집의 가난에 찌그러진 굴뚝에서  
인간의 삶이 약동하는 숨결인듯  
흰 연기 곧추 뿜어오른것은

미제를 쳐부시는 진격의 길에서  
이 산골짜에 들렀던 인민군대  
마을을 해방하고  
이 집의 넘어진 울바자도 세워주고  
무너진 토방도 번듯이 쌓아주었다

한생토록 살면서 군대를 많이 보아왔건만  
이런 군대를 보아왔던가  
운명처럼 뿌리박은 고독과 적막 가난과 슬픔을  
모진 꿈처럼 가져주고  
늙은 집엔 살뜰한 새 인정 가득 채워주었다

아버지라 어머니라 친근히 부르며  
세상에 어둠던 눈도 띄워주었고  
새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박이 열린 지붕우에 공화국기도 띄우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도 배워주었거니

무엇을 아끼라 그들을 위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잠시 들렀을 땐  
부엌의 솥을 비우지 않았다  
밤이면 전사들 이 집을 찾으라고  
광술불로 창가를 밝혔다

마가을 속새골 외진 대추나무집  
후방의 작은 병원이런가  
약탕판엔 향긋한 약초 끓는 냄비  
부상병들 상처를 가져주었고  
토방엔 대추가 병사들을 기다렸다

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군대  
주먹밥에 정도 담아보내며  
군대들 뒤시중에 바쁘던 집  
언제 오느냐 잊지 말고 들려달라고  
병사들 마음속에 고향의 집처럼 자리잡은 집

전쟁이 승리하면 삼간기와집 새로 짓고  
세상이 보란듯이 꾸려주리라  
고마운 그 신세 잊지 않고 갚으리라  
떠나는 발걸음에 감겨돌던 그 정이  
가슴에 맴히도록 가보지 못한 집이여

기다려달라  
해마다 전승의 날을 맞을 때면  
로병들 가슴의 번쩍이는 훈장속에  
속새골 대추집 광술불빛이 어려온다  
전사가요 《내 고향의 정든 집》선물을 타고  
산골짜 그 집으로 마음 달린다

세대를 이어 총과 함께  
통일의 사명을 넘겨받은 병사들아  
기어이 가닿을 남해기슭과 함께  
속새골 대추나무집도 잊지 말아라  
아, 언제든 그 집에 통일의 기쁨 넘치게 하라!

~~~~~  
점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이 중편소설의 형식에는 좀
과할 정도로 오랜 시기와 많은 인물들의 생활을
취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산만한감을 주는것, 인
물들의 과거사를 평균적으로 보여주려고 한것 등
일련의 부족점들이 있음을 지적하게 된다.

중편소설 《나의 사랑》은 작가의 깊이있는 탐
구와 노력이 낳은 우리 문학의 귀중한 열매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온 선
렬들의 고귀한 모범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
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안해의 풍경화



최 성 진
그림 김 광 석

림산사업소가 자리잡은 호수가둔덕우에서 제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는 그너머 소잔등처럼 생긴 산말기우에 떠서 파아란 호수며 대안의 산들을 비치였다.

나는 지난해에 때를 해체하면서 버린 토리개용물푸레나무가지들과 나무껍질들이 널려있는 물덕에 앉아 겨울을 난 산촌의 풍경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드넓은 산중호수의 기슭을 따라 채 녹지 않은 얼음이 비계층같이 허영게 달려있고 음침한 골안들에 지긋게도 남아있는 눈무지들이 흡사 북극의 웅크린 백곰을 현상케 하는 고장, 톱밥냄새 풍기는 제재칸에서는 투박한 인상의 나이지숙한 제재공이 방수포앞치마를 두르고 아름답드리통나무들을 켜고있는 여기 림산사업소마을은 내가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평양의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이 시작되면서 한동안 거기 나가있던 안해는 이 고장 무엇에 마음이 끌리였는지 벌써 반년째 여기 영평림산사업소를 새로운 현실체험지로 정하고 내려와 그림을 그리고있다.

나는 조금전부터 물비린내와 함께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싫어졌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배를 갈아타고 한나절이나 호수를 거슬러오르느라 찬바람을 맞아 몸살이 오려는 모양이었다. 하긴 그때문이 아니라도 나는 기분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이번출장길에 집 떠나 혼자 생일을 맞는 안해한

테 들러 내 잘못도 빌고 웅쳐있을 그 사람의 속도 풀어주리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하루 여유를 두고 떠났는데 일이 여의치 못한것이였다.

조금전에 나를 만난 제재공은 톱밥이 달라붙은 주름간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실으면서 《평양미술가선생을 찾아오셨다구요? 남편인게구만.》 하더니 인차 랑패한 표정을 지었다.

《색시 보고싶으면 좀 빨리 오실게지. 사흘전에 영포로 올라갔수다. 새로 생긴 작업소인데 평양의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에 통나무를 보장해야 하는 일때문에 거기선 지금 긴장한 전투를 하우. 원, 내인두! 여기 있으라는데 부득부득 올라가더니!》

나의 안해를 탓하는 소리였다.

일은 참 딱하게는 되였다. 새 작업소까지는 250리길이라니 안해를 만나겠다고 거기까지 찾아갈 시간의 여유가 나에게는 없었다.

부서에 보고한 날자까지 나의 출장지인 원암에 가닿자면 어차피 여기서 하루밤을 보내고 래일 열한시에 다시 온다는 려객선 《은정》호를 타야했다.

나의 사정을 안 제재공은 《우리 집에 가지요. 집은 불을 때서 따뜻하니 이 고장 특산인 도토리술맛이나 보구 오늘 밤은 거기서 폭 쉬시오.》 하고 후더운 토배기인심이 풍기는 소리를 했다. 그 말이 고마웠지만 나는 폐를 끼치는것만 같아 가까이 있는 려판에 들기로 했다.

림산사업소에 말해서 하루밤 숙식을 보장받을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사업소일꾼들이 새해에 들어와 첫때를 떠나보내게 된다는 영포작업소에 모두 올라간데다가 사실 안해의 이름을 내대고 신세를 지자는것도 사내로서 좀 무뎠던 일이었다.

해빛이 설피여지면서 산산한 기운이 돌았다. 나는 일어나 러판을 찾아갔다.

선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턱에 길다란 단층 건물인 러판이 있었다. 옛 루정과 이끼오른 성벽이 남아있는 풍치좋은 곳에 자리잡은 고색이 짙으면서도 아담한 러판은 《은정》호를 타고온 손님들이 다른 고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루밤씩 묵는 곳이었다.

호실을 배정받기 바쁘게 산뜻하게 꾸려진 러판 방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웠다. 방에는 나와 한 배를 타고온 손님 두명이 한발 먼저 들었는데 그들은 옛날에 변방의 무역중계지로 번성했던적이 있는 그곳의 유적건물들이며 고산지대특유의 저녁 풍경을 구경한다면서 나왔다.

나는 풍경구경을 나갈 계제가 못되었다. 이불을 푹 뒤집어쥔데도 그냥 오슬오슬 떨리었다. 따듯한 온돌방이 그리워졌다. 제재공아바이네 집에 갔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호젓한 러판방에 홀로 누워있자니 여러가지 생각들만 번거롭게 떠올랐다. 집에 두고온 딸애의 할쑥해진 자그마한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금방 앓고난 딸애이다. 이 아버지가 여기 들렀다가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다는것을 알면 그 애가 얼마나 서운해하랴. 그동안 딸애를 위해 뛰여다니며 마음썬준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에 젖어들었다. 그런 가운데 안해의 까칠해진 얼굴이 눈앞에서 얼른거리었다. 내가 영포에까지 올라가 만나지 않고 그냥 갔다는것을 알면 무정한 남편이라고 원망하지 않을까? 안해가 사흘 전에 영포로 올라갔다면 나와 전화를 한 그날에 자리를 폈다는것이 아닌가. 그때 아픈 말을 들은 것이 아직도 그 사람 마음에 걸려있는것이나 아닌가? 아, 내가 그날 무슨 정신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를 했담.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세대주인 나때문에만 생겨난 화단일가? 안해도 어느 정도 나를 이해해주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 사람이 언제 그런 고집쟁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지없이 소박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겠다고 하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약혼식을 하던 때의 일이 생각난다.

...그날 나는 약혼기념품을 사기 위해 처녀와 함께 백화점으로 갔다. 약혼녀에게 주는것이라면 우

선 처녀의 마음에 꼭 들어야 할뿐더러 일생의 추억으로 남을만 한 뜻깊은 기념품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번쩍이는 상품들이 진렬되어있는 매대를 찾았다. 그런데 내가 물건들을 고를 때마다 약혼녀는 새물새물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매장안의 값비싼 물건들은 다 싫다는 바람에 나는 은근히 속이 언짢았다.

나의 속을 뻥히 들여다보기도 하는듯 처녀는 생글생글 웃더니 《수건매대에...》하고 나직이 속살거리었다.

빨강고 노랑고 파아란... 갖가지 색깔고운 수건들을 걸어놓은 매대앞으로 나를 끌고간 처녀는 하늘색바탕에 나리꽃이 박혀있는 나이론수건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걸.》하며 처녀는 얼굴을 붉히었다.

나는 한순간 실망했다. 이 처녀가 바라는것이 그렇게 소박하단 말인가.

하지만 수건을 받아서 앞가슴에 꼭 대어보는 처녀의 얼굴에는 만족과 기쁨이 어리었다. 그것은 결코 꾸며낸것이 아니었다.

했건만 나자신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이 알찌근했다. 한생의 반려가 되여줄 처녀한테 약혼기념으로 나이론수건이나 하나 사주다니!

《화영이, 미안하오. 사내라는게...》

처녀는 의아해서 나를 뻥히 올려다보았다.

《미안하다는건 무슨 말씀이세요?》

《화영인 그 수건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랬소? 이담에 살면서 옛말하지 않겠소?》

《어마나! 수건이 어쩡다구요? 난 이 수건이 좋아요. 그림그리러 현지에 나갈 때면 이런 수건이 하나 있었으면 했겠어요, 꼭 이런 색깔의 수건을요.》

《정말이요?》

처녀는 대답대신 깨끗한 웃음을 두눈에 담뿍 실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리고는 행복에 겨워 속삭이였다.

《꼭 연구사업에서 성공하세요. 동진 머리가 좋아서 원사두 될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음...》

《또 뭘 바라오?》

《더 바라는건 없어요. 동지의 성공을 위해 이 명화영이도 힘껏 돕겠다는 말을 하려했어요.》

안해는 그때 진심을 말했었다.

하지만 생활이란 꼭 때 인간들이 원하는대로만 흘러가는것은 아니었다. 결혼해서 몇해 지나지 않아 우리들사이에는 언짢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느해에 있는 일이었다. 연구사업때문에 랑

림지구에 나가 스무날동안 체류하고 돌아오니 집이 비어있었다.

책상우에는 《달님이 아버지, 미안해요. 그림 그리러 현지에 나가요. 달님은 평천에 있는 동생네 집에 맡겼어요.》하고 급히 쓴게 분명한 쪽지글이 놓여있었다.

안해없는 빈집은 해없는 하늘과 같다는 말은 틀림없이 이런 경우를 체험한 남자들이 생각해냈을 것이다.

한동안 주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방안은 별로 썰렁해보였다. 더우기 먼 출장길에 수고했다며 따듯이 맞아주는 안해의 살뜰한 미소를 볼수 없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출장가방을 내려놓기 바쁘게 안해가 채 치우지 못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방안의 먼지를 닦아 내느라 분주히 돌아갔다. 그때 옆집에 사는 녀인이 찾아왔다. 그 녀자는 안해의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거두매질하는 나를 보더니 끝끝 허를 찼다.

《예구, 임자처는 도대체 뭐가? 사내가 출장을 갔는데 딸애는 제 이모한테 맡겨놓고 저까지 언뻘 출장을 가다니. 집안이 뭐가 되겠나? 량심이 없다니까, 없어.》

드문치 무슨 의견이라도 있는듯이 말하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녀인이었다.

나는 속으로 집을 비워놓고간 안해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던 때였지만 옆집녀인의 말에는 은근히 화가 동했다. 내외가 사회일을 하느라 바쁘면 이런 일도 간혹 있는것이지 제가 뭐라고 남의 안해를 두고 량심이 있다 없다 한단 말인가!

집안거두기를 끝내고 평천에 있는 딸애한테 전화하여 엄마가 돌아오면 함께 데리러 가겠다는 약속까지 했을 때 인민반장이 찾아왔다. 퇴근후에 인차 인민반모임이 있다는것이였다.

세대별수매정형을 총화하는 모임이였다. 총화 결과는 우리 7층 7호집이 마지막으로 세번째 자리였다.

나는 인민반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웠다. 안해때문이지. 그 사람만 있었으면 인민반녀인들앞에서 오천세가 이런 한심한 꼴은 보이지 않았을게 아닌가.

안해는 한주일후에야 출장지에서 돌아왔다. 그 사이에 안해는 얼굴이 많이 축가고 해별에 까뭇이 났다. 입술은 부르르기까지 했다.

북방의 사나운 기후가 안해의 모습조차 변모시킨듯싶어 나는 속이 아릿했다.

《언제 돌아오셨어요?》 상글상글 웃는 얼굴

에 정을 가득 실으며 안해가 물었다.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떨리였다. 우리 두사람은 엇갈려 출장을 가다니니 한달은 떨어져산것이였다.

안해는 깨끗이 정돈되어있는 방안을 둘러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달님이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하고 말했다. 급하게 출장을 떠나다보니 미처 집안을 거둬놓고 갈수 없었노라고 변명도 했다.

그리고는 그 보상이라도 하듯 가지고온 짐들을 꺼내놓으며 당신은 갔던 일이 잘되었어요? 출장지에서 앓지는 않았어요? 거기 기후가 어드래요? 하고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물었다. 그리고는 먼 출장길에 쌓인 피로도 잊은듯 탄력과 생기에 넘쳐 부엌으로 나가 동자질을 시작했다.

고소한 냄새가 풍기였다. 역시 집에는 주부가 있어야겠다. 안해가 돌아오자마자 따듯하고 즐거운 기운이 돌지 않는가.

안해는 지방특산물이라고 가지고온 한되박남짓한 농마가루를 절반은 평천에 사는 제 동생네 뭍으로 갈라놓고 그 나머지에서 조금 덜어내어 나와 딸애가 좋아하는 기름튀기를 하였다.

딸애도 데려왔다.

저녁밥상에는 기름튀기밖에도 도시생활에서는 흔치 않은 더덕이며 도라지며 두릅이며 하는 산나물무침들과 말린 산천어료리까지 올랐다. 안해는 자기의 크지 않은 출장배낭속에 먼 산촌의 향기를 가득 넣어가지고온것이였다.

밥상을 물리기 바쁘게 안해는 딸애와의 사업부터 시작했다. 그사이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보고 학습장점열도 했다.

딸애를 잠재운 다음에는 현지에 나가 그려가지고온 그림들을 방안가득 퍼놓았다. 대체로 현지에서 로동하는 사람들을 속사하거나 소묘한것들이였다. 안해는 그 많은 그림의 주인공들에 대하여 나에게 회열에 넘쳐 말해주었다. 들어보면 자기의 습작품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애착과 지어 긍지감을 가지고있는듯 한데 나는 어느 정도 실망감을 느끼였다. 처녀때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릴것처럼 말하던 안해가 아닌가. 미완성습작품들을 놓고 흥분하다니!

그날 저녁 우리사이에는 약간한 마찰이 있었다.

결코 범상치 않은 심경이라고 할수 있는 그 불은 실상 내전에서 지른것이였다.

《참, 좋구만! 여보, 당신은 좋지 않소?》

안해는 습작품들때문에 생겨난 조금전의 서운한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한채 나를 망연히 바라보다

가 《뭐가 말이예요?》하고 물었다.

안해의 심사를 이해하고 나는 너그럽게 웃었다.

《이렇게 우리 세식구가 함께 있으니 말이요. 그런데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기분이 설똥해진다니까.》

안해의 눈에는 한가닥 의혹이 실리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하자는거예요 하는 심리가 분명했다.

《여보, 당신이 현지에 나가 그림을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한 좋은 감정을 품고 오는건 좋은 일이요. 하지만 당신은 주부요. 내가 늘 집을 나가살다싶이 해야 하는데 집안살림을 맡아야 할 내 무대신까지 덩달아 출장을 가서 집을 비워놓으면 어찌겠소. 허, 내참! 그것때문에 옆집 정호 엄마는 마치 우리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것처럼 말하더구만. 물론 당신이 없는 사이에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일을 한다든가 인민반모임에 참가하고 수매소나 식료상점에 가야 하는게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요.》

《여보 달님이 아버지, 정말 당신은 무슨 말을 하시려는거예요?》 안해의 갈죽한 얼굴에 신중한 빛이 떠올랐다.

나는 문제소리를 뱉아놓은 혀를 저주했다. 사실 나는 안해의 온기가 습배이는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를 원하는 리기적인 목적에서 그 사람을 집에 꼭 붙들어두자고 그렇게 말한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안해는 당치 않은 오해를 한게 분명했다.

《달님이 엄마.》 안해의 인격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될수록 부드럽게 말했다. 《생각 좀 해보오. 난 연구사요.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농업과학자들이 제구실을 해야 할게 아니겠소. 당신은 과학자의 안해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나를 당신이 이해해주었으면 하오.》 성공한 과학자의 뒤에는 훌륭한 안해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집안일때문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소비하는것만큼 연구과제수행이 늦어진다고 말하려다가 이번일을 야박스럽게 꼬집는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즈음 나는 학계의 관심을 끄는 가치있는 논문을 발표하여 학위를 받았다.

나는 그 성과로 하여 연구소적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젊은 연구사》라는 좋은 평을 받았으며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해나가는데 기여할 새로운 연구과제를 맡게 되었다.

탐구의 기관차는 한동안 기세좋게 전진하여 결에서들 장차 학계에 지진파를 일으키게 될거라고 들 했다. 그랬던것이 종착역을 조금 앞두고 가파

로운 령길이 나타나 한자리에서 헛바퀴질을 하고 있는것이다. 각이한 지대에서의 시험재배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령해가 심한 고장에서는 수확고가 떨어진다는것이 확인된것이였다.

내가 고민하고있을 때 연구소적으로 판독이 인정되는 박사가 방에 들리었다.

《동문 대학때 강생이대 때 마디에 이삭이 달리는 품종을 만들어낼 꿈을 꾸었다더군. 동무가 지금 하고있는 다수확품종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는 새 품종의 벼종자를 또 하나 보유하게 될게 아니겠소. 참, 우리 과학계를 한번 둘러보오. 얼마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소?》

기계공업분야에서의 CNC기술이며 생물공학분야에서 요즘 한창 소개되고있는 여러가지의 놀라운 성과들... 고정하면서도 생각을 깊이하는 박사가 그것들을 새삼스럽게 펼쳐하는것은 어느것이나다 순풍에 돛단듯이 이룩된것이 아니며 피와 땀을 바쳐야 하는 탐구의 열매라는것을 나에게 인식시키자고 해서이리라.

마지막령마루를 오르지 못해 신심을 잃었던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헛눈 팔새없이 강행군하자. 탐구의 기관차여, 성공의 령마루를 향해 용감히 앞으로! 한가지가 우려되었다. 안해도 현지에 나가야 할 사람이니 만약 이번과 같은 일이 앞으로 종종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연구사업에만 집중할수 있겠는가.

안해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라의 농업발전에 기여해야지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먹는 문제를 푸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요 뭐. 그런데 당신은 제 안해의 일은 하찮게 여기는구만요.》

안해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어찌면 안해에 대한 이 오천세의 사랑자체가 식어버렸다고 단정하는것은 아닌가?

나는 황황히 《여보, 당신은 내 말을 잘못 듣고 오해를 하는구만. 사실이야 당신의 일도 중요하지. 렴브란뜨나 다 빈치의 작품들을 보란 말이요, 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인류는 귀중한 재보로 전하고있지 않소.》하고 말했다.

안해는 언제 심란했던가싶게 깔깔 웃었다.

《온참, 당신은 우리 나라에는 어떤 유명한 미술가들이 있는줄은 모르는것 같군요.》

그리고는 웃음을 그치고 약간 심각해서 말했다.

《여보, 당신한테 다시는 부엌일 같은 집안일을 시키지 않겠어요. 수매소나 식료상점에도 가지 않게 하겠어요. 그저 연구사업에만 몰두하세요. 꼭 성공해야 해요. 최첨단을 돌파하고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 뜻이 아니예요.》

안해는 이튿날부터 퇴근하면 집안꾸리는 일에 달라붙었다. 인민반에서도 7월11일붉은기인민반 칭호쟁취를 위해 꾸리기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안해는 이 기회에 집안을 아예 일신시킬 계획을 세웠다. 내가 연구사업때문에 교외에 나가있다가 돌아와보니 안해는 그사이에 집을 눈이 번쩍 뜨이게 꾸려놓았다. 낡은 벽지는 뜯어내고 눈부시게 흰 물뽕끼를 발랐으며 창문유리들을 알뜰알뜰하게 닦고 가구들도 균형맞게 다시 배열했다. 꽃송이들이 금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동백나무화분도 새로 구해다놓았다. 수매소에 아무때건 가져갈 수 있게 빈병이나 파지, 수지쫓박 같은것들을 구렁지에 넣어 배란다의 잘 보이는 곳에 놔두었다. 다음달수매정형총화에서는 우리 집이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안해는 연구사업을 하는 나에게 가정적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단단히 결심을 한 모양이었다.

며칠후 안해는 퇴근하자바람으로 《달님이 아버지!》하고 무척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다. 무슨 기쁜 일이라도 생긴것 같았다.

알고보니 안해의 풍경화작품이 전국미술축전에서 입선했다는것이였다.

안해는 나에게 자기의 첫 입선작품을 보여주고 싶어했다. 하여 나는 귀중한 시간을 짜내여 안해와 함께 미술전람회장을 찾아갔다.

안해가 궁지를 가지고 말하던 작품이란 《북방의 봄》이라는 소품의 아담한 조선했었다. 계곡에 소봇이 피어난 버들개지를 근경으로 주면서 산골포전에서 트랙토르로 실어온 거름을 부리우는 농장원들의 랑만에 찬 작업모습을 그린것이였다. 녀성다운 섬세한 필치로 봄을 앞당기는 북방농촌의 정서를 살린 그림이였다. 승리의 대축전장을 향해가는 우리 조국의 랑만과 희열이 북스럽게 피어난 버들개지와 계곡의 얼음을 녹이며 용용 흘러가는 물소리에 실려오는듯 했다.

생활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그리고 예술이 주는 감흥이란 얼마나 놀라운것인가! 호화로운 꽃의 제왕들이 명예와 미를 자랑하는 화원속에 피여있는 한떨기의 금전화라고 할가. 대가들의 작품들로 들어찬 황홀한 색깔의 세계에서 안해의 풍경화란 보잘것없이 자그마하지만 확실히 제나름의 빛을 당당히 뿌리고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열과 랑만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는 이 한폭의 풍경화를 완성하기 위해 북방의 사나운 바람과 피약별을 받으며 안해가 기울인 노력은 그 얼마이라.

《그림이 좋구만! 당신이 자주 현지에 나가다니며 고생하더니 성공했소. 축하하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칭찬의 말을 했다. 안해를 기쁘게 해주고싶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안해의 입에서는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술전람회장으로 갈 때까지만 하여도 궁지에 넘쳐있던 사람이 아닌가.

《아니예요! 달님이 아버지, 전 이자 강성국가의 평마루로 치닫는 우리의 현실이 살아맥박치는 수많은 명화들을 보면서 제 작품은 아름답고 거창한 선군시대를 담기에는 부족한게 너무도 많다는것을 느꼈어요. 희천발전소건설장이라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사과꽃풍경이라든 그린 풍경화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나는 정말로 락심해하는 안해가 측은하게 생각될 지경이였다.

《여보, 어쨌든 축전에 입선하지 않았소. 심사위원회에서두 보는게 있어서 입선시켰겠지. 그리고 말ियो, 이제 래년엔 더 훌륭한 풍경화를 내놓으란 말ियो. 당신은 재능도 있고 이악쟁이이니 그렇게 할수 있을거요.》

안해의 얼굴이 그제서야 밝아졌다.

그러던 어느날 그동안 평천의 작은이모네 집에 살며 소학교에 다니던 딸애를 통일거리 우리 집에 데려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 애를 데려다가 극진히 돌봐주던 작은이모가 남편과 함께 몇해기한으로 해외에 나가게 된것이였다. 자기도 바쁘지만 우리 부부가 다 출장이 잦다고 한동안 달님을 맡아준 고마운 처제였다.

어찌 보면 딸애가 집에 와있게 된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늦게 퇴근하여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 애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 피곤 같은것은 말짱 사라지고 새로운 사업의욕이 생겨나는것이였다.

달님을 데려온지 겨우 한주일째 되는 날 퇴근해온 안해가 무척 미안해하며 현지에 나가야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대뜸 속이 좋지 않았다. 내가 연구사업때문에 열흘쯤 자리를 뜰 계획인데다가 한달 못미처 안해의 생일이었던것이다. 그날은 우리 세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즐겁게 생일축하노래를 부르자고 바로 이튿전에 약속을 했었다. 그 계획을 안해가 뒤집어놓으려고 하니 내 기분이 유쾌할리 없었다. 더구나 안해가 출장을 가면 어차피 내가 발목을 잡혀 딸애를 돌봐야 하지 않겠는가.

《달님이 아버지, 어찌했어요. 이번에 꼭 가지 않으면 안돼요.》 안해는 리해해달라고 꼭진히

말했다.

나는 양보하고말았다. 그동안 시외에 있는 시험 농장에 다니면서 연구사업을 하리라 생각했다.

안해는 돌아와서 생일을 꼭 함께 쇠자고 딸애와 약속하며 북방의 립산사업소로 다시 떠나갔다. 안해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의 생일날이 다가왔다. 서둘러 생일음식을 준비했다. 요즘 소문난 삼일포 특산물상점에도 다녀오고 보통강상점에 가서 향기롭고 큰 사과도 사왔다. 딸애가 엄마생일에는 꼭 짜배기와 함께 과일단졸임을 넣은 빵을 해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런것들도 사들이었다. 안해는 단음식을 좋아했다.

며칠후 영평립산에 출장이있는 안해한테서 전화가 왔다. 안해는 집에서 앓는 사람은 없는가, 찬거리가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당신 연구사업은 잘 돼가는가, 달님은 학교에 잘 가는가 하고 별스레 많은것을 물었다. 아마도 집을 두고 먼 출장지에 가있자니 세대주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집안 일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것이다.

컴퓨터앞에 앉아있던 딸애가 어느새 제 엄마한테서 온 전화인줄 알고 달려들어 무작정 송수화기를 빼앗았다.

어머니와 딸이 주고받는 대화를 곁에서 듣느라니 차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해는 새삼스레 딸애의 하루일과에 대해서며 학습정형이며 그밖의 집안일에 대하여 물어보는것이였다. 그러다가는 걱정도 하고 핀잔도 했으며 무엇무엇은 어떻게 하라는 등 마음쓰는 소리도 했다. 안해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긴것이나 아닌가? 혹시 출장지에서 병을 만나 앓아누운것이나 아닌지... 사람이 앓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곁에 없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워진다지 않는가. 불안했다.

나는 급기야 딸애의 손에서 송수화기를 나꿔채며 말했다.

《여보, 당신 거기 가서 앓는게 아니요?》

《내가 앓기는 왜 앓는단 말이에요.》 하는 안해의 핀잔기어린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나에게는 왜서인지 안해의 심기가 편안치 않은듯이 느껴졌다. 불안을 털어버리지 못하면서 언제 돌아오겠느냐고 물었다.

인차 응답이 없었다.

한참만에야 안해는 몹시 힘들게 말했다.

《달님이 아버지, 미안해요. 집에 가서 생일을 쇠것 같지 못해요.》

나는 자기도 모르게 큰소리가 나갔다.

《당신 무슨 소릴 하는거요? 달님이하고 한 약

속은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오.》

《...》

《여보, 듣소?》

나는 정말이지 화가 꼭뒤편까지 치밀었다. 사람이 어쩌면 집안사람들의 성의를 그렇게까지 몰라준단 말인가.

《당신 영평에만 나가있더니 집사람들에 대한정이 식어버린게 아니요? 당신 마음대로 하오. 섭섭하구만!》

아,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 모진 말을 했단 말인가! 안해의 가슴에 아픈 곳이 될수 있는 말을.

딸애가 《엄마야!》하고 찾으며 다시 송수화기에 매달렸다. 《엄마가 보고파요. 엄마, 생일날엔 꼭 돌아와요. 동무들과 함께 우리 엄마 생일날에 노래를 불러드리자고 약속했어요.》 딸애는 그밖에도 울음섞인 소리로 더 말했는데 나에게는 한마디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가슴속에서는 노여움만 끓어올랐다.

전화는 끊어졌다.

그날 밤 딸애가 갑자기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면서 앓기 시작했다. 낮에 동무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 놀다가 철없는것이 비를 고스란히 맞아가지고 들어오더니 감기에 걸린것 같았다.

나는 앓는 딸애의 곁을 뜰수 없어 인민반장한테 말해서 병원의사를 부르게 하는 한편 중학교동창생인 친구한테도 알리었다.

생활의 모든 물체에 막히는것이 없는 친구는 연구사업 하나에만 빠져있는통에 생활에서는 문맹자라는 말을 듣곤 하는 나에게 자주 유익한 방조나 조언을 주곤 했다.

의사의 왕진을 청했다는 말에 친구는 대뜸 화를 냈다.

《참, 한심하구만. 의사가 오기를 기다리고있단 말인가? 이제 당장 애를 엽구 병원으로 가야지. 자, 빨리 내 말대로 하라구.》

하여 딸애를 엽고 집으로 나서려는데 의사가 왔다.

딸애는 그때 벌써 거의 의식을 잃고있었다. 새까맣게 죽은 입에서는 신음소리와 함께 엄마를 찾는 소리가 가냘프게 새어나왔다.

딸애는 급성폐염이였다. 담당의사가 체때에 와서 구급치료를 하여 바쁜 고비는 넘기였다. 딸애를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였다.

딸애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정신없이 엄마만 찾았다. 땀에 폭 젖은 어린 몸이 당장 어떻게 되

는것만 같아 겁이 났다. 이런 때 딸애의 곁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엄마의 체취를 가까이에서 느끼기만 해도 딸애의 병이 꼭 떨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속으로 출장가있는 안해를 원망했다. 《달님이 아버지, 미안해요!》하던 안해의 목소리가 다시금 울리는것만 같았다. 그 사람은 딸애가 중하게 앓고있는줄은 모르고 지금도 그림에만 정신이 팔려 화판을 마주하고있는지도 모른다. 그래, 달님아, 이제 엄마를 불러오자꾸나, 엄마도 우리 달님이야 앓는다는걸 알면 당장 달려올거다, 달려오구말구.

나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딸애를 치료할 때 입원실을 빠져나와 전화로 안해가 가있는 영평림산사업소의 교환을 찾았다.

평양에서 내려가있는 명화영이란 미술가를 찾습니다 했더니 반색하는 애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미술가동지네 집이에요? 아니, 어찌나! 미술가동진 어제 저녁 회계원아주머니네 집에 갔어요. 아직 그 집에 있을거예요. 그 아주머니네 조카가 미술대학입학시험준비를 하는데 화영미술가동진 그 애의 그림을 보여주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난 교환대를 뜯수 없단 말입니다.》

안해가 영평에 꼭 가야 한다더니 그 일때문이었구나!

《동무, 그래도 무슨 연락방법이 있지 않겠소.》
교환수는 한숨을 푹 쉬는것 같았다.

《어찌나! 저... 무슨 일때문인지 제가 후에 전 달해주면 안됩니까? 우리 화영동지 만나면 뭐라고 말하랍니까?》

《우리 화영동지》라구? 어쩐지 그 말에 가슴한기가 찢어졌다.

나는 갑자기 머리속이 번거로워졌다. 딸애가 앓는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속이 새까맣서 정신없이 달려올 안해의 모습이 눈앞에서 얼른거리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교환수동무, 뭐 별로 특별한 일이 생긴건 아니요. 그저 우리 그 사람에게 울수 있으면 약속된 날자에 돌아오란다고 전해주요. 딸애가 제 엄마를 보고싶어해서 그러요.》

나는 그렇게 말해버린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알수 없었다.

자신에 대한 까닭모를 불안을 느끼며 입원실로 돌아오니 그사이에 중학동창생이 와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나의 딸애가 걱정되어 달려온 것이었다.

조금후에는 인민반장도 왔다. 그는 입원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침상에 다가와 근심이 가득한 눈으로 딸애를 내려다보았는데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그 녀자도 달님이때문에 간밤 눈을 별로 붙여보지 못한것이였다.

딸애는 주사를 맞고나서 열이 조금씩 내리였다. 아침에는 숨소리가 고르로와졌다. 해가 솟고 입원실안에 밝은 빛이 가득 서릴 때 딸애의 입에서 《엄마!》하는 가냘픈 소리가 흘러나왔다. 단잠에 든 딸애가 꿈속에서 자기의 소중한 품을 찾는 소리였다.

평온이 실린 딸애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는 목이 메어왔다. 나에게세 새삼스럽게도 이 땅의 모든 인간들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 그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하게만 생각되는 아침이였다.

나는 안해에 대하여 생각했다. 안해한테 미안하고 무엇인가 죄를 지은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이 보고싶었다. 북방의 거친 바람에 까칠해지고 살이 빠진 얼굴, 그러면서도 생기에 넘쳐있는 정다운 얼굴...

날자를 꼽아보니 안해의 생일까지는 한주일이 남았다. 그때까지 돌아올가? 《미안해요!》하던 안해의 갈린듯 한 목소리가 다시금 귀전을 울리는 것만 같다. 내가 안해한테로 가면 안될가?...

나는 연구중에 있는 다수확벼종자의 시험재배지로 북방의 농촌지대를 한군데 더 선정해놓고있었는데 그곳의 현지확인인 다음달에 하기로 되어있었다.

딸애는 이틀후에 열이 완전히 떨어졌다. 입맛도 돌아섰다. 나의 고마운 중학동창친구가 신선한 과일이며 빵을 가져오고 옆집아주머니가 아침저녁으로 입맛 돋구는 음식들을 날라왔다.

나는 북방의 농촌지대에 출장가는것을 앞당기겠다는것을 부서에 제기하여 승인받았다. 사람좋은 실장은 나의 계획변동에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사업상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지.》하고 승인을 했는데 실은 사업도 사업이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게라고 짐작한 것 같았다.

정작 출장을 떠나자니 딸애의 일이 마음에 걸리였다. 엄마도 곁에 없는데...

평리한 딸애가 제격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아버지, 나 이제 아프지 않아요.》 하며 해죽해죽 웃었다. 또 병원에 왔던 인민반장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애야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리. 달님인 걱정말구 출장가야 할 일이면 가라구.》했다. 그러자 옆집녀인이 혀를 끌끌 찼다.

《예구, 임자네들은 어떻게 된건가? 전번에두 그러더니 또 경쟁이나 하듯 출장을 가나?》

이번에는 그의 지청구가 싫지 않았다.

딸애는 내가 이번출장길에 영평에 들릴 계획이라는것을 알고 제 엄마한테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쓰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해요. 엄마한테 꼭 사과단졸임 넣은 빵을 사가지고 가야 해요.》하고 그 애는 명령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출장준비를 했다. 새벽녘에 역으로 나갔다.

나는 영평에 들린다는 전화를 안해한테 하지 않았다. 안해가 예견치 않던 때에 기쁨을 안겨주고 싶어서였다.

렬차를 타고 한나절을 가고 이튿날 해뜰무렵에 영평쪽으로 올라가는 려객선 《은정》호에 몸을 실었다.

산중의 바다라고 할수 있는 드넓은 호수를 거슬러오르면서 나는 안해에 대하여 생각했다. 이제 내가 불쑥 나타나면 깜짝 놀랄 안해의 커다란 검은 눈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어떻게 왔어요? 오면서 고생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달님이는 학교에 잘 가요? 당신까지 떠나왔으니 그 애 혼자 있겠군요!... 혹시 안해의 가슴속에는 그때 전화를 받고 웅친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을까? 아니, 나는 안해를 안다. 노여움이나 고까운 감정을 오래 꿈겨두지 않는 안해이다....

갑자기 밖에서 웬 남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려관직원과 만나는것 같았다. 새 손님이 접수하러 왔거나 아니면 바깥풍경을 구경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가보다 했는데 우리 호실의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걸걸한 목소리의 임자가 《화영미술가의 남편이 아닙니까?》하고 물었다.

나는 머리까지 푹 뒤집어쥔 이불을 밀어제끼며 황급히 일어났다.

몸이 난 오십대의 혈색좋은 사나이가 어느새 들어와 문가에 서있었다. 초면의 사나이였다. 그는 의아해하는 나에게 소탈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거방한 체격에 어울리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맞지요? 중국에 회의갔다가 돌아오니 평양에서 우리 화영미술가의 남편되는분이 내려왔다고 하질 않겠습니까. 아참, 내 여기 립산사업소 지배인이요. 한데 원, 이런 법도 있소? 화영미술가의 남편이 영평에 왔으면 웅당 우리 사업소에서 자야지 려관신세를 지다니요.》

굵은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대번에 잡아끄

는 친화력이 있었다.

화영미술가의 남편이기때문에 자기네 사업소에서 자야 한다는 그 말이 나를 좀 무뎡하게 했지만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않을수 없었다.

《동문 안해때문에 불만이 좀 있지요?》

사업소로 향하며 지배인이 생뚱같이 물었다.

그 말에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화영미술가의 남편이라고 일부러 찾아와 나를 데려가면서 그런 말은 왜 한단 말인가? 혹시 안해가 여기 내려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를만 한 무슨 일이라도 친게 아닌가?

지배인이 나를 돌아보며 빙긋이 웃었다.

《달리 생각지 마오. 난 화영동무에 대해서가 아니라 동무에 대하여 말하는거요. 사내들만이 사내들을 리해하지, 안 그렇소?》

그는 다시금 나를 향해 웃음을 지어보이고나서 《안해가 직장에 나가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바빠 살면 남자한테두 궁지스러운 일이지.》하며 지배인은 사업소마당가에 있는 속보판앞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낮에 안해를 찾아왔다가 무심히 지나친 속보판이었다. 그앞에 댓명의 남녀가 모여있었다.

지배인이 나를 거기로 끌고간 까닭이 리해되었다. 속보판에는 안해의 그림들이 스무장도 넘게 가득 붙어있었다. 대체로 작업복바람으로 일하는 로동자들을 속사하거나 소묘한것인데 그가운데는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만났던 나이많은 제재공의 모습도 있었고 안해가 평양의 집에 가지고왔던 습작품들에서 익힌 얼굴들도 있었다.

《그, 화영동무 말이요.》 속보판앞을 떠나오면서 지배인이 말했다. 《여기 내려온 첫날부터 로동자들과 함께 스스로없이 지내면서 일손도 도와주고 짬짬이 그림도 그렸소. 여기 립산사업소 일이라는게 쉽고 깨끗한 일은 못되오. 그래도 화영동문 항상 밝은 낮으로 로동자들과 섞쫄리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따르며 위해주었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그렸지. 그런 그림들로 저렇게 전시회를 열었다우. 그런데 말이요, 어느날 영포작업소 소장이 사업소에 내려왔다가 바로 화영미술가의 저 그림전시회를 보았소. 그 소장은 사업소적으로도 오랜 류벌공이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림 전시회에 자기네 작업소 로동자들을 그린 그림은 하나도 없다고 못내 서운해하지 않겠소. 그래 그 사람이 화영미술가를 만나 말했다우. 〈이보우, 미술가선생! 우리 류벌공들이라는게 늘쌍 떼우에서 살며 사나운 물과 싸우는 사내들이요. 그래 성미들은 갈범처럼 사나운데가 있지만 하나같이

일밖에 모르는 좋은 사내들이지요.

내 욕심 같아서는 미술가선생을 우리 영포에 모셔다놓구 우리 친구들이랑 거기 산경치랑 그리게 하고싶지만 거긴 사내들이나 살 곳이지 꽃같은 평양내인이 가있을 곳이 못되니 어찌겠소.

내 부탁 하나 들어줍세. 며칠후에 우리 작업소에서 첫째를 띄우게 되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통나무들을 끌고내려오면 그네들을 붙잡아놓구 그림 한장씩 그려주시오. 그 그림들을 저 속보판에 함께 붙여달란 말이지. 평양에서 열린다는 전시회에 나붙으면 더 좋구요. 그러문 우리 친구들을 온 나라가 다 볼게 아닌가요.) 하면서 형감은 껄껄거리었소.

사실 거기서 우리 사람들이 수고하오. 지금 나라에 나무가 필요되는 곳이 얼마나 많소.

만수대지구에도 웅장한 초고층살림집들이 한창 일떠서고있지 않소. 강성국가의 모습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것만 같소. 거기서두 나무가 필요할게거든.

화영동무는 말이요, 바로 그 소장이 철을 앞당겨 첫째를 띄우게 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먼 작업소까지 찾아올라갈 결심을 한거요. 때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이요. 그통에 소장이 바빠맞았지. <보오, 미술가선생. 거긴 여기하구두 다르다오. 고개를 잔뜩 뒤로 제껴야 하늘을 볼수 있다니. 사방 높은 산으로 막혔다 그 말이요. 출고 신설이여서 내인이 거접할 곳이 못된다니.>

그런데도 화영미술가는 <일없어요. 난 첫째가 내리는걸 보고싶거던요. 그림도 그리고 때도 타보고싶어요.> 했다우다. 하긴 전쟁때 녀자들도 때를 땀지요, 허허. 거긴 연구사라지요? 여기까지 왔다가 안해를 만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겠지만 집사람을 나무라지는 마오. 우리 화영미술가가 쉽지는 않은 녀자요.>

지배인은 나의 안해가 생활하던 호실을 보여주었다. 바지런하고 깨끗한것을 좋아하는 안해의 체취가 어려있는듯싶은 정갈한 방이었다.

지배인은 영큼하고 생활의 리치를 속속들이 터득한 속깊은 사나이같았다. 그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여기에 들렀는가도 다 넘겨짚는것이 분명했다. 합숙방에서 동석식사를 하면서도 나의 안해에 대한 좋은 말을 많이 했다. 그의 말자루는 줄어들줄 몰랐다.

그 사람은 재채기를 한번 하는 나를 보고서는 합숙책임자녀인을 불러 불을 따뜻하게 때주라는 지시를 했다. 그리하여 나는 생각지 않게도 더운 방에서 땀을 내게 되었다. 생소한 작업소에 올라가있을 안해에게 생각이 미치였다. 거긴 출고 생

활조건도 불리하다지. 안해는 이밤을 어떻게 보낼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래일 저녁에는 어떻게 하나 목적지에 가닿아야 할텐데. 번거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가운데 이제 출장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되새겨보았다.

그날 밤 나는 화영미술가의 남편인것으로 해서 사람단련에 지칠 지경이 되었다.

지배인이 돌아간 후 반시간도 못되어 낮에 제재칸에서 만났던 투박해보이는 제재공이 찾아오고 사업소 직관원이란 청년이 찾아왔으며 며느리가 회계원을 한다는 가구작업반의 도장공녀인이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마치 위급하게 앓는 환자이기라도 하듯이 성의껏 만든 음식들과 열내리는데 좋다는 약들을 가지고 왔다. 그 극진한 환대는 두 말할것없이 내가 평양미술가의 남편이기때문이었다.

나는 웅색하다못해 자신이 꼭 바보가 되어버리는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했다.

합숙에 찾아온 사람들은 나의 안해가 사업소로 동자들과 어울려 일하면서 그림을 그리던 이야기며 직관사업을 도와주느라 애쓰던 이야기, 학교미술소조에 속해있으면서 장차 세계적인 미술가가 될것을 꿈꾸는 손자녀석에게 매일 밤 늦도록 개별 지도를 하여 미술대학에 가게 한 이야기며를 장시간씩 들려주었다.

바로 그 미술수재학생의 할머니이며 회계원며느리를 둔 도장공녀인이 가져온 토봉꿀을 더운물에 타서 한사발이나 마시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땀을 내고나니 이튿날 아침에는 몸이 날아갈듯 거뻗혀졌다.

오전 열한시에 나는 나의 안해 평양미술가를 잊지 못해하는 친근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떠났다.

내가 탄 《은정》호는 작별의 인사마냥 유정한 고동소리를 길게 울리면서 호수를 거슬러오르기 시작했다. 파아란 호수물이 해빛에 반짝이였다. 말쑥한 태양이 닦은듯 개인 하늘에 등실 떠서 드넓은 누리에 따사론 빛을 아낌없이 뿌려주었다.

나는 고물쪽에 서서 유별난 인연으로 하여 친근하게 여겨지는 고장에서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했다. 선창가에서 《은정》호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고색이 짙은 옛성과 그우에 서있는 루정이며 그와 대조되는 하얀 러관전물이 머가 시야에서 사라진지 10분쯤 되었을 때였다. 배우에 타고있던 사람들중에서 누군가 환희에 찬 소리를 질렀다.

《첫째가 내려온다!—》

그 바람에 모두들 호수 웃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하! 거기 해빛이 자오룩한 물위로 통나무째를 단 배가 유유히 떠내려오고있었다. 영포에서 첫째를 띄운다더니 벌써 그게 내려오는 모양이었다.

《은정》호우의 손님들은 이해의 첫째를 본다는 기쁨에 들떠 술렁거리었다.

때는 얼마후에 《은정》호와 가까와졌다.

선장이 고동을 울리었다. 《봉—》 선군조국의 부흥을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였다.

배우의 사람들도 《은정》호를 향해 《어—어어—》하며 손저어 인사들을 했다.

사나이들의 웅결찬 목소리가 대안의 산밭에 부딪쳐 메아리를 불러올 때 나는 통나무들을 끄는 배전에서 푸른 수건을 흔드는 녀인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갑자기 반가움에 가슴이 확 젖어들었다. 해빛이 부서지며 반짝이는 정갈한 수면이며 맞은편대안의 푸른 숲과 대조되면서도 어울리는 하늘색수건! 안해가 아닌가! 그렇다, 나의 안해이다. 나는 전혀 예견치 않던 일이라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 굳어졌다가 급기야 뭐라고 소리치며 그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배는 가까이 다가왔다. 《은정》호와 어길무렵에야 안해도 나를 알아보았다. 안해는 뭐라고 소리칠 생각도 못하고 푸른 수건을 든 손을 허공에 정지시킨채 나를 바라보며 굳어졌다. 《은정》호옆을 지나쳤을 때에야 《달님이 아버지!—》하는 안해의 반가움이 실린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제서야 나는 얼떨떨한 상태에서 벗어나 《여보, 생일을 축하하오!—》하고 그 자리에서는 어울리지 않을수도 있는 소리를 날리었다. 한데 그 소리는 통통거리는 발동기소리와 배안에 가득 탄 손님들이 범석하는 소리에 잠겨들고말았다. 안해가 들었을까? 나는 그 순간 물너머 초간히 떨어져있는 안해의 얼굴이 가을단풍잎처럼 붉어지고 커다란 두눈에 물기가 어리어 반짝이는것을 보았다.

안해는 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것 같았다. 아니면 그의 심장이 먼저 알아들었는지 모른다.

길다란 때가 《은정》호에서 멀어져갈 때 안해는 달님이랑 잘있느냐고 소리쳐물었다. 그리고는 《…만수대지구… 가요!》하는 분명치 않은 소리가 잇달랐다. 안해는 나무와 함께 곧장 만수대지

구건설장으로 가고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딸애의 편지에 생각이 닿았다. 출장가방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과일단졸임을 넣은 생일음식이, 딸애의 마음이 배여있는 그것들을 안해에게 안겨주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웠다. 이제는 평양에 가서야 안해를 만나게 될것이다. 그때까지 우린 서로 기다려야겠구나!

안해가 탄 배가 하루로 멀리 떠내려가 아슴푸레해지도록 멍하니 서있던 나는 품속에서 딸애의 편지를 꺼냈다. 이제는 의의가 없게 된 편지이다. 뭐라고 썼을가?

《엄마, 보고싶은 우리 엄마, 생일을 축하해요. 아빠가 갖고가는 빵을 꼭 생일날에 드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나는 5점을 두번이나 맞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조끔 못 갔어요. 그건 내가 죽도록 앓았기때문이야요. 나는 앓으면서 엄마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일없어요. 인민반장큰엄마랑 병원선생님이랑 금남삼촌이랑 돌봐주어 병도 낫고 맛있는 음식도 잘 먹어요. 집에 가면 공부 잘하고 아빠말이랑 더 잘 들겠어요. 엄마가 막 보구파요. …》

원, 계집애두!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죽도록 앓았다는 말은 뭇하러 썼담. 하긴 썼으면 어쩔단 말인가. 안해는 먼 북방에서 소박하고 근면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바빠 살고 딸애의 곁에는 정다운 이웃들과 병원의사들이 있지 않는가.

나는 딸애의 편지로 종이배를 만들어 물우에 띄웠다. 그 편지가 딸애의 마음을 싣고 물따라 흘러가 안해에게 가닿았으면 하는 동화같은 생각이 떠오른것이였다.

물우에 떠가는 딸애의 편지를 보느라니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안해는 물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나는 호수를 거슬러올라가고있으니 우리 두사람은 멀어만지지 않는가.

아니, 안해의 모습은 결코 멀어지는게 아니다. 나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안해의 존재를 가까이 느끼고있지 않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고물너머 일렁이는 물우에 안해의 정다운 얼굴이 어려왔다. 달님이 아버지, 미안해요, 우린 또 헤어지는군요, 하지만 전 우리들이 약혼기념품을 사던 그때처럼 사랑해요, 열렬히… 열렬히… 당신과 우리 달님이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생활을 사랑해요, 아버지장군님의 선군정치아래 꽃피는 우리 생활의 귀중한 모든것을 사랑해요. 이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나라가 더 위대해질 미래를 위해 우린 앞으로도 바쁘게 살아야 해요, 안 그래요?

하 나 의 모 습

류 정 실

또 한발파로 탄벽을 허물고
점심참이라 빙 둘러앉았네
채탄소대장 영수네들과
성에서 내려온 국장도 지원자도
막장휴계실 식탁에

이제는 며칠째인가 국장과 낮을 익히지도
권하는 담배마저도 어렵던
그날 그 마음은 어찌런듯
이제는 허물없는 사이
이런 설참엔 그가 알려주는 당정책
얼마나 큰 힘을 주던가

친정집에 다녀오느라
며칠만에 막장지원나온
소대장 영수의 안해의 미안하다는 인사
식탁에 푸집한 바다특산물이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뜨끈한 콩비지...

이런 때는 시원한 뎡국이 제일
어느새 뒤사발 쪽 비우고
언제 봐도 마음후한 그의 마음에
막장은 화목한 한집안 한식술

그제사 낮설은 국장을 본
소대장안해의 억양센 함남도말씨
—소대에 식구가 한사람 더 늘었구만요
처음 보는 탄부같은데

소대에 채탄공으로 새로 왔는게지요?...

어쩔줄 모르는 소대장을 향해
한눈을 깜빡이는 국장
소대의 막내 광훈이 시치미떼고
그를 보고 하는 말 또한 걸작이구나
—에 며칠전에 내 조수로...
특별히 콩비지를 좋아합니다

하하하...
국장도 채탄공들도 웃고
막장에 발파소리런듯 터져나는 웃음소리
영문을 모르는 그의 눈은 더 커지고
소대장은 붉어진 목덜미만 어루쓸고

하기사 몰라본들 어떠랴
저 소박하고 진실하고 열렬한
탄부들의 호방한 웃음속에
불붙는 가슴들에 송풍기가 된
우리 시대 일꾼들의 모습

아, 채탄공들도 성의 일꾼들도 지원자들도
석탄증산으로 하나가 된 저 모습은
아버이수령님의 념원 장군님의 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불붙는 석탄이 되고 기관차가 된
새로운 대고조시대 인간들의 한모습이여라

나는 눈을 들어 안해의 땀이 내려간 하류쪽을
바라보았다. 바다처럼 일렁이는 호수, 햇빛이 자
오록하니 서린 호수의 풍경이 안겨왔다. 그너머
안해의 정이 어려있는 영평의 고색창연한 옛 성벽
과 루정이며 톱밥냄새 싱그럽던 립산사업소가, 거
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보이였다. 그리고 평양의
나의 집이, 정다운 이웃들이 사는 고층살림집이며
나의 안해가 정들인 고장의 통나무들이 가닿게 될
수도의 살림집전설장들이 보이였다. 우리가 어
머니조국이라 부르며 성실한 탐구와 로동으로 빛
내여가는 소중한 그 모든것이 바로 나의 안해가
아니, 우리모두가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에 더욱

아름답게 펼쳐가는 하나의 거대한 풍경화가 아닌
가! 그 풍경화를 세상에 더없는 명화폭으로 빛내
이기 위해 안해는 지금 여기 산촌에 있는것이고
나 또한 탐구의 길을 가고있는것이구나!...

그때로부터 몇개월이 지나갔다.

어느 가을날에 안해는 출장중에 있는 나에게 자
기의 두번째 풍경화가 전국미술축전에 입선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화로 알려왔다.

《여보, 당신은 미술전람회장에 꼭 가야 해요!》
하고 안해는 명령했다.

안해 역시 출장길에서 하는 전화였다.

철학적인 사색과 발견, 참신하고 특색있는 형상세계

— 단편소설집 《억센 뿌리》를 읽고 —

리 윤 근

한 작가의 작품집에는 그 작가의 창조적지혜와 열정, 탐구의 넓이 깃들어있고 그의 고유한 예술적사고방식과 취미, 기호가 반영된다. 때문에 이러한 작품집은 참신하고 특색있는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사랑하는 벗으로, 작가들의 문학수업에 좋은 도움으로 될것이다.

최근 독자들속에서 애독되고있는 단편소설집 《억센 뿌리》(박찬은 작)에 관심을 모으게 된것은 바로 이때문이라고 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생활현상을 관찰하는데 머물지 말고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현상으로부터 생활의 본질에로 끝까지 파고드는 철학적사색과 탐구능력을 가져야 한다.》

작가는 생활의 판조자가 아니라 체험자가 되어야 하고 열정적인 탐구자, 철학적인 사색가가 되어야 한다.

작가의 사색과 탐구는 형상창조 전과정의 필수적인 공정이며 창작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다.

단편소설집의 사상예술적풍격과 새로운 면모를 두고 일정하게나마 논의하게 되는것은 바로 그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리해를 다시 주는데서 유익한 계기로 되기때문이다.

생활은 자연스레, 철학적의미는 심오하게

단편소설집 《억센 뿌리》가 주는 예술적흥미와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게는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발견한 심오한 철학적의미를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밝혀낸데 있다.

단편소설집의 사상예술적풍격을 숭고한 높이로 이끌어올린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인 《무궁한 숲》, 《산촌의 새 전설》, 《화원》의 형상세계가 바로 그렇다.

단편소설 《무궁한 숲》에서 형상하고있는바와 같이 한그루의 나무라도 자기의 살점과 같이 귀중히 여기는 리순보농민의 깨끗한 량심을 믿으시고 그를 국수봉의 산림감독원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애국자로 값높이 불러주시고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 절세의 위인의 그 숭고한 인간애의 세계는 얼마나 심원하고 고결한것인가.

《(…정녕 아버지와 나는 푸른 숲을 가꿨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바다같은 은정은 영생하는 인간들의 무궁한 숲을 가꾸었구나!)》

산림경영일군으로 성장한 리순보의 아들 리영석의 이 심중의 웨침, 그것은 정녕 자연의 숲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시고 그 삶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간,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격조높은 칭송의 송가가 아닌가. 바로 여기에 절세의 위인의 위대한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밝혀낸 철학적의미의 심오성이 있는것이다.

금대봉의 칼벼랑을 뚫으시며 수수천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산의 높이가 황금의 높이로 됨을》 발견하시고 황을선을 비롯한 산골농민들에게 인간사랑의 새 전설,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헌신의 로고를 감명깊게 보여준 단편소설 《산촌의 새 전설》의 형상세계는 또 얼마나 인상적이고 매력있는가.

단편소설 《화원》에서 형상하고있는바와 같이 이 땅우에 최첨단돌과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아직은 기술적준비가 어린 홍산의 기술집단에 최신형공작기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제를 맡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그것은 윤호천을 비롯한 홍산의 기술집단에 있어서 창조적지혜와 힘의 원천이였고 고무적기치였다. 하기에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끝내 수자식 조종선반 첫 시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었던것이다.

믿음으로 가꾸시는 천만인재의 화원, 그래서 조국은 영원한 청춘으로 부강번영하는것이 아닌가. 철학적으로 그 의미가 참신하고 심오하다고 본다.

단편소설집이 주는 예술적흥미와 매력은 평범한 인간들의 평범한 생활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진리를 참신하게 밝혀내고있는데 있다.

외동딸 순녀만이라도 김일성장군님 유격대에 보내는것을 최대의 간절한 소원으로 간직한 단편소

설 《소원》의 주인공 정씨, 바로 그 소원속에 인간다운 존엄이 있고 삶의 궁지가 있다는 인생의 고귀한 진리를 의의있게 확인한 이 작품의 형상 세계는 참으로 인상깊고 여운이 있다.

츠강의 평범한 배사공 마원출의 곡절많은 생활을 통하여 나루터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김일성**장군님 유격대를 돕는 여기에 땅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안해의 원한을 풀고 새세상을 찾는 길이 있다는 투쟁의 진리, 혁명의 진리를 특색있게 밝혀낸 단편소설 《영원한 흐름처럼》.

《(인생의 길이란 곧 진심을 바치는 길이구나. 그 길에서만 만복을 누릴수 있구나.…)》 돈주머니만을 복주머니로 여기며 베아링조립현충용조약돌주머니를 스스로 버렸던 실화소설 《복주머니》의 주인공 조정숙의 동창생 최순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든 이 인생의 진리, 물에 빠진 귀여운 딸 영심이의 마지막숨결을 의식하면서도 다른 집 딸자식인 영란이를 희생적으로 구원하는 문정섭의 영웅적소행을 통하여 인생의 고귀한 진리를 가슴 뜨겁게 밝혀낸 실화소설 《한생과 순간》.

증오심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며 반드시 힘을 합쳐 일제원썹들과 싸워야 이긴다는 단결의 진리, 투쟁의 진리를 예쁜이와 그의 오빠 강천호의 피눈물나는 생활속에서 밝혀낸 단편소설 《별빛》.

보는바와 같이 미리 예상되거나 서둘러 결론하는것이 아니라 진실한 생활속에서 심오한 철학적 의미, 인생의 새로운 진리를 자연스럽게 밝혀내고 있는것은 분명 작가의 남다른 사색과 진지한 탐구정신이 낳은 웅당한 결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상적인 성격형상의 비결은...

어느 한 작가는 작가연단에서 《소설작품의 성공은 곧 성격형상의 성공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성격형상의 성공》, 그것은 아마도 개성이 독특한 인간, 매혹되고 인상에 남는 인간성격형상을 의미할것이다. 때문에 단편소설집 《억센 뿌리》의 사상에술적성과는 중요하게 성격형상문제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보는것이다.

단편소설들인 《산촌의 새 전설》의 황을선과 《무궁한 숲》의 리순보의 성격형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그들은 다같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신뢰의 사상감정은 물론 생활경위와 처지가 비교적 같은 산골농민들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징들과 함께 두 인물의 서로 다른 고유한 성격적특질들을 개성적으로 섬세하게 탐구하고있다.

산골사람들을 잘살게 하시려고 멀고도 험한 길을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나마 편히 쉬시기를 바라며 밤을 새워 방을 덥혀드리고 바람소리에 부엉이울음소리마저 알미워 돌을 던져 날려보내는 황을선의 행동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황을선은 생활에 대한 높은 요구와 지향 그리고 성미가 울컥하고 자존심이 강한 인물로 형성되고 있는바 특히 아들 덕산이가 산골총각이고 못산다는 리유로 자기 딸을 안 주겠다고 했다는 응솔령감에게 《...이제 별방 가서 우리 덕산이 달덩이같은 색시를 데려올 때 청할테니 오라구, 행!》하고 빈정대며 기세를 돋구는 행동은 얼마나 인상깊은가.

한편 산골농민으로부터 산림감독원이 된 리순보는 어떤 인물인가.

전쟁통에 벌거숭이가 됐던 국수봉에 푸른 숲의 전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길이 전하고싶어 화강석을 고르고골라 다듬고 쏘고 진정을 기울여 표식비를 세우는 그의 순결한 도덕의리심, 특히 산 나무 한대를 찍었다고 누구도 보지 않는 곳이지만 어린 자식에게 사정없이 매를 안기는 행동은 그의 애국심이 얼마나 열렬하고 결백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기질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황을선은 텅텅하고 덜렁거리며 어딘가 좀 수다스러운데도 있는 인물이라면 리순보는 순박하고 고지식하며 과묵한편이다.

단편소설 《화원》의 윤호천은 또 어떤 인물인가.

그는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결사판철하는 선군시대 우리 당의 충실한 지식인이다.

그렇다면 그에게만 고유한 성격적특질은 무엇인가.

《...박식, 높은 자존심, 강한 론리, 센 고집, 늘 쌍턱을 들고다니는 사람, 그 누구의 눈치를 보는 일없이 제 견해를 세워 부은것은 부었다 하고 낮은것은 낮았다며 할말을 다하고 사는 도담한 배짱군...》

그에 대한 일반료해자료에 려거한 특징들만 보아도 구태여 그의 개성을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단편소설들인 《억센 뿌리》의 류만석로인, 《소원》의 정씨, 《영원한 흐름처럼》의 마원출로인의 성격들도 개성이 독특하다.

이들은 망국노의 운명으로부러 존엄높은 자주적 인간으로 인생전환의 길을 가는 동시대 인물들이

다. 그러나 자주의식, 혁명의식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들의 개인적특질들에서는 역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있다.

단편소설 《억센 뿌리》의 류만석로인은 땅에 운명을 걸고 온갖 세파를 겪은 인물로서 《구레나룻이 시꺼먼 불편》, 《왕북축같은 눈섭》, 《꼭지처럼 거울진 손》 등의 외형적모습이 보여주는것처럼 근면하고 억척스럽고 완고한편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연약해보이면서도 이악하고 딸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데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강직한 인물인 단편소설 《소원》의 정씨, 왜놈도 지주도 없는 세상, 땅도 주고 아이들 공부시켜준다는 유격근거지로 가고싶었건만 나루터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혁명의 길에 나선 단편소설 《영원한 흐름처럼》의 마원출, 의리가 깊고 과묵하면서도 강인하고 결패가 있으며 어찌보면 고집스러워보이는 그의 성격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실력과 실적으로 당을 받들고 진정을 바치며 언제나 양심을 귀중히 여기고 양보를 미덕으로 삼고 자기를 희생할줄 아는 《복주머니》의 조정숙과 《한생과 순간》의 문정섭 그리고 동심적이면서도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영민하고 의지가 있는 단편소설 《별빛》의 예쁜이.

보는바와 같이 단편소설집의 주인공들과 인물들은 대체로 양심적이고 진실하며 대바르고 과묵한, 그러면서도 결단성이 있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물들을 창조해낸것을 통하여 작가의 개성과 능력을 보게 된다.

작가의 솜씨는 세련된 구성미에 있다

소설가에게 있어서 자기의 고유한 구성수법을 탐구하고 세련시키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는바 단편소설집은 바로 이 측면에서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 생활의 논리, 성격의 논리에 맞게 구성의 조형미와 립체미를 보장하고있는것이다.

단편소설 《산촌의 새 전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품은 어버이수령님과 황을선농민과의 관계를 주선으로 하고 여기에 어버이수령님과 일군인 송준호와의 관계 그리고 송준호와 황을선, 그의 아들 덕산이와의 관계, 뒤생활로 예상할수 있는 응술령감과 덕산이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맞물리고 있다.

구성을 치밀하게 엮는다는것은 어느 한 인물관계나 이야기선도 들어낼수 없고 바꾸어넣을수 없

게 빈틈없이 맞물린다는것을 의미한다.

가령 여기에서 황을선이와 응술이와의 관계를 들어내는 경우 응술의 딸 곱단이를 두고 애틋이는 덕산이의 심리를 흥미있게 보여줄수 없는것은 물론 이 고장을 뜨려는 황을선의 행동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안겨올수 없었을것이다. 그렇다고 이 관계를 덕산이와 곱단이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바꾸어넣을수는 더욱 없는것이다.

이와 같이 주선과 부선, 지선들을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금대봉전설과 황을선집안의 기물들을 비롯한 생활세태적인 세부들을 재치있게 설정함으로써 생활의 논리, 성격의 논리가 뚜렷하고 조형립체적으로 세련된 구성미를 보여줄수 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기계공업부 문형규부장과 의 관계, 경애하는 장군님과 윤호천이와의 관계 그리고 문형규와 윤호천의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파고든 단편소설 《화원》의 구성미는 또 얼마나 독특한가. 여기에서 얼핏 보기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문형규와의 관계가 주선과 같이 안겨온다. 하지만 보다 깊숙이 맞물려들어간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윤호천이와의 관계이다. 바로 이 관계속에서 홍산의 기술집단에 최신형공작기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 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가 직접적으로 실현된다. 이것은 결국 경애하는 장군님과 윤호천이와의 관계가 주선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형규는 다만 경애하는 장군님과 윤호천이와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심화시키는 촉매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과 윤호천이와의 관계를 주선으로 하고 여기에 기술조사단의 한 성원으로 어느 한 나라에 갔던 윤호천의 지난 생활을 일화적으로 삽입한 여기에 구성의 조형립체적미가 있고 세련된 기교가 있는것이 아닌가.

단편소설집에서 구성의 독특한 세련미는 특히 인물들사이에 서로 엇갈리는 감정선을 따라 이야기를 심리극적으로 엮으면서 여기에 촉매적인 인물선을 요긴하게 설정하고있는데 있다고 본다.

단편소설 《소원》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하나의 소원을 간직한 두 인물의 감정선을 서로 엇갈리도록 하면서 이야기를 심리극적으로 엮은것은 참으로 재치가 있다. 서로의 소원문제를 놓고 자기들의 속생각을 서둘러 터놓을수 없는 애틋한 감정, 이것은 부단히 엇갈리면서 절정으로 치달아간다. 비교적 인상에 남는 형상이다. 여기에서 흥미있는것은 고산집녀인의 촉매적역할이다. 이 선을 요긴하게 설정하였기때문에 순녀는

물론 정씨의 성격발전을 추동할수 있었고 감정흐름의 조화도 옹게 실현할수 있었던것이다.

마원출과 철규의 감정을 서로 엇갈리도록 이야기를 극적으로 엮으면서 윤보의 촉매적인 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단편소설 《영원한 흐름처럼》의 구성수법, 조정숙과 최순의 대조되는 감정선을 주선으로 하면서도 주로는 조정숙의 내부에서 엇갈리는 감정변화에 의의를 부여하고 명애의 촉매적인 선을 요긴하게 밀착시킨 실화소설 《복주머니》의 구성수법 등 단편소설집 《억센 뿌리》에서 보여준 이러한 세련된 구성미는 작가적개성을 엿볼수 있게 하고 단편소설집의 이채로운감을 더해준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할수 있다.

묘사는 자기의 언어밭에서 가꾼것이어야 한다

단편소설집 《억센 뿌리》의 참신하고 특색있는 형상세계를 론의하는데서 폐외로 될수 없는것은 작가의 언어적개성이 뚜렷한 독특하고 기발한 묘사수법이다.

여기에서 비교적 인상적이라고 보는것은 성격의 개성화에 바쳐진 초상묘사이다.

《구척같은 키에 얼굴이 길쭉하게 생긴 사공로인은 성긴 머리칼과 턱수염이 강바람에 모지라졌다. 큼직한 주먹코에 눈두덩이 두터운것으로 보아 펍 파묵할상싶었다.》

단편소설 《영원한 흐름처럼》의 주인공 마원출의 초상묘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설움많고 원한서린 그의 지나온 생활을 알수 있고 인정이 후덥고 의리가 깊으면서도 과묵하고 고집스러우며 결단성이 있는 산 인간 그대로의 배사공 마원출을 보게 된다.

단편소설 《소원》의 주인공 정씨의 모습도 그렇게 보이고있다.

《해별에 그들은 얼굴의 광대뼈가 더 두드러져 보였고 머리칼엔 서리가 내려 희끗희끗했다.》

남편을 잃고 오로지 외동딸 하나를 위해 곳곳이 살아온 강직한 녀성, 정의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맞받아 뚫고나갈 도도한 기상을 느끼게 해주는 정씨의 인상적인 묘사.

《그의 끝은 자태가 내물에 비껴 일렁일렁 춤을 추었다. ... 쪽 내뺨 목과 가름하고 희맑은 얼굴이 아직도 처녀와 같이 생신하고 정취로와 발랄한 인상을 자아냈다.》

아름다운 꿈과 희망으로 가슴부풀고 못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속에서 사는 보람과 희열,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이악한 성미, 언제나 변함없을 깨끗한 랑심을 지닌 실화소설 《복주머

니》의 주인공 조정숙의 초상묘사는 또 얼마나 매력있는가.

단편소설집에서 이채로운 정서를 돋구어주는 자연묘사는 참으로 기발하다.

《아침해가 수림우로 퍼져내리자 신비한 비단자락같은 안개가 뻘뻘한 밀림속으로 입김처럼 사라져갔다. 우는듯 흐느끼는듯 피빛으로 타는 단풍잎들이 미풍에 설레며 화려르 새뻬처럼 날아내린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산골농민들의 환희와 격정을 굴절시킨 단편소설 《산촌의 새 전설》의 이 자연묘사는 대상현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독창적인 탐구가 없이는 결코 기대할수 없는 그토록 이채롭고 기발한것이다.

단편소설 《무궁한 숲》에서 보는바와 같이 볼수록 장판인 산림의 수려함에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내면심리세계를 환희적으로 부각시킨 자연묘사.

특히 단편소설 《영원한 흐름처럼》의 주인공 마원출의 크나큰 충격과 흥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자연묘사는 또 얼마나 이채롭고 독특한것인가.

《밤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검푸른 강물은 창랑을 일으키며 와-와- 흘렀다. 갈구랑달마저 흘러가버린 동굴속같은 밤, 하늘의 못별이 그대로 쏟아졌는지 푸르른 강물속에서 일렁일렁 춤을 추며 번쩍번쩍 부스러진다.》

양재물장사젊은이 철규가 항일유격대원임을 알게 된 그 순간 마원출의 가슴은 이렇게 뚫었고 설레었던것이다.

단편소설집의 인상적인 묘사를 다 열거할수는 없다. 하지만 이 작품집의 묘사를 통털어보면 분명 이 작가만이 즐겨쓰는 자기의 언어밭이 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은 은유적인 묘사수법과 함께 특히는 《송이버섯과 같은 농가들》, 《긴치마자락같은 산 그림자》, 《숯덩이같은 아이들》, 《황소꼬리같은 벼이삭들》 등 직유적인 수법과 같은 문체론적수법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분명 자기의 언어밭이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으로 소설집을 읽고나면 작가의 뭉이 있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작가들은 현실궁정의 열정으로 사색과 발견이 있고 여운이 있는 보다 품위있는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선군문학의 재부를 늘이고 강성국가건설에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시 초

나의 자리를 내여달라

— 한 영예군인이 부른 노래 —

조 광 원

노 래 수 첩

군의소문을 나서는 나의 삼륜차우로
뜨겁게 내어미는 작별의 손과 손
배낭가득 채워주는 전우들의 지성
허나 이 가슴엔 제일 소중한구나
이 손에 쥐여준 노래수첩 하나

불같은 말과 말
뜨거운 격려
그모두의 마음이
이 작은 수첩에 담겨있지 않은가

나는 안다
노래처럼 살기가 쉽지 않음을
피와 땀을 흘리며 걸어온 병사의 길
그 길 이어 가야 할 인생의 먼 길을
이제는 두다리없이 가야 하거니

고맙다 전우들아
초소를 떠나는 이 몸을
변함없이 전호에 함께 세워주며
인생의 먼길에 곁함없을
의지와 열정의 나래를 나에게 준 전우들아

허나 찾지 마시라 나를

동정과 위안의 그늘속에서는!...
불같은 이 노래가 울리는 곳에
그 언제나 내가 있으려니

알아다오
이 수첩의 노래만을
내 부르지 않으리
돌격전의 나팔로 높이 울릴
내 삶의 노래를 여기에 적으리라

그대들 헤쳐가는 조국수호의 길에
내 지은 노래가 군가로 울리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도 죽은 몸
목숨은 있어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 내 이름은 없나니

사랑하는 전우들아
부디 작별의 손 흔들지 말아다오
이 길은 영원히 영원히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와 손잡고 어깨걸고 가는 길
그 영광넘치는 길에는
지팡이도 없으리!
부축임도 없으리!

나 에 겐 한 손 이 있다

이제는 나에게 한손뿐
오른손은 없다
어제날 병사여 너는
너는 얼마나 큰것을 잃었는가

다시는 정든 나의 무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수 없고
병실에 울리던 나의 유정한 기타소리도
더는 울릴수 없다

그러나 나의 량심은 엄숙히 묻는다
병사여 너 어느 한순간이라도
한팔이 없다고 실망한적 없는가

때로 힘에 부쳐 미루어놓은 일감을 두고
그 누구에게 량해를 구한적은 없던가

어찌 두손이라 여유가 있고
한손이라 해야 할 일도 절반뿐이라
비록 왼손엔 일이 설어도
병사에겐 못한다는 말이 통하지 않거니

누구에게 구구히 변명하랴
때로 다른 사람에겐 리해를 구한다 해도
자기자신에게야
병사의 량심에야

그 누구보다도 인생길을
정보로 걷기 바라는
살뜰한 안해앞에
귀여운 자식들앞에
뒤에 선 모습이 보일수 없나니

무겁다고 놓을수 없는 혁명의 짐이
쉬운것만 골라쥘수 없는 량심의 일감이

아직도 어머니조국의 어깨우에
힘겹게 지워져있지 않더냐

오!
심장이야 어찌 절반이라
병사여 너에겐 아직도
한손이 남아있지 않느냐!

눈 길 우 에 서

강산에 소복이 내려쌓이는
첫눈이 반가워 어린애처럼
나는 안해와 함께 집을 나선다
삼륜차에 몸을 싣고

어디나 하얀 눈 흰눈의 세계
내 마음은 끝없이 기쁘고 즐거운데
문득 돌아보는 나의 눈앞엔
안해의 발자국과 삼륜차바퀴자리뿐

어디에 있는가 나의 발자국
산발과 고지마다
내 걸어온 조국수호의 길에
그리도 뚜렷하던 나의 발자국은

눈아프게 안겨오는 흰눈우에는
나를 대신한 안해의 발자국이
조금도 걱정말라 나를 위안해도
아니다 조국위해 가야 할 병사의 길엔
대신 찍어줄 자국이란 없지 않는가

그렇다! 눈우에는
두번다시 내 발자국 남길수 없다 해도
나는 누구보다 깊은 자국을 남기고싶다
그 누구보다 뚜렷한 생의 자국을 남기고싶다

두다리가 있어야만
값높은 삶의 자욱 찍는것이라
몸은 성해도 정신에 녹이 쏠면
천만자국 땅우에 남졌다 해도
인생의 참된 삶의 자국은 남지 않으리니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생의 자국은
심장으로 찍는다
량심으로 찍는다
눈길우엔 나의 자국이 없다 해도
이 땅우에 남기리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위해
값높은 내 삶의 자국을!

그대는 나에게 무엇이던가

그대는 나에게 무엇이던가
살뜰한 안해이라면
너무도 깊어라 마음의 우물이
외동자식 돌보는 어머니처럼

허나 어머니라면
때로 꾸짖음도 있어야 하고
아픈 때도 들어야 하건만
속상함도 안타까움도 모르는듯 한 어머니

인생길 함께 가는 안해라면
작은 내도 사나이품에 안겨 건느고싶고
벼랑길도 억센 손에 이끌려 넘고싶으련만
아기손 잡고 걷는 엄마처럼
힘한 길엔 언제나 제가 앞에 서고

좋은 길엔 언제나 이 몸만을 세웠네

그대는 안해이면서
어머니인가
나는 남편이면서
그대의 자식인가

한생토록 나를 업고 가리라
웃으며 말하는 안해여
조국위해 더 바칠 심장 없다면
이 몸은 서슴없이 내려놓아도 될 짐이 아니라

아, 그래서 그대는
사나이를 업고도
무거운줄 모르누나

두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침이면
온 집안을 들썩이며
책가방을 둘러메고 집을 나서는 아이들을
나는 즐겁게 바라운다
—오늘 공부를 잘하여라

저녁이면
5점시험지를 자랑하며
달려와 와락 안기는 아이들을
나는 반갑게 맞는다
—오늘도 공부를 잘하였구나

한해 두해...
몰라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나날이 깊어지는 생각
내 이 애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학부형회의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명절날 유원지길도 걸어보지 못한 아버지

그래도 어깨가 무겁도록 목에 매여달리며
좋은 아버지라 부르는 아이들을
가슴이 빠근토록 그리안으며
마음속에 차오르는 말이 있나니

아느냐 아이들아
손잡고 함께 걷는 그런 길만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것이 아닌줄
너희들이 달음박치는 행복의 길우에
앞서 걸은 이 아버지의 자국이 있다

아직도 전호가에 뚜렷한
병사시절 아버지가 남긴 자욱자욱
청춘을 바쳐온 보람찬 그 길에
단 하나라도 헛디딘 자국이 있었다면
너희들과 함께 꽃길 천리를 걸은들
내 마음 이처럼 뗏뗏할수 있으랴

바라노라 아들들아
운동장이 비좁도록 너희들이 차는 공이
제일 높이 하늘가에 오르기를
바람차며 달리는 경주에선
너희들이 언제나 맨 앞장에서 달리기를

진정 바라노라
그 넓은 등교길이
이 아버지 못다 걸은 그 길에 이어지기를
이 아버지 너희들의 손목 잡고
즐거운 등산길 함께 걷지 못해도
마음은 너희들이 이제 병사로 서야 할
눈비오는 그 전호가에 벌써 가있거니

오, 사랑중에 사랑은
하나의 행복을 위한 작은 길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큰 길에 내세우는것
불같은 이 소원 아버지의 가슴에 꿰고있는 한
아이들아 너희들은 언제나
어제날의 병사
이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있는것이다

나의 자리를 내여달라

내 생활이 가닿는 그 어디에나
눈에 뜨이는 좌석이 있다
따스한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영예군인자리!

누구나 선뜻 앉지 못하고
언제나 비워두는 자리
어느때건 내 앉으면
사람들 정에 받들리는 자리

송구스럽구나
그 마음 그 눈빛에 받들리움이
그들이 누려야 할 행복의 공간이

나로 하여 작아지고 비좁아지는것만 같아

내 진정 그 자리에
땀땀이 앓을 자격이 있던가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온 선렬들
원쑤의 불구멍 뚫으로 막은 영웅들
그처럼 청사에 길이 빛나는
그런 위훈 세운것 무엇이던가

따로 비워두지 말아다오
내 자리를 내여놓지 말아다오
조국의 방선에 더운 피 바칠 때
나는 꿈에도 그 대가를

생각한적 없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

조국과 인민앞에
무한한 헌신을 맹세한
그날의 군인선서
지금도 온몸의 피를 끓이거니
내 어찌 순간이나마
마음편히 그 자리에 앉을수 있으랴

조국이여
내 어제날의 자그마한 위훈으로
편안한 자리만을 고른다면
영예군인!
조국이 불러주는 자랑스런 부름에서
영예의 두글자를 지워버리랴
병사시절의 그 눈비를 내 잊는다면

군인이라는 말조차 지워버리랴

한생 어머니등에 무겁게 얹히자고
이 아들이 흘린 피와 땀이 아니거니
사람들이여
부디 나의 자리를 내어달라
부강조국건설의 벅찬 돌격로
가장 어렵고 힘겨운 전투장에

오,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고 영예군인이 아니다
내 생명의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심장이 높이 고동칠 때에만
나를 불러달라 영예군인이라고
그리고 부디 내어달라 나의 자리를!

발 자 국 소 리

심 복 실

공장에서 돌아온 저녁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칼도마장단소리 울려갈 때면
버릇처럼 문밖에 귀를 강구네
정다운 발자국소리를 기다려

들려오네 토닥토닥
사랑스런 아들애의 발자국소리
문 벌컥 열고 목에 매달려
장난에 어지러운 손 스스럼없이
내 불을 어루쓸며 마주볼
순진한 그 눈빛이 먼저 보여오네

아, 오늘은 흥얼흥얼 노래소리
문 열고 내다보니 쿵쿵 토끼뎀
그러면 아네 우리 집에
또 한송이 5점꽃이 피어난줄
행복의 웃음꽃이 만발할줄을

애아버진 무슨 일이 있을까
어둠이 짙은데 이렇게 늦어지니...
잔근심많은 너인의 마음에
드디어 울리는 빠른 발걸음
그러면 아네 오늘 또다시
새로운 프로그램 완성했다는 기쁨

비록 크게 울리진 않아도
우리 가정에 사랑이 깃드는 소리
얼마나 정답고 아름다운가
날마다 기다려 맞이하는 행복이
나에겐 얼마나 큰것인가

이보다 소중한것 또 있으랴
나라앞에 떼떈해서 가벼운 발걸음
바쳐가는 노력으로 즐거운 우리 생활
이 저녁을 동트는 아침에 이어놓고
삶의 향기를 마음껏 풍겨가리

남편의 사색앞에선 조심스러워져도
아들애의 웃음앞에선 못내 가벼워져도
나의 발소리도 보란듯이 맞추어가네
우리 가정 하나의 발자국소리에

온 나라 가정의 발자국소리
날마다 합치면 모두 합치면
내 조국은 얼마나 큰 자욱 짙을가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달리는
조국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발자국소리 발자국소리...

개성적인 언어문체와 소설가의 노력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장을 다듬는데 **뼈심**을 넣는 작가만이 보석처럼 빛을 내는 정확한 단어와 표현을 찾아낼 수 있다.》

작가가 자기의 문체를 가지고 생신한 언어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자질과 기량에 달려있다. 때문에 작가는 자질과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타고난 재능은 있을수 있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도 그것을 어떻게 편마하는가에 따라 알찬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소설가가 자기의 개성적문체를 가지는것도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단한 노력에 의한 높은 자질과 기량에 의해 담보된다.

문장과 언어를 다듬는데 **뼈심**을 기울인 노력가들의 이모저모를 보자.

리기영이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때 사회적으로 여러 직무를 겸임하였으므로 나라에서는 그의 직책에 맞게 승용차를 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설가 리기영은 농민들속에 들어갈 때 자주 승용차를 리용하지 않고 가능한껏 걸어서 다니였다. 목적지가 너무 멀어서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타는 경우에는 농촌부락의 멀찌감치에 차를 세우게 하고 내려서 적지 않은 구간을 걸어갔다.

농민들과 만나는 경우 그들이 작가보다 번쩍거리는 승용차를 먼저 보게 되면 작가와 농민사이의 간격이 생기고 그 심리적간격으로부터 농민들이 작가에게 선뜻 속을 주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농민들속에 들어가서는 일도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스개를 많이 써서 그들과 인차 어울리였으며 그 과정에 농촌특유의 입말체어휘들을 많이 습득하고 자기 소설들에 자유분방하게 활용하였다. 리기영은 농민들의 언어생활을 습득하면서 그저 통채로 듣고 익히는 식으로가 아니라 새어휘탐색에 모를 박아 귀를 기울이고 자기식의 언어형상으로 새롭게 재현하였다.

소설가 리기영의 어휘들이 농촌서정이 차넘치는 향토적어휘이면서도 다른 소설가들의 농촌주제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수 없는 새롭고 참신한 어휘로 특징지어지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소설가 천세봉은 자기의 실체함에 기초하여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그중 장편소설 《고난의 력사》에는 장서방이 무림이네 집에서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대화가 있다.

《참, 좋기는 좋다. 박줄에 박 열리듯 조롱조롱 열렸고나.》

처음에는 이 대화를 《거 애들두 수태는 되는구나.》라고 썼었다. 써놓고보니 너무 평범하였다. 두번째로는 《거참, 구들농살 잘 지었군.》하고 고쳤는데 이것은 또 표현이 지나쳤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기를 몇번이나 거듭하던 끝에 지금의것으로 략착이 되였다.

《고난의 력사》의 한갈피에는 또한 《멀리에서 번개불이 쳤다. 불빛속에서 현대진네 창백한 초가가 편뚫 드러났다간 꺼졌다.》라는 문장이 있다.

작가는 이 문장에서 《초가》앞에 놓인 형용사 《창백한》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여러번 고쳐썼다. 처음에는 《나지막한 초가》로, 다음에는 《어둑컴컴한 초가》로, 그다음에는 《초라한 초가》로… 마지막에야 《창백한 초가》라는 객관적이며 성격적인 언어가 선택되였다.

하나의 대사, 하나의 형용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했는가.

이렇게 재능과 노력을 겸비한 작가들이 쓴 소설들을 보면 레외없이 뜻이 깊고 문체가 독특하다.

다른 나라 소설가들의 창작행로에도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다.

로씨야의 작가 톨스토이는 철학적인 문체를 위하여 언제나 사색을 깊이하였다.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을 뽀 톨스토이는 뽀슈킨의 소설을 깊이 연구하였다.

《〈손님들은 일제히 별장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소설의 첫 머리란 이렇게 써야 한다. 시시한 소설가같으면 손님이나 방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하게 늘어놓았겠지만 뽀슈킨은 대뜸 중요작중인물들을 첫시작에 끌어넣었거던. 역시 뽀슈킨은 소설대가임이 틀림없어.》

톨스토이는 이렇게 분석하면서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을 《오블론스끼네 가정은 여간 불행한것이 아니였다.》라고 뽀다. 그러나 어쩐지 문장이 설익은감이 들면서 마음에 들

분노한 총검으로

변 홍 영

우리의 가슴은 증오로 타끓고
들어진 총검은 분노에 편다
더는 용서 못할 리명박역도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고
살아 숨쉴 곳이 있을줄 알았더나

격노한 천만군민이
서슬푸른 멸적의 총검을 비껴들었다
천백배 복수의 불을 재우고
보복성전의 공격명령만을 기다린다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을 한
그 대역죄를 두고도
결단코 총결산해야 할 대결광신자
또다시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다못해
우리의 《최고수뇌부타격설》까지
함부로 췌쳐댄 특대형도발자

오, 치가 떨린다
그것이 얼마나
천추에 용서 못할 죄행인줄 네 아느냐
네놈을 열백번 죽탕쳐버려도
가슴에 사무친 한을 풀길이 없으리라

수령결사옹위는 우리의 제일생명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하여 목숨바침은

가장 숭고한 우리 삶의 모든것
우리 들어진 백두산총대가
그 도발광기를 어찌 용납할수 있단 말이나

제 명을 다산 산송장
최후발악에 날뛰는 역적을 살려두면
신성한 이 나라 맑은 공기가
썩어가는 역한 송장내로 더럽혀진다

리명박 네놈은
미친개처럼 하루빨리 때려잡아야 한다
리명박 네놈의
마지막숨통을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한다

오호, 분노한 총검으로
민족의 의사를 한사코 거역한 그 추종자들까지
세상을 다 들추어서라도 모조리 소탕하리라
민족의 가슴에 피맺힌 한을 풀리라

수령결사옹위의 철의 성새를 이룬
백두산혁명강군은 천하무적이다
추악한 역적무리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하나로 된 삼천리 푸른 하늘에
태양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우리의 최고사령관기 펄펄 날리리!

지 않았다. 폴스포이는 몇십장의 원고지를 버리면서 고치고 또 고친 끝에 《행복한 가정은 어디나 서로 어긋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나라로 불행하다.》는 매우 철학적인 문구로 완성하였다.

이렇게 폴스포이는 소설의 첫 문장에서부터 자기의 철학적인 문체적개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름있는 소설가에 대하여 말할 때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천부적재능이 하도 뛰어나다나니 소설을 누에 실 뿔듯 쉽게 쓴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창작행로에 깊이 찍혀진 사색과 탐구, 자각과 열정의 자욱들은 그들이야말로 가장

지성적인 사색가이고 지꿨은 독서가이며 진지한 체험가들이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재능과 노력을 겸비할 때만이 자질과 기량이 올라가고 그 자질과 기량이 발현되는 과정속에 소설가의 개성적문체도 확립된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동서고금의 이름있는 소설가는 모두 뛰어난 재능아인 동시에 건실한 노력가였다.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여기에 참된 성공의 비결이 있다.

리 남 철

시인 박산운과 참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진실성문제이다.》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한 말을 할수 있고 진실한 작가만이 진실한 작품을 써낼수 있다.

작가라면 누구나 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애쓰다고 하지만 시인 박산운의 경우에는 그것이 좀 남달랐다.

그는 진실을 《참말》이라고 표현하였다.

그의 시집 《내가 사는 나라》의 머리말을 통해 참말에 대한 시인의 소박하면서도 깨끗한 일가견을 들어보자.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시에 뜻을 두었던 첫시기에 나는 제나름대로 하나의 계를을 자기앞에 내세우고있었다.

그것인즉 시는 참말이어야 한다는것이였었다.

경상도에서 생겨난 구전민요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소년시절을 보낸 고향마을의 아이들속에서 불리우던 민요가운데는 이런 노래도 있었다.

노래는 참말
이바구는 거짓말...

이바구란 이야기의 경상도사투리이다.

그무렵 여러문살나던 우리들은 농한기인 겨울의 긴밤이 오면 동네머슴방들에서 울려나오곤 하던 〈심청전〉이며 〈춘향전〉, 〈토끼전〉 같은것을 들으려고 부지런히 찾아다니곤 했었다.

조무래기들은 심청이가 눈먼 아버지를 위해 물에 빠져죽는 장면이나 춘향이가 매를 맞는 대목이 나오면 훌쩍거리며 울다가도 돌아가던 길에 누가 〈그거 다 이바구다!〉라고 하면 참말 아닌 거짓말을 듣고 공연히 울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노래(시)는 참말이라는 관념은 어린 그 시절부터 인박한것이 아니였던가싶다.

그래서인지 예술적허구가 전형화의 수단임을 알게 된 후에도 그것은 소설의 경우이지 시에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되곤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한때 나는 어떤 시인이 발표한 시에서 〈기차는 지금 내 고향 호

남벌을 지나간다〉라고 한것을 보고서 그 시인의 고향이 전라도인줄 알았다가 후에 그가 서울내기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놀라기도 했고 속았다고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었다.

한편 나는 시인이 노동자나 농민, 기타 임의의 직종을 가진 서정적주인공이 될수 있다는것을 믿지 않았었고 그것을 시인의 풍부한 생활체험과 어떤 서정적분야에도 침투할수 있는 다면적인 정신생활의 소산으로 보기보다 단일한 창작태도로 보려고까지 했었다.

시에 대한 이러한 리해에 기초해서 출발했던 나의 시의 제한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후에 문학일반의 기능과 함께 시인의 능력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소박한 견해를 바꾸었었다. 그러나 서정시에서 형상이나 화폭의 중심에는 시인의 심장이 자리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시적개성과 독자의 공감을 담보하는 참말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은 나의 창작실천과정에 더욱 깊어갔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것을 가져다주었다. ...》

박산운은 예술적허구가 전형화의 수단임을 모르지 않았다. 또 시인이 생활체험을 풍부히 하고 다면적인 정신생활을 하는 경우 시인이 어느때건 노동자나 농민이나 기타 임의의 직종을 가진 서정적주인공으로 될수 있다는데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물론 어려서는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에 대해 몰랐고 또 그때에는 모르는것이 극히 진실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시를 익히고 시에 대해 론할만 한 경지에 이른 때조차 시인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고집스럽다고 평하리만치 참말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주정토로를 주장하였다.

산운의 이 주장이 정말 지나친것인가?

아니, 그토록 그는 진실하였다.

시집 《내가 사는 나라》의 머리말 마지막문구를 보더라도 그것은 《비록 머리에 백발을 이고있으나 그 자랑스러운 대오(우리 시단)속에 서있는 나의 임무를 되새기면서 이 시집을 언제나 마음속 함께 살고있는 남녘동포들에게 삼가 드린다.》이다.

여기서 시인의 임무란 떠나온 남녘의 고향땅,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의 무한궤도밑에 신음하는 고향, 온 남녘의 하늘과 땅에 반미반피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그림고도 장한 고향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시들, 미제와 피뢰의 정수리에 벼락이 되고 우뢰가 되는 증오의 시편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 것이었다.

참말만 써야 할 시인의 임무를 안고 그는 한생 반미반피뢰성전의 참호에 있었다.

시 《청계천에 부치여》, 《4.19의 이름으로!》, 《서울시민들에게》, 《광주의 불길은 끄지 못하리》, 《수령님의 전사여 불멸하리라》, 《미국병정》, 서정서사시 《10월의 불길》을 비롯하여 그는 실로 우리 시단에 귀중한 유산을 남기었다.

그의 시들은 진실의 힘, 참말의 힘으로 남녘인민들을 반미반피뢰항전으로 불렀다.

시인이 한생토록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조국을 참말의 정의로운 필봉으로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어버이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신 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인이 한생을 값있게 살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으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생일 70돛에는 사랑의 생일상도 안겨주시었다. 그리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조국통일상도 수여해주시는 하늘 같은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참말—진실만 쓴 시인—박산운은 수백편에 달하는 통일시편들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과 인민의 기억, 문단의 추억속에 오늘도 참말을 쓰고있다.

그 참말—시인의 시 한구절이 세월이 흐른 오늘도 생생히 떠오른다.

불바다 피바다를 헤치고헤쳐
항일빨찌산들이 조국땅에 첫발 디디던
저 강기슭 저 흙을
춘하추동 바라보며 자란 나무들아
우리 선렬들의 옷자락이 스친
압록강변의 우리 나무들아
천년만년 자라거라 우리네 땅우에
천년만년 자라거라 우리네 가슴속에...

—시 《압록강변의 우리 나무들아》중에서—

라 경 춘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7호 (루계 제777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쇠 소 평 양 종 합 인 쇠 공 장
인 쇠 주 체 101(2012)년 7월 1일
발 행 주 체 101(2012)년 7월 5일

ㄱ-26304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